장편소설

풍운의 5세

제 2 부

장수봉

평양출판사
주체110(2021)년

장 편 소 설

풍운의 5세

제 2 부

장 수 봉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차 례

제3장 1926년 여름(2)…… 2

제4장 1926년 가을 …… 77

제 3 장

1926년 여름(2)

1

취기로 축 처져있던 우회장의 눈꺼풀이 찬물이라도 들쓴듯 치들렸다.

《최박만이한테서 돈을 빌리시겠단 말씀이요?!…》

곽칠성은 머리를 끄덕이며 설명을 달았다.

《예. 금광이라구 하나 차려놓긴 했소만 자금이 딸려서 애로가 이만저만 아닌걸요. 그래 최박만씨가 큰돈을 움직인다는 소문을 듣구 생각하다가 우선 형편부터 알아볼가 해서 이렇게 우회장을 찾아온거요.》

그러자 우회장이 머리털이 빠져 대우를 낸것처럼 반들거리는 정수리를 제끼며 너털웃음을 치는것이였다.

《흐허허허…》

도심과 떨어진 동소문안의 뒤골목이여선지 청료리집 구석방은 한적했다. 마고자를 입은 남자접대원 하나가 늦은 오후의 해볕이 자글대는 창문쪽에서 식탁을 거두느라 얼른거릴뿐이다.

잠시후 우회장은 배추를 둔 돼지고기볶음을 한점 집어 짜증스레 씹으며 도리질을 쳤다.

《내 사촌과 막역지우라니 툭 터놓고 말씀드리는건데 최가의 낯판대기에 씌워진게 사람가죽인줄 아시오? 개가죽이라오.》

칠성은 그러는 그의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차림새로 보아서는 밥술이나 뜨는 사람이였지만 부석부석한 눈두덩이며 거푸시한 머리칼들, 풀기가 빠져버린 와이샤쯔 등 어디라 없이 시름기가 잔뜩 낀 모습이였다.

그래도 명색은 금은세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어느 상회 회장인지라

그런 사람과 마주앉아있는 곽칠성 역시 전날의 품팔이군행색은 씻은듯이 가셔버린 모습이다. 자기를 어느 회사의 전무로 소개한데 어울리게 회색세루양복을 빼입고 기름을 발라 고수머리를 한옆으로 갈라붙인 칠성의 차림새는 제법 은행원이나 실업계인물을 방불케 했다.

우회장이 또다시 술잔을 잡는다. 벌써 여러잔째였다. 두눈을 지르감은채 독한 빼주를 단숨에 삼켜버리는 그의 얼굴에 울혈이 서려있었다.

칠성이 넌지시 말을 걸었다.

《보아하니 우회장은 최박만씨의 덕을 단단히 보신게군요.》

그 말에 우회장은 한숨을 쏟아놓더니 게면쩍은듯 투덜거리는것이였다.

《어휴, 돈나는 모퉁이 죽을 모퉁이라더니만 말도 마시유.》

그리고는 화가 치받쳐 씩씩거리며 복장이 터지는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난 몇년전부터 시세에 따라 금은세공품의 재료를 샀다팔았다 하면서 폭리를 추구하는 원료투기에도 손을 대왔더랬지요. 근데 올 정초에 귀가 번쩍 틔는 소문이 들려왔소그려.

글쎄 상해의 은값이 오른다는게 아니요. 소식줄을 통해 확인해보니 과연 상해의 어느 서양은행에서 은을 닥치는대로 사들이고있다는게요.

서양투자가들이란게 오죽이나 셈이 빠른가요. 자세한 내막은 알길없었어도 그 량반들이 마구 은을 사들일 땐 필경 머지않아 은시세가 폭등할거라는 조짐이 아니랴싶었소. 그런즉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을 사들이면 여불없이 땡을 잡을것같더군요.

난 은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대로 자금을 털어 은을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나니 상회의 자금만으론 성차지 않아 최박만이한테서 반년기한으로 5만원의 고리채까지 빌렸구요.

막상 최가한테 손을 내밀자니 처음엔 께름하더군요. 최박만이라면 돈독이 올라도 더럽게 오른 수전노로 장안에 소문난 작자이니까요. 허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돈은 언제 벌겠는가싶었소. 수전노의 돈이든 자선가의 돈이든 재간껏 빌려다 리문만 걷으면 그만이라고 난 생각했더랬지요.

허, 근데 이런 도깨비조화라구야. 거액의 자금을 던져서 은을 사들인 뒤 이제나저제나하면서 은시세가 폭등하기만을 고대했건만 천만뜻밖에도 얼마후 은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게 아니겠소.

난 간이 록두알만해져서 손발이 닳도록 행운을 빌었지요. 그랬건만 은값은 나날이 곤두박질쳐서 나중엔 본래시세의 절반가까이로 폭락하고말았소그려.

눈앞이 새노래지더군요. 돈벼락을 꿈꾸면서 들이밀었던 상회의 숱한 자금은 어떻게 건져내며 더군다나 리자조차 물 길이 막막한 최박만이의 엄청난 빚은 무슨 수로 갚는가 말이요.

최가가 어떤자게요. 모기다리에서도 피를 뽑아낼 인간이지요.

아닐세라 채무상환기일이 가까와지자 기다렸다는듯이 최가가 올가미를 조여오더군요. 그자의 수작인즉 계약을 어기는 경우 제잡담하고 상회를 내놓으라는게요. 내가 문턱이 모지라지게 찾아다니면서 상환기일을 늦춰달라고 통사정을 했건만 애초부터 팽이 기름종지 넘겨다보듯 상회를 탐내던 최가가 그런 소리에 귀기울일리 있나요.

땅을 칠노릇이지요. 도마우의 고기신세라고 결국 며칠후면 난 최가한테 꼼짝없이 상회를 뺏기게 됐소그려. 흐흐흐…》

우회장의 목구멍에서 쓰거운 웃음소리가 새여나왔다. 괴롭게 얼굴을 찡그리며 그는 후회하듯 중얼거렸다.

《허욕이 패가라더니 어휴ㅡ 난 지금 접시물에라도 빠져죽고싶은 심사요.》

칠성은 탄식에 절은 푸념소리를 들으며 쓴입을 다셨다.

탐욕에 눈이 멀어 파산에 직면한 우회장의 꼴도 눈꼴사나왔지만 그보다도 등치고 배 째먹는 최박만의 짓거리는 얼마나 가증맞은것인가. 남의 눈물로 환락을 누리려는자들의 치사한 넉두리를 듣고있자니 역겨움을 금할수 없었다.

허나 어쩔 도리가 없는 자리여서 칠성은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있었다. 그럴 사정이 있었다.

오늘 아침에 박상궁이 사동궁쪽에서 귀띔해온 소식이라면서 그에게 전갈을 급히 보내왔던것이다.

윤대비가 빚독촉에 쫓기우는 아버지의 끈질긴 성화에 못이겨 끝내 황제어새를 내여주었고 아버지 윤택영은 곧바로 옥새를 최박만이라는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다는것이 아닌가.

칠성은 창졸간에 앉은벼락을 맞은 심정이였다.

윤대비가 황제어새를 내주다니? 게다가 윤택영이란 량반은 선임금이 맡긴 옥새를 사사로운 빚막이로 꺼리낌없이 넘겨주었다니 참으로 기구멍이 막히는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한때는 《국모》라고, 《부원군》이라고 자처하며 만백성의 섬김을 받던 황실족속들이 아닌가. 뭇신하들에게 늘쌍 《위국충절》을 지엄하게 훈시하던 어르신네들이 아닌가.

그러던 그네들일진대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여 왜놈천하가 되였다한들 어쩌면 한쪼각의 체면마저 집어던진채 나라의 마지막옥새를 엿가락인양 팔아버릴수 있단 말인가!

개돼지만도 못한것들이라는 사나운 욕설이 곽칠성의 입에서 거세게 튀여나왔다. 하기야 나라와 백성까지 저버리면서 저들의 안락만을 부둥키고 살아온 족속들이니 이제 와서 옥새 하나 덤으로 더 팔아넘겼다 하여 새삼스러울게 무엇이랴.

그런 추물들한테 《대의》니 《충절》이니 하는것을 기대하며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온 자기나 박상궁이 가소롭기 그지없었다.

칠성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안된다!)

결단코 황제어새를 시정배들의 흥정거리로 내맡길수 없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옥새를 손에 넣어 절통하게 떠나간 상건형의 원혼을 위로하고 독립혈전을 위한 군자금을 마련해야만 했다.

북치듯 쿵쿵대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칠성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아나갔다.

다시 생각해보니 차라리 잘된것같았다.

지금까지는 왜놈들의 경계가 삼엄한 구중궁궐속에 있는 물건이여서 가까이 다가갈 방도조차 묘연했었지만 인제는 황제어새가 궁밖으로 나왔으니 불행중다행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독살스러운 왜놈

들의 마수가 언제 뻗쳐올지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시정아치들이 당장이라도 옥새를 또다시 넘겨버릴 판국이니 순간도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하여 그길로 나선 칠성은 화급히 줄을 놓아 최박만이라는 작자에 대해 캐보았고 이 시각에는 이렇게 최가의 빚을 얻어썼다가 쫄딱 망하게 되였다는 우회장을 방조자의 소개로 만나고있는것이다.

별안간 오기가 발작한듯 우회장이 된욕을 퍼붓는다.

《최박만이 이놈! 어디 몇대나 누려먹나 두고보자! 네가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 내가 꺼꾸러질줄 아느냐!》

곽칠성은 최가에 대해 더 알아보고싶어 짐짓 우회장을 눙치려들었다.

《설마한들 최씨가 그렇게까지 몰인정하게 나올라구요. 그쪽에서두 돈을 잃을가봐서 우야 되게 나오는가부지요.》

우회장이 가소롭다는듯 코방귀를 뀌였다.

《헝,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소릴랑 하지도 마시오. 언젠가 웬 쓸개빠진 녀석이 최박만이한테 부자되는 비결을 물었다는구려.

그때 최가가 대답하길 <그야 참 쉬운 일이지. 오줌 쌀 때 한쪽발 들고 싸게나.> 했다는게 아니요. 물어본 녀석이 아연실색해서 그건 개가 하는짓이 아닌가고 되물으니 최가는 천연스레 <암! 사람다운짓으론 절대 돈일랑 벌수 없당께.> 하고 그루를 박았다는게요.

최박만이란게 워낙 그런 말종이란 말이요. …》

달아오른 우회장의 입에서 최가의 너절한 리면사가 장마에 넘어난 하수마냥 꾸역꾸역 쏟아져나왔다.

하찮은 장돌뱅이로 이장저장 떠돌아다니던 최박만이 벼락부자가 될수 있은것은 두말할것없이 왜놈들 덕택이였다.

왜놈들이 밀려들자 남먼저 머리를 깎고 《일진회》에 드나들던 그자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자 함평에 기여든 왜놈측량군들을 따라다니면서 조선농민들의 땅을 수탈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는것이다. 그 공으로 동척농장의 농감이 된 최가는 동양척식회사가 빼앗은 함평만일대의 진펄을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 농민들의 등가죽을 사정없이 벗겨내며 오두발광했다고 한다.

왜놈들은 저들에게 충실한 사환군에게 거의 한달갈이나 되는 땅을 헐값으로 불하해주었고 그리하여 이전날의 장돌뱅이였던 최박만은 일약 함평벌에서 제노라 하는 지주로 둔갑하였던것이다.

지주가 되자 최가의 치부욕은 더욱 악착스러워졌다. 흉풍을 가리지 않고 소작농들에게서 6～7할이나 되는 소작료를 에누리없이 받아낸것은 물론이고 땅세와 비료값도 소작인들한테 모조리 들씌웠다.

땅세야 땅임자가 무는것이 응당하고 비료값도 수확물을 차지한 몫만큼 지주가 무는것이 마땅치 않느냐고 소작인들이 들이대면 최가는 그렇게 똑똑한것들이 왜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느냐며 가차없이 땅을 떼버리는것이였다. 지어 소작료를 제대로 못바친다고 촌수가 밭은 친척들한테 소작주었던 땅도 서슴지 않고 뗐다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가 하면 변놓이도 소작료 못지 않게 최가의 재산을 불궈주는 요술방망이였다.

왜놈들한테 아부하여 장기저리로 빌려온 자금을 령세상인들에게 단기고리로 빌려주고 닷새에 한번씩 돌아오는 장날마다 돈을 회수하는 장변놀이는 말그대로 누워서 떡먹는 돈벌이였다. 최가는 소작인들을 상대로도 변놓이를 해먹었는데 그 수법이 참으로 새우간 빼먹을 지경이였다.

처음에는 상대의 밑천을 보아가며 고리대를 놓고는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본전은 채근하지 않은채 몇달에 한번씩 리자만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리자를 본전의 몇갑절 되게 따먹고나서야 본전채근을 하는데 빚을 못갚으면 집달리를 내몰아 집이고 세간이고 무작정 차압하게 했고 소작인들이 억울함을 참을수 없어 대들면 대뜸 순사를 불러대군 하였다.

어디 그에만 그쳤던가. 보리고개를 넘기기 어려워하는 절량농가들에 장리쌀을 꿔줄 때에는 말질을 해도 닭알섬 다루듯 곡식을 조심스럽게 말에 쏟아넣게 하였지만 가을에 가서 곱절로 받아내는 곡식은 자갈 처넣듯 말에 콱 들붓고 흔들어놓기까지 하는걸 보아야 마음을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악을 부려서인지 날이 감에 따라 최가의 재산은 날개라도

돋친듯 늘어만 갔다.

했건만 바다는 메워도 탐욕은 못메운다고 최가는 돈구멍수를 찾아 도적개 헌바자 찌르듯 계속 허발을 쳐댔다.

정미소를 세우기만 하면 돈을 곽지로 거둬들일수 있다는 소문을 듣자 정미소를 두개씩이나 차려놓고 도정료를 긁어들였는가 하면 밑천 적게 들이고 돈벌기는 물장사가 제일이라는 소리를 얻어듣고는 함평천에 보를 막고 소작인들에게 관개용수를 팔아먹기도 하였다. 하면서도 남에게는 감기고뿔도 거저 주기 아까와 몸살치살하는 최박만을 두고 여느 사람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도 돈 다음에 나온 놈이라며 하나같이 혀를 털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듯 린색하기 짝이 없는 최가가 왜놈관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제 재산을 통채로 들이밀듯 극성을 떨었다는것이 아닌가.

온통 왜식으로 꾸며놓은 집에 왜놈나부랭이라도 들리면 최박만은 당장 미소시루(일본된장국)를 만들어라, 사시미(일본식생선회)를 만들어라 하며 분주탕을 피웠고 언젠가 왜놈의 집에 가서 보고 온대로 닭도 산채로 털을 뽑아 료리해야 일본사람들이 좋아한다며 집안것들을 들볶아댔다. 거기에다가 기회만 생기면 왜놈고관들한테 뢰물을 섬겨바치면서 갖은 비나리를 다 치군 하였고 지어 도지사라는자가 함평에 내려왔을 때는 순금으로 만든 꽃병까지 들고 찾아가 왜놈의 입이 가로 터지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아부하던 왜놈고관들이 본국으로 소환될 때면 만사불구하고 부산까지 따라가 석별의 눈물을 쥐여짜군 하였다니 실로 개가 웃을 일이 아니랴.

밑구멍도 기꺼이 핥는 최가의 아첨에 순사나 면서기따위들은 말할것도 없고 경찰서장이며 판검사, 군수와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녹아나지 않는자가 없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권세의 덕을 한두번만 맛보지 않은 최박만이였다.

한번은 도경찰부장을 하다가 경무국 고관으로 승진해간 왜놈과 만나 료정에서 먹자판을 벌려놓은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옛정을 잊지 않는 최가의 끈끈한 《의리》에 감동해난 왜놈이 넌지시 비밀 한가지를 뚱겨주었다. 서울 한강기슭에 있는 한남동일대의

토지를 미리 사두라는것이였다.

그때껏 논밭만 사오던 최박만으로서는 뒤로 나자빠질 소리가 아닐수 없었다.

대체 뭘 담보로 생소하고 머나먼 도회지땅에다 수십만원어치의 돈을 쥐뿌리란 말인가. 하지만서도 제 말대로 하면 횡재를 할테니 혼자만 먹지 말라고 오금박는 왜놈의 말에 배심이 생긴 최가는 마침내 그 말을 따르게 되였다.

아닌게 아니라 이듬해부터 친일파들의 주택이 왜놈관청의 허가를 받아 한남동일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땅값이 껑충 뛰여오르는통에 사들인 값의 몇곱절 되는 값으로 토지를 되팔아버린 최가는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경무국 고관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찔러주고도 엄청난 폭리를 남길수가 있었다.

그 일을 통하여 일본사람들의 권력이야말로 천행만복을 가져다주는 박씨라는것을 새삼스레 절감한 최박만은 더욱 든든한 세줄을 잡기 위해 서울출입을 빈번히 하게 되였고 나중에는 아예 서울로 자리를 옮기고말았다는것이다.

최가의 더러운 행적을 듣는 곽칠성의 눈앞에 이태전에 들렸던 황해도의 어느 농촌마을정경이 다가왔다.

꺼칠하게 마르고 수심에 찬 농부들의 주름투성이얼굴들, 누렇게 들뜨고 검버섯이 핀 시골녀인들의 얼굴들과 맨발인 아이들의 주린 모습들 그리고 거적을 뒤집어쓴듯싶은 궁기흐르는 초가들이며 춘궁기의 끼니거리로 껍질을 벗기운채 하얗게 말라죽어가던 소나무들…

악운과 가난, 횡포에 쫓기는 그 모습들이야말로 왜놈들과 주구배들에게 뜯기우고 쪼들리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니던가.

왜놈의 삽살개가 되여 동족의 피눈물로 살찌고 배를 불리는 최박만 같은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욱 치밀어올랐다. 그런 놈들한테 옥새마저 욕보일수는 없다고 거듭 다짐하며 칠성은 입술을 악물었다.

눈앞에서는 분기가 충천한 우회장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내두르며 줄창 최가를 욕질해대고있었다. …

2

찌물쿠던 한낮이 물러가고 어스름이 깃들었다.

한 사나이가 헛가게를 벌려놓은 로점상들이 저마끔 행객들을 소리쳐 찾는 종로야시장에서 빠져나와 슬그머니 돈의동골목으로 들어섰다.

양복차림에 파나마모를 쓴 그 사나이는 다름아닌 곽칠성이였다. 그의 뒤로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반소매차림에 등산모를 비스듬히 내려쓰고 들가방을 손에 든 또 다른 사나이 하나가 주위를 날카롭게 살피며 따라오고있었다.

길가의 집들에서 새여나오는 뿌연 등불빛이 어둠속에 묻힌 골목길을 드문드문 비치고있었다. 군음식장수들의 싸구려소리가 골목의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메밀묵 사려우ㅡ 메밀묵 사려우ㅡ》

《찹싸알떡ㅡ 찹싸알떡.》

《겐마이빵(현미빵)ㅡ 겐마이빵.》

멀지 않은 구멍가게에서 고학생인듯싶은 청년이 찾아온 손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다. 길섶에 난 도랑창으로 구정물 흘러내리는 소리가 수선스럽다.

골목굽이를 돌아 얼마간 더 들어가던 곽칠성이 걸음을 멈춘다.

몇걸음 못미친 곳에 커다란 솟을대문 하나가 서있는것이 눈에 띄웠던것이다. 대문좌우로 기다란 행랑채가 둘러서있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들과 굴뚝들의 형체만 보아도 례사로운 집이 아니라는것이 한눈에 알리였다.

칠성은 대문앞으로 다가갔다.

대문의 한쪽기둥에 《최박만》이라고 한문으로 새긴 대리석문패가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았던지 다른쪽 기둥에는 《대정친목회 회원》이니 《조선구락부 회원》이니 하는 잡다한 감투이름들까지

여봐란듯이 내걸려있었으니 《대정친목회》란 3.1운동을 반대해나선 친일역적들의 단체였고 《조선구락부》 역시 《내선융화》를 표방하는 친일사교단체였다.

대문을 노려보는 곽칠성의 두눈이 랭랭한 증오로 번뜩이고있었다.

《별다른게 없습니다.》

뒤따르던 《등산모》가 어느새 곁에 다가서며 재빨리 속삭이는 소리다. 곽칠성과 함께 압록강을 넘어온 권태석이라는 별동대원이였다.

그의 말을 통해 꼬리가 달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칠성은 큰숨을 몰아쉬고나서 우유배달함옆에 붙은 초인종단추를 눌렀다. 조금후 안마당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삐익 하고 육중한 대문 한쪽이 열리며 청지기가 머리를 내밀었다.

칠성은 태연스레 일렀다.

《주인장을 뵈러 왔소.》

그러자 청지기는 잠시 사라졌다가 체소한 몸집에 두귀가 발쭉한 사내를 앞세우고 다시 나타났다.

자기를 서사라고 소개한 그 사내는 뱁새눈을 쉴새없이 깝작거리며 곽칠성과 권태석을 미심쩍게 살펴보더니 찾아온 용건을 묻는것이였다.

칠성은 위엄을 차리며 대답했다.

《주인장과는 오전에 전화로 대강 이야기가 있었소만 상세한 설명을 듣고싶다기에 이렇게 찾아왔소.》

그리고는 품안에서 《기린광업개발회사 전무취체역》이라고 찍힌 명함장을 꺼내주었다. 명함장을 훑고난 서사가 심드렁하니 입을 열었다.

《령감마님께선 지금 장춘관에 가고 안계시오이다. 선약을 하셨다니 들어와 좀 기다려보시던지…》

주인의 위세를 등대고 거드름을 빼는 서사의 태도가 같잖았지만 칠성은 그따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장춘관이라면 예서 지척에 있는 장안의 손꼽히는 료리집이다. 보나마나 또 남의 등골을 뽑아먹을 흥정판을 벌려놓거나 왜놈고관들의 간장종지노릇을 하러 갔을테지. … 최박만이 료리집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거나해있을게고 밤도 어지간히 이슥해질터이니 오히려 잘된셈이였다.

칠성은 동료와 함께 서사를 따라 대문안으로 들어갔다.

행랑마당을 거쳐 중대문을 지나니 외등빛에 드러난 사랑마당이 나졌다. 잡귀를 쫓아낸다는 엄나무 한그루가 가지를 내뻗치고 마당 한켠에 서있는데 다른 한켠에는 흙과 기암괴석들로 쌓은 인공산우에 여름꽃들이 뽐내듯 흐드러지고 파초잎이 너울거린다. 인공산밑에 판 련못 한복판에서 첨벙! 고기뛰는 소리가 났다.

사랑채는 터를 높이 다진 마당의 남향받이에 고래등같은 기와지붕을 이고 으시대듯 틀고앉아있었다. 기다란 장대석들로 쌓은 대돌들과 여느 집 기둥을 하리만치 굵은 서까래들, 추녀끝에 매달려 이따금 댕그랑거리는 붕어풍경들… 뒤담에 난 일각대문너머로 사랑채 못지 않게 뜨르르해보이는 안채며 별채의 모습이 비쳐왔다.

3년전에 호기등등하여 서울로 옮겨온 함평갑부 최박만이 몰락한 옛 대신의 집을 돈뭉치를 뿌려 타고앉았다더니 짜장 아흔아홉간짜리 기와집에서 떵떵거린다는 소리를 들을만도 하였다.

곽칠성은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드는것을 느끼며 서사를 앞세우고 사랑채로 향했다.

널직한 퇴돌우에 신을 벗어놓고 사랑채의 퇴마루에 올라서니 서사가 미닫이문을 열었다.

두 방문객은 사랑방과 건너방사이에 자리잡은 대청안에 들어섰다. 무리등이 드리운 대청 한가운데 주홍칠을 한 큼직한 응접탁이 의자들에 둘러싸여있었다.

서사가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대청건너방으로 들어가버리자 칠성과 태석은 모자며 가방을 탁우에 올려놓고는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응접실로 쓰는듯싶은 너렁한 대청안은 온통 왜색으로 꾸며져있었다. 퇴마루와 잇닿은 곳에는 왜식으로 유리미닫이를 해달았는가 하면 바닥에 깐 주단도 벚꽃이 현란한 왜주단이였고 벽을 치장한 도배지도 색스러운 무늬가 아롱다롱한 왜도배지였다.

그뿐이랴. 흑단목으로 만든 사방탁자우에서는 아직 손 한번 안대본것 같은 왜놈의 차도구일식이며 알라꿍달라꿍한 왜사기들, 기모노차림의 왜녀인형 같은것들이 가살을 떨고있었고 빙글빙글 소리판이 돌아가는 축

음기에서는 간장을 녹일듯한 왜노래가 요사스레 흘러나오고있었다.

곽칠성은 침울한 불꽃이 튀는 눈길로 대청안을 휘둘러보았다.

하많은 조선사람들이 망국노의 피눈물을 뿌리며 도탄속에서 몸부림치고있는 이때 동족의 고혈을 짜내 차지한 고대광실에 틀고앉아 요망한 왜놈의 냄새를 피워보려고 안달복달하는 친일주구의 꼴을 대하고보니 저도 모르게 목줄띠가 뻣뻣해왔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이놈의 집에 불이라도 콱 싸지르면 속이 후련하련만…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칠성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넥타이매듭을 치켜올렸다.

황제어새가 최박만에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받고나서 불달린 범마냥 정신없이 뛰여다닌 칠성이였다. 어제는 온종일 우회장을 비롯한 련관자들을 찾아다니며 최가의 뒤를 까보았고 오늘은 광업개발회사 전무의 명의로 최박만에게 전화를 건데 이어 한나절이나 최가의 집주변을 은밀히 살피면서 기습안을 두번세번 두드려보았다.

그렇게 해서 낚아낸 이 기회를 칠성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었던것이다.

스르륵ㅡ

태엽이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벽시계가 땡땡ㅡ 여덟점을 쳤다.

칠성은 느릿느릿 흔들거리는 벽시계의 누런 추를 지켜보며 번거로운 생각을 달렸다.

돈벌거지인 최박만이 그새 벌써 옥새를 다른데로 팔아넘기지나 않았을가? 아니, 그보다도 최가가 옥새를 왜놈들한테 섬겨바쳤다면?… 왜놈의 사타구니를 긁어주며 치부해온자이고 이렇게 왜놈흉내를 내려고 눈에 달이 뜬자이니 왜놈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무슨짓인들 마다하랴.

정말로 그리되는 경우 황제어새를 손에 넣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가 아닌가.

불안이 먹구름처럼 밀려들었다. 칠성은 량팔을 엇걸어 가슴우에 얹으며 눈을 감았다.

어쨌건간에 습격은 이밤으로 단행해야 한다. 일이 뜻대로 돼서 황제어새를 탈취하는데 성공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일 옥새가 이미 최가의 손에서 사라져버렸다면 행방이라도 속히 알아내야 한다. 이밤을 놓

쳐서는 안된다!

곽칠성의 강파른 볼편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럴 때였다.

갑자기 안뜨락쪽에서 별채가 떠나가도록 야단치는 젊은 녀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냐, 날 죽여라! 날 죽인 담에 갈보년을 끌어들이든 지랄발광을 하든 네 맘대로 해라!》

그러자 귀쌈을 내갈기는 소리와 함께 죽일듯이 고아치는 남자의 소리가 뒤를 따랐다.

《이 가랭일 찢어죽일 년 같으니, 아직두 주둥일 못닥치겠니!…》

지끈지끈 두들겨패는 소리, 바스러지는 녀자의 비명소리, 울며불며 애고땜을 늘어놓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이 집 서방님이 또 재구를 친 모양이군. 허 참,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 있구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더니만…》

곁에 앉은 권태석이 쓴웃음을 치며 중얼거리는 소리다. 그 말을 듣고보니 칠성의 머리에 어제 태석과 함께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인륜도 렴치도 안중에 없이 갖은 치부술을 다 부려 졸부가 된 최박만이였건만 죄가 돌았는지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는것이다. 본마누라의 시악질을 눌러가며 줄줄이 첩을 거느리는것으로도 모자라 수시로 눈에 든 녀자들과 치정관계도 맺어보았지만 무당판에 헛돈질하는 격이였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최가의 조급증은 더해만 갔다. 이러다가 종내 후사도 못남기고 이승을 하직한다면… 한뉘 피를 물고 긁어모은 재물을 고스란히 오사리잡것들한테 내놓은채 황천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면 허망하고 억이 질려 가슴이 터져오군 하였다.

하는수없이 최가는 양자를 들이기로 하였다. 돈냥이나 있다니까 어디서 그 많은 양자감이 쏟아져나오는지 혼맹이가 빠질 지경이였다.

오래도록 골머리를 썩이던 최박만은 형의 막내아들 최흥두를 양자로 삼기로 작정하였다. 어릴적부터 병골이던 형은 여러해전에 저승객이 된지라 후날 친아비재세를 하려들 인간도 없었거니와 흥두는 아직 오줌도 못가리는 철부지여서 얼마든지 정을 옮길수 있다고 속구구하였던 것이다.

헌데 머저리는 크면서 알린다더니 대를 물릴 양자라고 들인 녀석이 되려 집안의 우환단지로 번질줄이야.

본디 비천한 장돌뱅이출신이였던 최가는 갑작졸부로 세상에 나서게 되자 볼꼴없는 자기의 문벌을 두고 무척이나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한다.

그자가 함평벌을 거머쥔 대지주가 되자마자 맨 선참으로 제 몇대 조부는 판서니 제 몇대 조모는 렬녀니 하는 식으로 족보를 새로 꾸미는 놀음에 달라붙었던것도 그런 렬등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였고 장차 자기의 양자를 군수나 경찰서장같은 벼슬자리에 올려앉힐 룡꿈을 꾸며 애면글면 왼심을 써온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하건만 양애비의 굴뚝같은 그 욕망에 비하면 흥두란 녀석은 너무 시라소니라 할지. 애초 그렇게 생겨먹어선지 아니면 부자집 응석둥이로 흥청망청 자란탓인지 흥두는 하라는 공부는 설익은 개살구 대하듯하면서 이마빼기에 피도 마르기 전부터 주색에 빠져 돌아쳤다는것이다.

최가는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사리분별을 못하고 노상 허랑방탕한짓만 골라하는 자식꼴을 볼 때마다 집안이 떠나가게 야단독장을 치기도 하고 구슬려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시루에 물 퍼붓기였다.

그런대로 고보(고등보통학교)까지는 돈을 찔러 겨우 넘겼지만 흥두가 3년이나 연거퍼 상급학교입학시험에서 미끄러지자 최가는 그만에야 네발을 바짝 들고말았다.

공부를 시켜 출세시키기는 글렀다고 생각한 최가는 방향을 틀어 흥두를 함평군청의 고원으로 들여보냈다. 함평에서 내노라 뻐기는 자기가 자식놈을 고원이라는 말직에 들여보내는것이 창피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군수자리에까지 차례차례 떠밀어올리겠다는 심산이였다.

허나 개꼬리 삼년 간들 황모가 되랴.

흥두는 그토록 넌덜머리 떨던 공부를 걷어치우자바람으로 아예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색잡기에 뛰여들었다. 명색이 고원이라지만 군청에는 가물에 콩나듯 드나들뿐 매일같이 난봉을 피우느라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몰랐다. 어떤 때는 동아리들과 함께 광주로, 서울로 밀려다니며 진탕망탕 뚜드려먹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노름판에서 방정을 떨다가 주먹곤죽이 되여 업혀오기도 했다.

그러다나니 돈을 물쓰듯할수밖에. 달마다 애비한테서 용돈외에 《군수운동비》랍시고 타먹는 돈도 적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냠냠해 흥두는 바빠나면 변놓이군의 돈이든 뚜쟁이의 돈이든 잡아써놓고 보는것이였다. 어련히 뒤감당이야 돈많은 애비가 싫든좋든 해줄테니까.

최가가 나중에 들이닥치는 빚문서들을 받아쥐고 천길만길 뛰며 아들놈을 도둑놈 닥달하듯 족쳐대면 흥두는 꺽꺽 기절해 나자빠지는 시늉을 하며 손이야 발이야 빌군 하였다.

생각다 못해 최가는 얼간망둥이같은 아들놈도 안착시킬겸 집안의 지체도 끌어올릴겸 조대비(조선봉건왕조의 24대왕 헌종의 어머니)와 먼발치로 뭔가 된다는 녀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그렇지만 웬걸. 외도질을 능사로 아는 흥두때문에 내외싸움이 그칠 날 없어 그러지 않아도 어수선하던 집안이 더욱더 소란해졌던것이다.

최박만은 가슴에서 불이 이는것만같았다.

어떻게든 집안에서 서슬퍼런 권력자를 하나 내서 덕택을 보자던 야심이 독장사구구로 된것도 울화통을 터뜨렸지만 그보다 더 창자가 뒤집히는 일은 못난 자식때문에 자기 재산이 허허바다에 소금섬 풀어버리듯 맹랑히 거덜나고있다는 사실이였다. 뒤늦게야 최가는 아들놈이 벼슬할 씨알머리가 못된다는것을 검쓰게 자인하고 《군수운동》인가 하는 놀음도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더위에 털감투같은 본마누라를 땅과 옛집을 돌보라며 함평에 떨궈둔채 서울로 이사올 때 최가는 애첩과 함께 흥두도 끌고 왔다. 보기만 해도 골치가 지끈대는 녀석이지만 그렇다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었다간 무슨 사달을 낼지 모른다는 위구때문이였다.

최가는 서울로 옮겨앉은 뒤 포목장사를 크지 않게 해보라고 아들한테 밑천을 대주었다. 어차피 벼슬을 못할 놈팽이라면 돈을 긁어모으는 수완이라도 익히게 하자는것이였다.

하지만 역시 헛된 망상이였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시골에서 맴돌다가 대처바닥에 나오자 흥두는 더욱 흥알이 풀어져 날개돋친 수개모양 기생방을 주름잡고 투전판을 싸다녔다. 얼마 못가서 애비가 준 장사밑천을 알뜰히 불어먹은 녀석은 또다시 최가의 재산을 등대고 여기저기서 빚돈을 얻어쓰기 시작했다.

악에 받친 최박만은 자식은 버려도 돈은 버릴수 없다고 생각하고 급기야 법원에 청구하여 흥두를 준금치산자(정신장애 등으로 자기의 행위를 분별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불충분한 까닭에 자의로 자기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예비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건만 웬걸, 이번에는 흥두란 놈이 애비의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돌아치면서 그짓을 계속하는것이 아닌가.

고리대군들도 흥두가 차용증에 찍는 최박만의 도장이 가짜도장인줄 뻔히 알면서도 주저없이 달라는대로 빚돈을 내주군 하였다. 후날 최가가 빚갚기를 거절하는 경우 제 아들이 인장위조죄로 징역살이를 해야 할텐데 그래도 버틸가보냐는 속셈이였던것이다.

참말 환장할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최박만의 집에서 아들을 개 몰아대듯 달고치는 애비의 악다구니소리가 사흘이 멀다하게 터져나오는 속에 부자관계는 날로 흉흉해져갔다. 요즘에 와서는 최가가 끝내 흥두를 호적에서 제적하고 다른 양자를 들인다는 소문까지 나돈다고 한다.

구역질나는 부자집 추문을 상기하며 미간을 찌프리던 칠성은 다시한번 이밤에 벌어질 일들을 두고 긴장한 생각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조금만 나서면 종로거리다. 거기서 빤히 바라다뵈는 경찰파출소까지는 큰소리 한번만 질러도 왜놈경찰이 달려올 거리다. 그러니 막다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일이 순조롭게 되여 옥새를 손에 넣으면 그달음으로 룡산역에 나가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북행렬차에 올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신의주에 당도하기 전에 렬차에서 내려가지고 은밀히 압록강을 넘어야 한다.

아니, 그보다는 인천이나 진남포(남포의 당시 지명)로 빠져서 중국인으로 가장하고 밀선을 리용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가?…

하지만 만약 최가에게 옥새가 없다면?… 그리되면 우린 공연히 헛불만 놓은 꼴이 될게고 왜놈들의 독기띤 눈초리가 황제어새에 쏠릴게 아닌가. 그래도 물러서선 안된다. 최가를 족쳐서 옥새의 행방이라도 정확히 알아내면 다음 방도가 나지겠지.

헌데 최가는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을가? 혹시 그자가 무슨 기미를 챈건 아닐가?…

칠성은 착잡하게 갈마드는 상념들을 애써 눅잦히며 최박만이 나타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벽시계가 아홉점을 치고나서 얼마쯤 지났을 때 대문쪽이 뒤숭숭해졌다. 건너방에 있던 서사가 설쳐대며 나간다.

칠성의 두눈이 감때스럽게 번뜩였다. 드디여 최가가 돌아온 모양이다. 칠성은 고수머리를 대충 문질러 이마전의 흉터를 가리며 권태석과 긴장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웬 일인가. 행랑마당쪽이 부산스럽더니 중대문이 벌컥 열리며 야발스레 과따치는 소리가 사랑마당을 뒤흔들었다.

《으응 이놈, 이 죽일놈이 어드메 있느냐? 여봐라! 흥두 이놈얼 당장 내앞으다 끌어다놓질 못할가!》

보지 않아도 미닫이문을 통해 귀따갑게 울려오는 목소리의 임자가 최박만이라는것을 칠성은 대번에 짐작할수가 있었다.

하인들이 덤벼치는 소리들이 황황히 들리던 끝에 안뜰쪽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아…아부님… 찾으셨어요?》

잔뜩 시르죽은 꼴을 보니 흥두라는 녀석같았다.

다음순간 벼락치듯 내지르는 최가의 고함질소리가 대청안에 앉아있는 두사람의 귀청을 때렸다.

《너 이놈! 이 잡아뽑을 놈아! 내가 그만치 말했는데도 또 위조도장얼 내대고설랑 빚돈얼 얻어써! 뭐 3천원이락꼬?! 항, 이놈아, 3천원이면 땅얼 얼매나 사는지 알기나 히여, 이 등신같은 놈! 아, 정 돈쓸 일이 있거덜랑 애비더러 달랠거지 해필이면 왜 비싼 고리대군의 변돈얼 내느냐 말이여, 이 쳐죽일 놈아!…》

발을 탕탕 구르며 지랄치는 애비앞에서 흥두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중얼댄다.

《제가 돈 달라문 아부님이 얼렁 내주셔야 말이지요. …》

허나 불이 나게 뺨따귀를 올려붙이는 소리가 흥두의 변명을 눌러버렸다.

《에끼, 이 쓸개빠진 놈! 이놈아! 대관절 네놈이 돈은 어따가 그렇게 물쓰듯허는거여? 오금에 바람든 계집년들 궁덩이나 쫓아다니면서 기생오입으다 돈얼 처넣는게 네놈 아니여? 노름판이라면 이마빡으다 신발짝얼 쳐붙이고 달려가는게 네놈 아닌가 말이여! 어유, 천석 2대럴 못가고 만석 3대럴 못간다더니만 저놈때문에 내가 말년엔 가랑잎에 똥 싸먹게 되는가부다. …》

최가의 말끝이 울음기에 잠겨 흐려졌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최가는 다시금 독을 뿜기 시작했다.

《오냐, 내 네놈얼 고소헐테여! 애비도장얼 위조해설랑 야바위럴 쳤다고 당장에 고소허겠단 말이여! 이노옴ㅡ 어디 졸경얼 쳐봐라! 내 판사헌테다가 편지해설랑 백년징역얼 지게 헐테여, 백년징역얼! 3천원이 아니라 3만원얼 들이밀고서라도 기어코 네놈얼 감옥귀신 만들지 않나 두고봐라, 으응 이 깎아죽여도 씨원찮을 놈!…》

칠성은 쓴웃음이 나갔다. 아마 밖에 나갔던 최가가 자식놈의 추문을 들은 모양이다.

얼마나 욕심사나운자인가. 저 인간의 눈에는 송기며 길짱구로 끼니를 에우는 절량농민들의 모습도, 보리고개를 견디지 못해 굶어죽는 어린것들의 모습도 그리고 땅과 집을 뺏기고 살길을 찾아 이역땅으로 건너가는 류랑민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것이다.

보인다면 오직 제 손에 그러쥐고있는 돈과 재물뿐이기에, 누릴수록 더 누리고싶은 부귀와 향락뿐이기에 저렇게 집안족속들에게도 승냥이처럼 으르렁대는것이 아니랴.

칠성은 치미는 욕지기를 꾹 누르며 앉아있었다.

목통이 찢어지도록 쌍욕을 퍼붓던 최가는 마침내 지쳐빠졌는지 도적개 쫓듯 아들놈을 쫓아버렸다. 그리고는 헐헐 가쁜숨을 몰아쉬는데

찾아온 손들에 대해 알려주는지 서사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최가가 흐트러진 위세를 다잡는듯 큰기침을 으험으험 툐는다.

얼마후 미닫이문이 드르릉 열렸다. 칠성과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며 문쪽을 바라보았다.

3

최박만이 트림소리를 내며 대청안에 들어섰다.

여적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는지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이마에 피대가 동해있는데 배우에 공을 올려놓은것같은 비둥비둥한 몸에는 왜놈의 얼럭덜럭한 유까다가 걸쳐있었다. 최가가 거만스럽게 굳어진 얼굴을 한채 방안의 두사람을 눈아래로 훑는다.

돈을 빌리러 온것들한테는 늘쌍 저런 상판으로 나설테지 하고 생각하며 곽칠성은 최가에게 인사치레를 하였다.

《주사님, 밤중에 찾아와 실례합니다. 오전에 전화했던 기린광업개발회사 전무입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현장주임이구요.》

칠성이 소개하자 권태석도 적당히 인사말을 붙이려는데 최가는 입안에 파리라도 날아든것처럼 골살을 찡그리며 그들의 앞을 지나치는것이였다.

응접탁의 한켠에 주인의 자리인지 등받이가 욕심스레 큰 안락의자가 외따로 놓여있었다. 최가는 그리로 가 뒤넘스레 퍼더앉더니 접부채를 짜증스레 펼쳐 활활 부쳐대기 시작한다. 그바람에 헤벌어진 유까다자락사이로 두텁게 살찐 배가 허옇게 드러나 들썩들썩하는데 뒤따라 들어온 서사가 축음기를 끈다, 선풍기를 곁에 놓아준다 하며 주인의 뒤틀린 심사를 얼러맞추느라 수선을 떨었다.

칠성이네는 자리에 앉아 그러는 꼴을 지켜보았다.

담장밖 행길쪽에서 두부장수의 종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사가 지나가는지 칼집이 철컥대는 소리도 들려온다.

기습을 무난히 치르려면 인적이 뜸해질 때까지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칠성은 뜨직뜨직 미리 생각해둔 화제를 꺼냈다.

《전화로 말씀드린것처럼 중평금광은 원래 륙칠십년전부터 잘 알려진 사금광입니다만 지금껏 진가를 몰라보다나니 보잘것없는 사금채취에만 머물러있더랬지요. 우리 회사에선 유명한 사금산지라면 틀림없이 부근에 석금이 묻혀있을것이라 판단하구 재작년에 그 금광을 매입했습니다. 헌데 석금은 사금과 달라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기마련이지요. 굴을 파면서 금맥을 찾자면 광부두 적지 않게 모집하구 착암기같은 설비두 넉넉히 들이밀어야 할텐데 현재로선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노다지를 뻔히 깔구있으면서두 여직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잘 아실테지만 밑천이 좀 들더래두 노다지만 터지면 일거에 천만금을 걷어쥘수 있는게 금광일 아닌가요. 장담하건대 주사님 같은분이 얼마간의 관심만 돌려주신다면 중평금광은 불원간 조선최고의 금광이 될겁니다.》

《항!》

칠성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최박만이 뀌는 코방귀소리였다. 최가는 오만상을 잔뜩 찌프린채 부채를 마구 흔들어대며 야살을 깠다.

《금광쟁이들이랑게 하나같이 저렇당께. 이보소, 내더러 바람먹고 구름똥 싸는 그따위 소릴 믿으라능기요. 가진게라곤 볼가심할것도 없는 주제에 남의 불에 게 잡아먹을 궁냥만 허는 당신네럴 믿으라냐 말여! 하항ㅡ 천만에. 나는 남의 뒤나 쳐주는 얼뜨기가 아니닝께 괜한 수골랑 말고 날래 그냥 가소!》

칠성은 한순간 얼떠름해졌다.

저자가 왜 처음부터 저렇게 나오는가. 오전에 전화할 때만 해도 어디 한번 들어는 보자는 식으로 나오던자가 아닌가. 아들놈에게 못다한 골풀이인가. 아니면 돈을 얻으러 온것들을 처음부터 단단히 눌러놓겠다는 심산인가.

딴은 금광이니 뭐니 하는것들은 기습할 기회를 기다리느라 둘러대는 소리들에 불과했지만 막상 앙탈을 떠는 최가의 꼬락서니를 보니 주먹이 찡찡 우는것을 견딜수가 없었다.

칠성의 낯빛이 시꺼멓게 질리는것을 보고 권태석이 재빨리 끼여들

었다.

《하, 주사님은 공연히 오해하십니다요. 비록 자금때문에 이런 걸음을 합니다마는 우린 녀편네 가락지라든가 며느리 노리개따위나 전당잡혀가지구 금일은 충청도니 명일은 평안도니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뜨내기패는 아닌뎁쇼. 우리 회사가 소유한 중평금광만 해두 총독부의 정식허가를 받은 등록광구는 3개이고 허가청원서를 낸 출원광구는 자그만치 10개가 넘습니다요. 게다가 주사님은 우리 같은 금광업자들을 흰소리나 치는 허풍쟁이쯤으로 보시는가분데 금광 하나 잘 만나서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친 실례가 어디 한둘인갑쇼. 몇해전엔가 조선최대의 금맥을 발견해서 졸지에 <금광왕>으로 등극한 최창학씨는 본디 삼순구식도 변변히 못하던 금점군이였답디다요. 그리구 요즘에 삼지금맥(세 손가락을 합친 굵기의 노다지금맥)을 찾아내 벼락부자가 됐다고 떠들썩대는 방씨도 근본은 알량한 시골출신이구요. 혹 알겠습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주사님을 찾아왔지만 머지않아 신혈이 터지는 날엔 주사님이 우릴 찾게 될는지나 말입니다요. 하하…》

최가는 넉살좋게 달라붙는 태석을 댕댕해서 노려보다가 야지랑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으응ㅡ 그리여 잉?》

그러더니 곁에 서있는 서사에게 암팡스레 이른다.

《이보게 봉구, 거 목책 가져오게.》

서사가 촐싹대며 건너방에 가서 손때에 짜들은 목책 하나를 가져왔다.

목책을 받아든 최가는 서사가 받쳐주는 돋보기집에서 돋보기를 꺼내걸치고는 꼬부장한 고리눈을 지릅뜬채 책장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한군데에 눈길이 미치자 별안간 모기라도 때려잡듯 손바닥으로 책장을 탁 내려치는것이였다.

《이것 보라닝께. 당신네 회사가 450원얼 들여설랑 중평금광인지럴 매입했닥 하지만 극상해야 하루 벌어 하루 먹을만큼의 소득밖엔 안 나왔닥꼬. 그마저도 작년홍수때 결딴난 뒤론 여태껏 거의 휴광상태라며? 항, 광세도 온전히 못무는 그 처지에 조선최고의 금광이 어찌고

신혈이 저찌고 허니 이게 까치배바닥같은 소리 아니고 뭐꼬? 그러닝께 내더러 똥진 오소리가 되라능기요? 앙!》

침방울을 튕기며 야료를 치는 최가앞에서 칠성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저자가 어느새 저렇게 금광내막을 상세히 꿰뚫었는가. 돈을 빌리려는 대상이 나타나면 수족들을 시켜 사전에 대상의 신용관계를 속속들이 조사하게 한다더니 헛소문이 아닌듯싶었다.

일을 서두르느라 기린회사니 중평금광이니 하는것들에 대해 깊이 파악할 겨를이 없었던 칠성으로서는 난처한 일이였다. 이러다가 때이르게 최가가 눈치챌가싶어 은근히 긴장해하는데 이때라는듯 태석이 가방에서 담배꼬투리만한 누런것이 박힌 돌덩이를 척 꺼내놓는것이였다.

《주사님 말씀마따나 작년여름 수마가 밀려드는통에 약차한 손해를 본건 사실입니다마는 자, 이걸 보십시오. 제가 그때 산사태로 패여나간 골짜기를 얼이 나가 바라보고있노라니 글쎄 무너져내린 돌무데기틈새에서 이런게 번쩍거리는게 아니겠나요. 이번 길에 총독부 광무과나리들한테도 찾아가 보여줬더니만 함금품위가 손꼽히는 금광석이라구 하나같이 머리를 끄덕이였는뎁쇼. 인제 두고보십시오. 누구든 돈주머니를 풀어서 그 골짜기를 파헤치기만 하면 시누런 노다지금맥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을겝니다요. 하하… 주사님, 우리가 꼬옥 맘을 두고서 권면하는것이니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 그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면 아예 광산주로 틀고앉으시던가요. 아닌게 아니라 요즘 돈개나 만지는 부자라면 금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간에 금광 하나쯤 차고있는게 류행 아닌갑쇼. …》

태석은 이웃 금점판에서 괭이금이 나왔다느니, 평안도 어느 금광이 백만원에 팔렸다느니 하는따위의 소리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점점 더 넌덕스레 달라붙었다.

그럴듯하게 둘러치는 태석의 소리를 듣느라니 칠성은 슬그머니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이리로 올 때 태석이 어디서 얻어왔는지 모를 돌덩이까지 가방에 넣는것을 보고 머리를 기우뚱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 속궁리가 있었던것이다. 매사에 저렇게 꼼꼼하고 구변과 변통수가 능한

데다가 금점판에서 일해본 체험까지 있는 권태석을 데려오기 잘했다는 생각에 칠성은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런데도 최가는 탁우에 놓여있는 돌덩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연신 코방귀만 뀌다가 태석의 줄사설을 역정스레 동강내는것이였다.

《듣기 싫당께! 그따위 헛나발에 넘어가 랑패본것들이 좀 많닥꼬. 저 청파동 박부자는 아연광석인가 뭔가럴 금광석이라 속여 파는데 넘어가 설랑 천금얼 날렸닥 하오. 또 담양의 배주사는 개뿔도 없는 돌산얼 금뗑이가 깔린 산으로 속히워 사들였다가 패가망신얼 당했닥 하고… 됐소, 됐당께. 더 들을것도 없으닝께 진소릴랑 말고 가소, 아 날래 가라닝께!》

주인이 부채를 홱홱 내젓자 서사란자도 뱁새눈을 얄밉게 깝작거리며 덩달아 볶아쳤다.

《자 자, 고만 일어들 나라니깐요. 령감마님께서 고단해하시는걸 못 보나요? 거참 눈치도 무딘 손들이로군. …》

착잡한 생각들이 시계추처럼 칠성의 뇌수를 두드렸다. 바깥은 아직 잠잠해지지 않은것같았다. 그렇지만 최가가 저렇게 지랄을 치니 더 지체할 도리가 없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기회를 놓칠수 있었다.

칠성은 태석을 향해 눈짓하며 슬며시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바로 그때였다.

난데없이 사랑문이 벌꺽 제껴지더니 시꺼먼 괴한이 사랑방에서 뛰쳐나오며 벽력같이 소리치는것이 아닌가.

《꿈쩍말앗!》

검정복면을 쓴 괴한이였다. 륙혈포를 내댄채 염라귀신마냥 엉버티고 선 괴한앞에서 대청안의 사람들은 창졸간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제껴진 방문사이로 담장에 면한 사랑방 창문이 열려있는것이 보였다. 아마 괴한이 그리로 숨어들어온듯싶었다.

너무나 뜻밖의 정황인지라 칠성은 얼른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왜놈들이 미리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단 말인가. 결국 놈들이 우리의 의도를 손금보듯 꿰뚫고있었다는게 아닌가. 아니, 복면을 한걸 봐선 경찰같지는 않은데… 그럼 강도인가?…)

칠성이 얼굴없는 괴한을 주시하며 사태를 파악하려 애쓰는데 괴한은 다가올념을 않고 사랑문앞에 그대로 선채 불안스레 대청안의 네사람을 둘러보는것이였다. 이윽고 복면속에서 투깔스러운 경상도사투리가 튀여나왔다.

《이 집언 우리 사람들이 에워쌌으니 얨전히들 앉으이소. 안그라마 모주리 쏴뿌리겠데이. 알아묵었지예!》

괴한은 륙혈포를 내두르며 이렇게 으르렁대고나서 불쑥 물었다.

《집주인이 뉘깅교?》

최가가 와뜰한다. 방금까지 댕댕하던 위세는 어디다 줴버렸는지 그자의 고리눈에 겁이 개구리 울음주머니처럼 부풀어올랐다. 그러는 꼴이 유표했던지 괴한은 이내 최가를 턱짓하며 따져물었다.

《령감이 최박만잉교?》

가위로 째놓은듯한 복면의 두 구멍에서 소눈같이 툭 불거진 눈망울이 험상스레 희번덕거렸다.

최가가 가드라든 혀를 가까스로 놀린다.

《그…그러하오만 대…대관절 당신은 누군데?…》

그 물음에 괴한은 거드름스레 머리를 주억대더니만 짐짓 목대에 힘을 주며 대꾸하는것이였다.

《나넌 상해의 가정부에서 보낸 사람이라꼬.》

순간 칠성은 눈섭을 번쩍 치켜올렸다.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였다.

상해의 가정부라구? 그럼 상해림정에서 보냈다는 소리가 아닌가? 재게 돌아가는 바퀴살마냥 숨가삐 뒤바뀌는 정황앞에서 칠성이네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런데 괴한의 다음 말이 더욱 그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듣자니 령감한테 보물이 있다고예?》

《?…》

《와 그리 놀라능교. 거 머시기 옥새라 카던가. 리태왕이 냉겼다는 도장말이구마.》

괴한의 입에서 옥새라는 말이 퉁겨나오자 칠성은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했다.

한즉 상해림정에서도 황제어새를 손에 넣으러 왔다는것이다. 허 참, 마디에 옹이라더니 이런 공교로울데라구야.

귀속에서 피가 어지러이 맥박치는데 괴한의 말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령감이 가진 옥새말잉교. 그게 전에 나라님이 쓰던 물건잉기라 여느 인간들언 함부로 몬다치능교. 하니 그런걸 얻으마 딴맘 묵지 말구 우리 가정부에 바치는게 지당한 도리란 말이구마. 그라지 않으마 머시기 대역부도죄라꼬. 옛날부텀 대역부도죄넌 우뚜키 다스리는지 알지예? 릉지처참잉교, 릉지처참!…》

으름장을 놓는 괴한의 목소리가 미궁에 빠진 칠성의 머리를 콕콕 쑤셔댔다.

어찌하면 좋은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끼리 이 자리에서 옥새를 놓고 멱씨름을 벌려야 하는가? 차라리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게 어떨가?…

허나 그러자니 께름한 생각을 뿌리칠 길이 없었다. 단지 군령을 거스를수 없다는 압박감때문만이 아니였다.

대개 독립운동단체들의 실태라는게 오십보백보였지만 그중에서도 상해림정에 대해 곽칠성은 더욱더 불신감을 품고있었던것이다.

사실 기미년의 만세함성을 타고 상해에 림시정부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흥분과 기대를 안고 바라보았던 칠성이였다. 하건만 림정이 조선을 국제련맹의 위임통치하에 두게 해달라고 미국대통령에게 애걸한 리승만을 수반으로 내세우자 칠성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말았다.

그후 림정의 거동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환멸만 자아내는것들뿐이였다. 세상에다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거국적인 정부》라 요란스레 자칭하고도 정작 왜놈들과의 혈전은 뒤전에 밀어놓은채 구걸외교에나 매달리고 파쟁으로 세월을 보내는가 하면 독립운동자금의 명목으로 긁어간 동포들의 금품을 탕진하며 무위도식하는 상해림정의 추문이 들려올 때마다 칠성은 혐오를 넘어 분노심에 휩싸이군 하였다.

어찌 상건형의 피맺힌 유한이 서린 옥새를 그런 사람들의 손에 내맡

길수 있으랴.

게다가 아무리 봐도 수상쩍은 괴한의 언동이 칠성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는것이였다.

고종황제를 《리태왕》이라고 부르는것만 봐도 그랬다. 원래 《리태왕》이라는 귀설은 부름말은 왜놈들이 조작해낸 말이였다. 《합병》후 간악한 왜놈들은 조선의 황제를 일본《천황》을 섬기는 신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황제였던 순종은 《리왕》으로, 태황제였던 고종은 《리태왕》으로 낮추어 부르게 하였고 그런데로부터 독립운동자들은 《리태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것이다.

칠성의 눈섭이 의문부호마냥 꿈틀거리는데 괴한이 연방 을러메고 있었다.

《긴말할게 없지러. 령감의 죄를 봐선 지끔 즉각 총살해도 모자랄낀데 한번만 기회를 줄끼구마. 어서 퍼뜩 옥새나 넘겨주이소. 그라고 독립운동에 필요하니 돈도 성의껏 내놓고예. 불응시엔 가차없이 처단하겠데이. 그래 우짤교?》

최박만은 입을 앙다문채 턱만 덜덜 떨었다. 공포와 분기로 얼어붙은 최가의 얼굴은 입을 벌리기만 하면 단박에 사기접시처럼 깨여져나갈것만같았다.

괴한이 륙혈포를 내흔들며 우악스레 다불러댄다.

《와 이리 대답이 없능교?》

바빠난 최가의 입에서 마침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떠듬떠듬 새여나왔다.

《오…옥새라니? 난 그런 물건얼 구…구경조차 못했지라오.》

그러자 복면의 어둑시근한 눈구멍속에서 사나운 불꽃이 튕겨나왔다. 괴한은 어깨숨을 치쉬더니 받으려는 소같이 머리를 지르숙이며 씨벌거렸다.

《뭐라고예? 그기 무신 소린교? 구경조차 몬했다꼬? 허어ㅡ 이러다가 참말로 살인나겠다. 이보이소, 령감. 누굴 지나가던 걸버지(거지)로 아능교, 엉? 시방 아예 뒤질라꼬 악쓰는긴가 말이지러, 엉?》

괴한이 와락 최가의 면상을 향해 륙혈포를 내뻗쳤다.

《마지막으로 묻겠데이. 순수이 옥새를 내놓겠나, 대갈통에 맞구녕이 나겠나? 어느쪽이나? 엉!》

독이 오른 괴한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협박이 아닌 살기가 뿜어나왔다.

금시 쏴갈길듯 시꺼먼 총구가 자기를 겨냥한것을 보자 최가의 낯색이 새파래지고 입귀에 게거품이 부질부질 괴여올랐다. 갑자기 최가가 두눈을 흡뜨며 살찐 얼굴을 푸들푸들 떨더니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안락의자에 몸뚱이를 늘어뜨린다. 보매 까무라친것같았다.

어리뻥해진 괴한이 어쩔바를 몰라하며 불퉁거렸다.

《어, 어…다따가 이 령감이 와 이러노? 오라, 물건을 내놓기 싫으이께 기절해뿌린 시늉을 하는구마. … 할수 없지러. 내 령감태기의 숨통을 마저 끊어줄끼니께 각오하라꼬!》

괴한이 당장에 요정낼듯 기세를 부리자 얼이 나가 한켠에 비켜서있던 서사가 허겁을 떨었다.

《제발 그러지 마시오이다. 령감마님께선 본래 심장이 약해놔서 정말로 혼절하셨는걸요.》

괴한이 눈을 부라리며 누구냐고 물었다. 서사가 자기 신분을 밝히니 괴한은 이번에는 서사를 달고치기 시작했다.

《서사라꼬? 그라마 옥새를 어따 숨겼는지 당신이 대주지예. 싫다카마 당신이고 령감태기고 모주리 족살내겠데이. 우짜겠능교?!》

서사가 울상이 되여 쩔쩔맨다.

《그…그건 령감마님의 일인지라 저도 잘…》

《뭐라?!》

악청이 터지며 괴한의 륙혈포가 서사의 이마빼기로 향해졌다. 덴겁한 서사가 폴싹 꿇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건 죄다 사…사실이올시다. 제발 미…믿어주사이다. …》

괴한은 그러는 서사와 졸도해 나자빠진 최가를 숨을 씩씩거리며 노려보다가 아무래도 케가 글렀다고 생각했는지 말머리를 돌렸다.

《좋데이. 그카마 돈궤가 어데 있는줄이야 알겠지러?》

아마 옥새를 손에 넣지 못할바엔 돈이라도 털어가자고 작정한것같았다.

서사가 끙끙 갑자르자 괴한이 죽일듯이 날쳐댔다.

《이런 옘병할 눔 봤나. 이눔, 껌정콩알에 이마빡이 뚫리기 전에 퍼뜩 대지 몬하겠나, 엉!》

다급해난 서사가 부들거리는 손으로 사랑방을 가리킨다.

《저… 저안에…》

그제서야 자기가 뛰쳐나온 방안을 되살피던 괴한이 서사에게 앞서라고 호통쳤다. 서사가 거듭되는 강박에 못이겨 사시나무 떨듯하며 사랑문앞에 버텨선 괴한의 코앞에 다가갔을 때였다.

홀연 마당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청지기의 목소리가 대청밖에서 들려왔다.

《령감마님, 종로서에서 나왔사와요.》

괴한이 화들짝 놀랐다. 복면속의 두눈알이 향방을 잃고 허둥거렸다. 어느새 대문쪽에서 칼집소리며 구두발소리들이 왜말소리들과 뒤섞여 울려오고있었다.

괴한 못지 않게 당황해난것은 칠성이네였다.

종로경찰서놈들이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가? 그러니 이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였단 말인가.

목힘줄이 굵어지고 맥박이 쾅쾅 높뛰였다. 등골이 척척히 젖어드는것을 느끼며 칠성이 슬그머니 허리춤에 감췄던 권총의 안전장치를 푸는데 괴한이 대청안의 사람들한테 륙혈포를 휘두르며 을러대는것이였다.

《움쩍하마 우뚜키 되는지 다들 알지러!》

그리고는 들어왔던 곳을 통해 도로 내빼려는양 사랑방쪽으로 돌아선다. 함정에 빠진 토끼마냥 헤덤비는걸 보니 자기네 사람들이 집을 에워쌌다던 괴한의 소리는 헛대포같았다.

한데 그 순간이였다.

창황중에도 귀가 발쭉해서 바깥소리를 강구어듣던 서사가 급작스레 온몸으로 괴한의 잔등을 힘껏 떠밀치는게 아닌가. 예상밖의 급습을 당한 괴한이 방문턱에 걸채여 어푸러졌다. 손에 쥐였던 륙혈포가 저만치 나딩군다. 그달음으로 똥줄이 나게 달아뺀 서사가 대청미닫이를 와르르 열어제치면서 새된 소리를 질러댔다.

《강도요!— 강도가 들었어요!—》

칠성이네는 더이상 앉아서 지켜볼수만 없었다. 어떻든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이 시각 도와나서야 했다.

그들이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서는데 어느결에 몸을 일으킨 괴한이 벌써 사랑방 창문을 황급히 뛰여넘고있었다. 괴한이 버리고 간 륙혈포가 눈에 띄웠다.

칠성이 급히 다가가 륙혈포를 주어들고 보니 원, 이런…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권총이 아닌가.

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이따위나 들고다니는 녀석때문에 일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속에서도 분통이 터져왔다.

총을 꼬나든 왜놈경찰들이 눈에 홰불을 켜들고 뛰여들었다. 한무리의 왜놈들이 서사가 가리켜준대로 괴한을 쫓아가자 서너놈이 남아 현장을 조사한다고 돌아치기 시작했다.

서사가 칠성의 손에서 나꿔챈 나무권총을 왜놈경관에게 바치며 사건전말을 왜말로 일러바치는데 식구들이 몰려와 의자에 늘어진 최가의 코밑을 비벼댄다, 팔다리를 주무른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 그러는데 1분도 못돼서 최가가 눈을 번쩍 뜨며 역정을 터뜨리는것이였다.

《엥이— 시끄럽다, 이것들아!》

식구들을 밀어제치며 상반신을 벌떡 일으킨 최가는 제 집안팎을 싸다니는 왜놈경찰들을 알아보더니만 금방 기절했던것같지 않게 기가 등등해서 고래고래 소래기를 지르기 시작했다.

《으응 이놈, 이 부랑당놈이 어드메 내뺐느냐? 뭐 옥새럴 내놓락꼬! 내 돈얼 내놓락꼬! 뭣들 허능기냐, 날래 그놈얼 붙들지 않고! 그…그 사지럴 찢어설랑 매밥얼 만들어도 씨원찮을 날부랑당놈 말이여!…》

악에 받쳐 뒤욕을 퍼붓는 최가의 몰골에서 좀전의 넋살을 먹던 꼴은 찾아볼래야 볼수 없었다.

서사와 수군거리던 왜놈경관이 다가와 서투른 조선말로 희떱게 주어댔다.

《아아, 사이상, 우리나 오지 않았소까. 그깐 노미나 달아나야 베루기다. 알아있소까?》

서사도 곁따라 잽싸게 끼여든다.

《고정하시오이다, 령감마님. 령감마님께서 화를 입으셨단 통지를 받고서 오이시경시님이 나오셨다 하오이다.》

밖을 가리키며 여쭈는 서사의 말에 최가의 고리눈이 회동그래졌다.

《뭐, 오이시경시님이?!…》

최가가 서사의 부축을 받으며 황황히 대청밖으로 나갔다. 일촉즉발의 사지판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곽칠성은 권태석에게 눈을 끔쩍하며 태연스레 자리를 뜨려 하였다. 그때 왜놈경관이 그들을 불러세웠다.

《죠옷또!(잠간!)》

왜놈경관은 두사람에게 다가오더니 왜말로 물었다.

《당신들은 융자문제로 최상을 찾아왔다며?》

왜말을 좀 아는 태석이 나서서 찾아온 사연을 대략 설명했다. 그 말을 듣는둥마는둥하던 왜놈경관이 이번에는 증명서를 요구했다.

칠성이 내준 명함장을 이라도 잡을듯 깐깐히 뜯어보고난 왜놈경관은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하니 경찰서로 동행해야겠다고 뇌까렸다.

칠성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선선히 응낙했다. 일단 왜놈들과 동행하여 이곳을 무난히 벗어난 다음 기회를 노려 빠져나갈 심산이였다. 두사람이 왜놈경관을 따라 사랑마당으로 나서는데 최박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백사불구하고 이렇게 왕림해주셔설랑 황송하기 이를데없소이다. 그러닝께 상해가정부서 왔닥 하는 그 부랑당얼 잡았단 말씀입니껴?》

눈길을 돌리니 마당 저켠의 어스크레한 곳에서 최가가 웬 사복쟁이와 지껄이고있었다. 방금전에 서사가 오이시경시가 어쩌니 하더니만 아마 그자인 모양이다.

헌데 왜놈인줄 알았던 사복쟁이의 입에서 류창한 조선말이 흘러나왔다.

《그렇소. 제법 큰 고기가 걸려들었나 했더니 유감스럽게도 경상도서 돌아치던 강도전과범이더군. 보나마나 어떤 흉한이 뒤에서 사촉했겠지.》

《하, 그런 생뚱한 놈얼 봤나.》

짐작했던 그대로인지라 칠성은 태석과 쓰거운 눈길을 주고받았다.

사복쟁이가 귀에 거슬리는 비린청으로 또 지껄였다.

《건 그렇구, 오늘 보니 사이상의 림기응변이 이만저만 아니군그래.》

그러자 의기양양해서 카랑카랑 울리는 최가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죽기보다 까무라치는게 낫닥꼬 별수 있소이까. 그 부랑당놈헌테 당장 옥샌지 뭔지럴 뺏길 판인데. 그래 이전에 화적패헌테 걸려들었을 때 생각이 나설랑 이번에도 기절한 시늉얼 해보았지라오. 핫하!…》

《쉿!…》

누가 들을가봐서인지 사복쟁이가 집게손가락을 제 입에 가져다댄다. 옥새라는 말이 창끝처럼 칠성의 뇌리를 찌르고들었다.

(최가가 옥새를 가지고있는것만은 틀림없구나.)

관자노리에서 피가 뛰는 소리를 들으며 칠성이 마당을 걸어가는데 사복쟁이가 두사람을 호송해가는 경관에게 묻는것이였다.

《오이, 기무라군. 웬 사람들인가?》

경관이 칠성이네를 멈춰세우고 뛰여가 뭐라 수군대자 사복쟁이가 느적느적 이리로 다가왔다. 칠성은 파나마모를 넌지시 눌러썼다.

어둠속에 가려졌던 사복쟁이의 형체가 외등빛에 서서히 드러났다. 승마바지에 홑섶양복을 입고 사냥모를 삐딱하니 쓴자였다.

불시에 팍칠성은 시퍼런 비수가 등골을 내리긋는 선뜩함을 느꼈다. 비록 몰라보게 군턱까지 진 상판이여도 요망스레 반들거리는 쥐눈이 너무도 눈에 익었던것이다.

그놈이였다. 스무해가까운 세월 골수에 사무쳐있는 가증스러운 상통이 다가오고있었다. 이런데서 오석구와 맞닥뜨릴줄이야.

칠성의 앞에 이르자 오석구도 말뚝처럼 굳어져버린다. 이윽고 그자의 입에서 탄성이 새여나왔다.

《이게 누구야?… 칠성이 아닌가!》

천만뜻밖이라는듯 흡뜬 그자의 두눈에서 득의한 빛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석구는 입이 귀밑까지 째졌다.

《이런 반가울데라구야. 여적 간도에서 독립군노릇을 하는줄로 알았는

데 무슨 갑작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금광쟁이가 되였나? 아하, 알만해. 헌즉 옥새때문에 험한 걸음을 했단 말이로군. 그러구보니 그때 김상건을 나한테 고발한것두 옥새를 빼돌리려구 둘이서 짬짜미한 연극이렷다. 하, 어쨌든 오늘 아주 그냥 헛그물질을 한건 아니군그래. 흐하하…》

곽칠성의 꺼진 볼편이 험궂게 일그러졌다. 충혈된 그의 눈이 참을수 없는 증오로 이글거리고있었다.

상건형을 왜놈들에게 밀고한 원쑤였다. 동족의 피와 눈물을 제물삼아 왜놈에게 아부해온 더러운 앞잡이였다.

꿋꿋이 일어선 칠성의 눈섭우로 피줄이 무섭게 뻗쳐오르자 석구가 간담이 서늘해나는지 뒤로 무르춤했다. 그자는 가살스러운 조소를 입가에 띠우며 씨까슬렀다.

《이봐, 칠성이. 그까짓 옥새나 손에 넣는다구 대일본제국이 끔짝이나 할것같애? 늬들이 밤낮 독립을 운운하지만 일본과 대항할 힘이 있는가 말야? 흥, 암만 그래봐야 말똥구리가 수레바퀴를 받으려는 격일걸. …》

《닥쳐라! 이 왜놈의 개야!》

칠성이 노성을 터뜨리자 석구의 쥐눈에서도 새파란 독기가 튀여나왔다. 오석구가 권총을 뽑아들며 기세등등해서 씨벌여댔다.

《하긴 너 같은 미련한것들한테야 소귀에 경읽기일테지. 오이, 이놈들을 묶어랏!》

하지만 때늦은 호령질이였다. 칠성의 손에도 이미 권총이 쥐여져있었던것이다. 다가들던 경찰들이 주춤거렸다.

칠성은 오석구를 향해 총을 내댄채 분노에 갈린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거지발싸개같은 놈! 우릴 잡아보겠다구? 네놈의 모가지부터 내놓기전엔 어방두 없다, 이놈!》

석구의 낯판이 먹단지같이 새까매졌다. 그자는 비실비실 가재걸음을 치며 이쪽저쪽을 할끔거렸다.

행랑마당쪽에서 다른 경찰들이 달려오는지 구두발소리들이 들려왔다. 석구가 살판을 만났다는듯 사랑마당의 경찰들을 다몰아댔다.

《뭣들 하는가! 빨리 이놈들을 제압하지 않구!》

경찰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또다시 다가들려 한다. 칠성은 꿩 차려는 매모양 두어깨를 조이며 놈들을 노려보았다.

시간이 없었다. 놈들이 더 밀려들기 전에 한시바삐 탈출해야 했다.

별안간 곁에 있던 권태석이 가방속에서 뭔가 꺼내 치켜들며 고함치는 것이였다.

《자, 이놈들! 묵사발이 되겠거들랑 어디 덤벼들거라!》

아까 최가에게 내놓았던 돌덩이였다. 경찰 한놈이 혀굳은 소리로 비명을 올린다.

《포…포…폭탄이다!》

그와 동시에 태석의 손에서 날아간 돌덩이가 놈들의 한가운데 떨어져 나굴었다. 사랑마당의 놈들은 물론이고 중대문을 열며 뛰여들던 놈들까지도 기겁초풍해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절호의 기회였다.

칠성이네는 비호같이 몸을 날려 담장곁에 서있는 엄나무쪽으로 달려갔다. 가시에 살이 찢기는줄도 모른채 엄나무가지를 타고 기와담장우로 오르는데 뒤늦게 정신차렸는지 놈들쪽에서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폭탄이 아닝기요! 돌멩구랑께!》

《저놈들이 담장을 넘는다! 빨리 쏘랏!》

총탄이 날아들었다. 기와장이 부서져나가고 칠성의 모자가 날아난다.

담장우에 올라선 칠성이 놈들을 향해 총을 쏘려는데 뒤따라 올라선 태석이 칠성을 밀어제끼며 부르짖었다.

《내가 엄호할테니 어서!》

칠성은 타는듯이 강렬한 그 눈빛에 떠밀려 담장밖으로 뛰여내렸다. 담장우에 남은 태석이 놈들에게 연방 총탄을 날리고나서 뛰여내리려는 찰나였다.

돌연 날아든 적탄에 태석의 가슴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나오는것이 아닌가. 태석은 헉!— 하는 외마디소리를 남긴채 담장안으로 굴러떨어지고말았다.

《태석이!—》

칠성이 피터지게 찾았건만 담장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왜놈경찰들이 악악대는 소리가 담장안에서 가까와오는데 담장밖을 따라 저쪽에서 또 한무리의 왜놈들이 달려오고있었다.

놈들을 갈겨보는 칠성의 두눈에서 눈물인지 섬광인지 모를 그 무엇이 번쩍했다. 그는 이를 윽물며 놈들을 향해 냅다 총탄을 퍼부었다. 숨통을 찢는 비명소리와 함께 달려오던 왜놈들이 푹푹 꺼꾸러진다.

놈들이 움츠러드는 틈을 타서 칠성은 어둠속에 잠긴 맞은켠 골목으로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

4

오석구가 관철동골목의 일본료정에서 화술을 혼자 들이키고 나온것은 해질무렵이였다.

화끈 달아오른 얼굴에 초저녁의 선기가 미쳐왔다. 하건만 팥죽 끓듯 끓어대는 부아는 좀체로 식을줄 몰랐다.

그럴만도 하였다.

오늘 아침 총독부 경무국에 불려간 석구는 눈알이 빠지도록 개욕을 처먹었다. 하기야 간밤의 작전에서 무장경찰 15명이 덫안에 든 불령무장단원 둘을 생포하지도 못한채 여러명의 사상자를 내는 치욕을 겪었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수밖에.

지옥사자처럼 노려보던 곽칠성의 눈빛이 다시금 살을 조이며 떠올랐다. 신통히도 그 눈빛은 근 20년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김상건의 눈빛 그대로가 아니였던가.

석구는 이를 뿌득뿌득 갈았다. 그 시절 김상건한테 걸려 몇번씩이나 혼찌검이 났었는데 인제 와서 또 그의 부하였던 칠성이때문에 홍찌를 싼다고 생각하니 간이 발칵 뒤집히는것만같았다.

칙쇼, 노전짬새기의 빈대같은 그놈들을 어떡하면 씨도 없이 박멸해치울수 있을가?…

오석구는 담배가치를 뽑아물고 발작적으로 성냥을 그어댔다. 잰내비

볼기짝모양 새빨개진 그의 얼굴우로 희뿌연 담배연기가 피여올랐다.

집은 새집이 좋고 정은 옛정이 좋다더니 그래도 배정자가 이번에도 나서주었다.

《경무국장각하께는 내가 따로 여쭈겠어요. 첫술에 배부를가요. 그물이 천코면 걸릴 날이 있을거예요.》

석구로부터 간밤의 일을 보고받고 그 녀자가 던진 말이다. 하면서도 배정자는 뒤를 박는것을 잊지 않았다.

《아무튼 경무국장각하께서 오이시씨를 지켜보신다는걸 잊지 마세요.》

석구에게는 그 말이 일본상전들을 실망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으름장으로 들려왔다.

사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자는 오석구 본인이였다.

그가 배정자로부터 황제어새와 관련한 임무를 받고나서 단연히 《오이시 구라다스께》라는 일본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것도 바로 자기의 충의를 일본상전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자는것이였으니 오이시 구라다스께란 누구인가. 목숨바쳐 상전의 복수를 한것으로 하여 일본에서 옛날부터 충신의 본보기로 전해오는 전설적인 사무라이가 아닌가.

일본상전들이 모처럼 던져준 출세의 기회가 더없이 귀중했기에 석구는 이번 작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딴으로 기승을 부렸다.

배정자가 사전에 퉁겨준 일이지만 윤대비의 부친에게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있는 최박만을 움직인것도 그렇지 않은가. 빚값대신 옥새를 받아내라는 석구의 요구에 최가가 처음부터 순순히 응해나선것은 아니였다. 돼지눈엔 뜨물만 보인다고 돈밖에 모르는 최가에게는 그까짓 케케묵은 옥새따위가 흑싸리 깝대기만치도 여겨지지 않았던것이다.

석구는 경무국의 명의로 리권을 약속하고 협박까지 가해서야 비로소 최가를 작전에 끌어들일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끝끝내 윤대비에게서 옥새를 뺏아냈기에 망정이지 지금까지도 황제어새가 창덕궁에 그대로 숨겨져있었더라면 어쩔번했는가. 어느 틈에 옥새가 칠성이 같은 놈들한테 새여나가지 않는다고, 고종의 내탕금이 불온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수 없지

않는가.

그뒤의 일도 뜻대로 진척되여왔다.

창덕궁의 황제어새가 최박만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을 흘리게 하고 본인도 모르게 최가의 집을 물샐틈없이 감시하게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제 밤 최가의 집동정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었다. 헌데 그런 랑패를 볼줄이야. …

후에 문초해보니 예견했던대로 복면을 썼던 괴한은 어느 일본인장사군의 꼬드김을 받고 온 부랑자였다. 본정에서 시계점간판을 내걸고 암암리에 장물매매를 하는 그 일본인은 고종의 보물옥새가 최박만한테 넘어갔다는 소문에 군침이 돌아 장물을 넘기러 가끔 드나들던 경상도내기 전과범을 사촉했다는것이다.

문제는 촌뜨기강도를 잡는데만 신경을 쓰다보니 앞서 최가의 집에 들어간 두 금광쟁이한테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한것이였다. 석구가 뒤늦게나마 덜미를 잡았건만 곽칠성은 총격전끝에 빠져나가고 다른자는 현장에서 관통상을 입고 즉사하였다.

결국 경무국이 주시하는 작전에서 경찰사상자까지 여럿을 내면서 건진건 볼것없는 송사리뿐이고 막상 잡아야 할 고기는 다 놓쳐버렸으니 일본상전들의 눈길이 고울리 없는것이다.

오석구의 입에서 한숨마냥 담배연기가 쏟아져나왔다.

이러다가 종시 일본상전들의 눈밖에 난다면?… 딴은 지금도 석구의 명색이 도경찰부 보안과장이라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보안과의 실권은 부하로 있는 일본인주임이 틀어쥐고있지 않는가. 그러니만치 일본상전들이 조선인경관 하나쯤 떼버리는건 삭정이 꺾기보다 더 쉬운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날엔 모든게 끝장 아닌가.

서슬푸른 권세도, 호화로운 생활도 거덜이 나고 졸지에 끈 떨어진 망석중신세가 될거라 생각하니 사지가 써늘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석구는 사납게 머리빡을 흔들었다.

어림도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일본상전들의 옷자락을 놓쳐서는 안된다. 자자손손 권세를 휘두르고 복락을 누리자면 요동발광을 쳐서라도 일본어른들을 태줄 잡듯 붙잡고있어야 한다.

석구의 턱자개미에서 으스러지는듯한 소리가 났다.

불현듯 분냄새가 코를 찔렀다. 돌아보니 기모노차림의 일본녀자 둘이 조리(일본인들의 짚신)를 찰찰 끌며 료정에서 나오고있었다.

그제서야 석구는 자기가 여직껏 화담배질을 하느라 료정앞에 서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꽁초를 팽개쳤다. 구두발로 그것을 힘껏 지르밟으며 석구는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칠성이 이놈, 감히 나와 해보겠단 말이지. 내 기필코 네놈을 김상건이한테 보내줄테다! 오이시 구라다스께의 솜씨가 어떤건지 똑똑히 알게 하겠단 말이다!)

오석구는 흐트러진 경찰제복을 바로잡으며 간밤의 사건을 담당한 종로경찰서로 걸음을 내짚었다.

골목길은 번잡했다. 색바랜 창호지같은 저녁빛속에서 행인들이 붐비고있었다. 예전에 중인들과 시전상인들이 모여살던 곳이여선지 관철동골목은 아직까지 꽤 부산스러운 곳이였다.

유까다자락을 펄렁거리며 걸어가는 일본남자들과 회박을 뒤집어쓴듯 진하게 화장한 일본녀자들, 그런가 하면 물매미날개같은 모시두루마기에 흰 헬메트를 쓴 《죠센노 량반상》의 모습도 보였다.

행인들중 대다수는 하층조선인들이다. 초라한 흰옷들, 부채살같은 주름살들, 어둡고 찌프린 얼굴들… 호사롭고 배포유한 일본인들과는 얼마나 판판 다른가. 저런 꼬라지들이니 일본사람들한테 《요보》니 《센징》이니 하고 놀림을 당할수밖에.

그렇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수 없는 무리들이다. 겉보기에 저리도 힘없고 보잘것없어보이는것들이 기미년때처럼 올해에도 맨주먹으로 만세를 웨치며 세상을 들었다놓지 않았던가.

석구는 이 시각에도 그들속에 일본인이나 자기 같은 충량한 《황국신민》을 향해 침을 뱉는자들이 있을상싶어 눈에 모를 세우고 휘살펴보았다. 독기서린 그 눈찌때문인지 아니면 긴칼을 늘여차고 금단추며 금실로 치장까지 한 경시의 위엄스러운 제복때문인지 오가는 행인들이 슬금슬금 석구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오석구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이런게 바로 권세의 맛이라니까. 뭇사

람들을 떨게 하고 아부하게 하는 이런 권세가 없이야 무슨 살 재미가 있을가. 그래서 대장부는 하루도 권세없이는 못산다고 말하는게고 벌거벗어도 칼은 차야 한다는 소리도 있는가부다.

쑥대에 올라간 민충이꼴로 자못 시뚝해난 석구는 보란듯이 배를 내밀고 거들먹거들먹 걸어갔다.

웬 일로 골목길에 들어섰는지 검정색세단차 한대가 이리로 굴러온다. 총독부청사에서 본듯한 법무국 고관 하나가 차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석구는 내밀었던 배를 다급히 끄당기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아첨기가 한가득 게발린 석구의 낯에 세단차가 먼지를 들씌우며 지나갔다. 하건만 오석구는 고관이 후사경으로 자기를 지켜보는것만같아 부동자세를 허물지 않은채 빳빳이 서있었다.

얼마뒤 어지러이 눈앞에서 춤추는 하루살이떼를 휘젓고나서 석구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또다시 머리속에 곽칠성이 맴돌아치기 시작한다.

그놈이 어디에 숨었을가? 경무국의 긴급지시로 간밤에 국경으로 나가는 모든 길목들을 철저히 감시하게 했건만 어느새 벌써 간도로 내뺀게 아닐가? 아니, 황제어새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있는 놈이 그렇게 쉽사리 물러설라구. …

여하튼간에 그놈을 붙잡아야 잃어버린 일본상전들의 신망을 되찾을텐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놈을 그대로 놔뒀다간 어느 순간에 다시 내 목을 겨누고 달려들지 모르지 않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칠성이놈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두억시니처럼 떨어질줄 모르는 김상건의 망령을 떼버리고 화근을 뿌리뽑아야 한다.

문뜩 오석구가 걸음을 멈추었다.

김상건의 고향이 평양 어드메였다는데 생각이 미쳤던것이다. 김상건의 처자가 거기서 산다고 했지. 칠성인 워낙 김상건이와 자별한 사이였으니 상건이가 죽은 뒤에도 그의 처자한테 무관심하지 않았으렷다. 헌즉 이런 때 칠성이가 거기에 가 숨는다 해도 놀랄게 없지 않는가.

성공의 예감 같은것이 반사광마냥 석구의 뇌리를 스쳐갔다.

어째서 칠성이놈의 고향마을이나 서울장안을 샅샅이 뒤져볼 생각은 하면서도 김상건의 가족생각은 진작 하지 못했을가. 정말로 그놈이 김상건의 집에 숨어있다면야 이번엔 내 손에서 못빠져나갈걸. 대뜸 살기등등해진 오석구가 입을 비틀며 소리없이 웃었다.

그때였다.

누군가와 갑자기 부딪치는 바람에 석구는 하마트면 자빠질번하였다. 뒤미처 눈여겨보니 술취한 사내 하나가 비칠거리며 옆을 지나고있었다.

풀어진 어깨에 건둥거리는 빈 지게, 때묻은 헝겊같은 따깨비모자… 사내한테서 싸구려술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망상에 부풀어올랐던 석구의 기분이 대번에 구겨져버렸다.

(빠가야로, 백주에 술 처먹구 경관을 밀쳐?!)

때마침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부아통을 터뜨릴길이 없어 안달아있었는데 화김에 개배때기라도 걷어차고싶었다.

오석구는 대일본제국의 경관맛을 톡톡히 보일 기상으로 씹어먹을듯이 사내를 노려보며 비린청을 내질렀다.

《오이, 이리 와!》

허나 술취한 사내는 갈지자걸음을 하며 제갈길만 간다. 사내의 입에서 얼근한 타령소리가 흘러나왔다.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ㅡ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ㅡ

석구의 비린청이 더욱 높아졌다.

《못들었어?! 이리 오란 말야!》

그래도 사내는 들었는지 먹었는지 그냥 흥얼대며 앞서간다.

담배대나 떠는 로인은
공동묘지 가고요ㅡ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ㅡ

《칙쇼!ㅡ》

악에 치받친 석구가 냅다 뛰여가 사내의 등덜미를 홱 나꿔챘다.

사내가 군드러질듯이 비청거리며 돌아선다. 금시 부딪칠양 두 얼굴이 마주했다.

다음순간 석구의 온몸은 대진먹은 뱀처럼 가드라들고말았다. 눈섭까지 푹 내려쓴 사내의 모자밑에서 분노에 찢어질듯한 두눈이 감때사납게 번뜩이고있는게 아닌가.

석구는 기겁했다. 소리를 지르려 했건만 목구멍에서 두꺼비우는 소리만 날뿐이였다. 석구의 손이 허겁지겁 허리에 찬 긴칼로 향한다.

하지만 이미 늦은 때였다. 사내의 비수가 번개를 일으키며 석구의 염통에 깊숙이 들이박혔던것이다.

《윽!》 하는 외마디비명과 함께 석구의 눈알이 덫에 치인 쥐눈모양 까뒤집혔다.

너무나 눈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인지라 행인들도 미처 알아볼새가 없었다. 사내가 붐비는 행인들사이로 구르듯이 멀어져가는데 천천히 꼬꾸라지는 오석구의 입에서 최후의 욕설이 구질구질 새여나왔다.

《칠성이… 네놈이…》

5

학생복차림의 청년이 약방문을 열어제치며 힝하니 나와버렸다. 등뒤에서 약방주인의 욕지거리소리가 들려왔다.

《고얀놈, 저렇게 입바른소리 잘해서 어떻게 살아가. 여기가 뭐 공자왈 맹자왈 강론하는덴가. 젊은 놈이 글개나 읽었다구 배꼽 튀여나온 소리만 하는 꼴이라니, 쯧쯧…》

그러거나말거나 청년은 발길 가는대로 씨엉씨엉 걸음을 내짚는다.

록록치 않게 두두룩한 이마와 열기띤 눈망울, 우뚝 선 코마루아래 일자가 지도록 꽉 다물린 입, 불뭉치를 품은듯 거세게 오르내리는 동가슴… 잔뜩 달아오른품이 몸에 성냥이라도 그어대면 금시 불이 일것 같았다.

청년의 이름은 김현무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보 4학년생이던 현무는 동맹휴학의 선두에 나섰다가 출학당한 몸이였다.

그러한 그에게 보름전에 이웃이 찾아와 신창리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자기 매부를 돕는게 어떤가고 하는것이였다. 현무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홀몸으로 집안살림을 떠이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대할 면목이 없어 두말않고 응낙해버렸다.

헌데 약방주인이라는 사람의 행실머리가 밉꼴스러웠다. 노상 약값을 비싸게 부르는데다가 위급한 병자앞에서도 외상으로는 절대로 약을 내주지 않았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얼씬거리기만 해도 상을 찡그리는 것이였다.

장사치들이라는게 워낙 그런 족속들인지는 몰라도 엊그제까지 학우들과 함께 불의와 악에 분노하며 심장을 끓이던 현무로서는 밸굽이 동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오늘일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약방주인이 점심참에 어디론가 나가고 없는데 주인의 삼촌되는 사람이 허둥지둥 뛰여들었다. 안사람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급한김에 빈손이지만 약을 좀 얻어가자고 달려왔다는것이였다.

현무는 지체없이 약 몇첩을 내주었다. 주인과 친척간인데다 사정이 하도 바빠보여 이것저것 망설이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그 소리를 듣더니만 대번에 불그락푸르락하며 현무를 욕질하는것이 아닌가. 지어 약을 얻어간 제 삼촌을 두고 렴치코치 없다느니, 못사는 친척들이 자꾸 손을 내밀어 돈벌기가 힘들다느니 하며 뒤욕을 퍼붓는것이였다.

그 꼴을 보다못해 현무는 주인에게 면박을 주었다.

《세상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는가요. 더구나 아무리 언짢아도 집안어른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는 도리가 어데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길로 이렇게 약방을 뛰쳐나선것이다.

차라리 잘됐다. 온종일 약방구석에서 초약봉지나 만지고있으려니 진저리가 나 죽을 지경이였는데 이김에 저레 철도공장이나 고무공장으로 옮겨야겠다고 현무는 생각했다. 밤낮 돈타령밖에 모르는 약방주인과 더이상 마주서기 싫었다. 고되고 땀에 절어 살아도 정을 알고 거짓을 모르는 진실한 사람들속에 있고싶었다.

현무는 어깨죽지가 떨어져나갈만치 팔뚝을 휘저으며 신창리강변으로 나갔다.

굼실거리며 흘러가는 대동강의 등어리로 한여름의 불볕이 독을 쓰며 내려쪼이고있었다.

선교리쪽으로 건너가는 나루배에서 사공이 거쉰 목청으로 한곡조 길게 뽑아대는데 진남포쪽에서 오는 돛배 하나가 천천히 강을 거슬러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강건너 문수벌에서 새떼가 날아오른다. 열심히 자맥질치던 물오리들을 놀래우며 어느 쏠쏘리의 장난인지 조약돌이 튕기면서 물수제비를 뜬다. 옹기며 소금, 장작단 같은것들이 널려있는 선창가의 시장에서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쓴 아주머니들이 서성대며 물건을 흥정하고있었다.

별안간 대동문쪽에서 길바닥을 뚜들겨차는 말발굽소리들이 울려왔다. 왜놈들의 기마경찰대가 또 출동하는 모양이다.

살벌한 그 소리를 들으니 현무의 눈앞에 아귀지옥과도 같은 살풍경들이 되살아났다.

시뻘겋게 달친 부저가락, 뱀처럼 천정에 드리운 쇠사슬타래와 선지피로 얼룩진 콩크리트바닥에 나딩굴던 부러진 목검이며 가죽채찍이며 쭈그러든 물바께쯔따위들, 악패듯 몽둥이찜질을 해대던 살기찬 낯짝들… 석달전에 붙잡혀갔던 경찰서의 취조실광경이였다.

조선학생들을 멸시하는 왜놈체육교원의 축출을 요구하여, 조선인교원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조선어과목시간을 늘일것을 요구하여 현무와 그의 학우들은 열흘이 넘도록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었다. 당황망조한 왜놈경찰들은 교내에까지 달려들어 현무를 비롯하여 투쟁의 선두에

섰던 여러 학생들을 붙잡아갔다.

놈들은 애비가 배일을 하더니 새끼도 그 본을 따른다며 배후세력을 대라고 현무를 모질게 달고쳤다. 꺼꾸로 매달아놓고 발바닥을 짓때리는가 하면 조선놈은 고추가루를 좋아한다면서 고추물을 코에 들이붓는 등 악착한 고문들을 수없이 들이대던 놈들은 별다른 단서를 걷어쥐지 못하게 되자 달포만에야 현무를 풀어놓았다.

현무가 류치장에서 나오니 학교당국은 이미 그에게 강제출학처분을 내린 뒤였다. 그는 부걱부걱 괴여오르는 울화에 허덕이며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학업을 마칠수 없게 되였다는 좌절감때문이 아니였다. 왜놈경찰서에서 목격한 조선사람들의 참상이 현무의 젊은 심장을 못견디게 저며왔던것이다.

류치장에 갇힌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였다.

사동탄광에서 묶여온 탄부도 있었고 대동군에서 잡혀온 농부도 있었고 때없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승려도 있었다. 지어 밀주를 팔았다고 끌려온 60이 넘은 로인이 있는가 하면 왜놈신사의 도리이(신사의 입구에 세운 문)기둥에 오줌을 싸다가 붙들려왔다는 10살도 못된 조무래기까지 있었다.

시루에 콩나물 박히듯 비좁은 류치장에 그들과 함께 갇혀 낮이면 무시로 왜놈간수에게 매질과 욕질을 당하고 밤이면 이와 빈대들에 사정없이 물어뜯기우며 현무는 무턱대고 짓밟히고 멸시당해야만 하는 망국노의 굴욕을 피터지게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에게 있어서 조선사람은 죄인을 의미하였다.

무식하든 유식하든 제 넋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제 나라를 빼앗은 강도들을 어찌 증오하지 않으랴. 그것을 잘 아는 왜놈들이여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2천만 조선민족을 늙은이건 녀인이건 철부지어린애건 가림없이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때리고 죽여야 할 죄인으로 다루고있는것이였다.

창자가 찢어지는 현실이였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멍에를 쓰고 채찍에 얻어맞으려고 태여났단 말인가.

류치장에 메아리치던 비명소리며 채찍질소리들은 김현무에게 망국노의 쓰라린 처지를 뼈골에 사무치게 깨우쳐주었고 지금도 절벽을 치는 거센 물갈기마냥 그의 귀전을 후려치고있었다.

대동강을 바라보는 현무의 두눈에 울분이 번뜩였다.

개개인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가장 단순한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민족의식은 형성되는것이다.

현무는 울컥울컥 치미는 번열을 삼키며 걸음을 이어갔다.

강변길을 따라 얼마쯤 걷느라니 경상골이 나졌다. 무심결에 기림리로 향하던 현무는 무춤 멈춰서고말았다.

이 시각에도 삯바느질을 하고있을 어머니가 생각났던것이다.

청춘나이에 홀몸이 되여 애오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젊음을 희생해온 어머니였다. 험난한 이 세월에 아버지없는 자식을 공부시켜보려고 손끝이 모지라지게 애쓰며 어머니가 겪어온 마음고생, 몸고생은 그 얼마였으랴.

그래도 잠을 깎아가며 책과 씨름하는 아들을 보면 깊은 밤에도 슬며시 일어나 삯바느질감을 잡군 하던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에게 다 큰 자식이 안겨드린것은 류치장살이와 출학이라는 억이 막히는 소식뿐이 아니였던가.

아들걱정에 때이르게 가시주름이 박힌 어머니에게 오늘도 시름을 끼치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매운 연기를 한가득 삼킨것처럼 가슴이 쓰려났다.

현무는 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모란봉으로 치오르기 시작했다.

골목길들이 거미줄같이 얽힌 경상골을 지나 을밀대로 오르는 길에 들어섰다.

숲속의 록음은 흐르는 물마냥 시원했다. 소나무와 피나무, 아카시아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있는데 군데군데 덤불을 이룬 살맹이나무들에 연두빛잔꽃들이 연연하다. 풀숲에서 꺽꺽 장끼우는 소리가 울린다.

사람들도 눈에 띄웠다. 한갓진 오솔길을 외로이 거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먹다 내친 빈 병을 줏는 아이들도 있었다. 수양버들 늘어진 정자

쪽에서는 혀꼬부라진 왜노래소리가 야단스레 저가락 두드려대는 소리와 뒤섞여 어지러이 들려오고있었다.

현무는 가슴속에 들어찬 울혈을 삭일길 없어 사납게 걸음을 재촉했다. 단숨에 을밀대의 성가퀴에 이르렀다. 휘영청 트인 사방천리가 눈앞에 비껴왔다.

모란봉의 정상에서 날아갈듯 추녀를 펼친 최승대, 1 500여년의 풍상을 고스란히 껴안은 부벽루며 영명사, 릉라도를 휘돌아 웅실웅실 흘러가는 대동강의 용용장수와 그 너머로 그림같이 굽어보이는 사동벌판 그리고 저 멀리 꿈틀거리며 뻗어간 대성산의 등줄기…

문득 서당에 다닐 때 외우던 시구절이 떠오른다.

금수산의 뭉킨 령기
반공중에 우뚝 솟아
모란봉이 되였고나
활발한 기상이 솟아난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현무의 입에서 불한숨이 나갔다. 대대손손을 내려오며 평양사람들의 하많은 애환과 옛말들이 깃들어있는 이 모란봉도 지금은 섬오랑캐들의 놀이터가 되여 치욕을 당하고있는것이다.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닦은 선조들의 뜻과 기개는 저렇듯 드높았는데, 이 땅의 산줄기와 강줄기는 저리도 도도하고 줄기찬데 어쩌다가 우리는 조상의 땅을 빼앗긴채 이리 밟히고 저리 채이는 상가집 개신세가 되였는가.

아, 숨막히는 이 현실을, 저주로운 왜놈의 세상을 어떻게 해야 뒤엎을수 있을가. 강산을 둘러볼수록 참담해지는 심정을 누를길이 없었다.

비분에 타는 현무의 눈길이 어느 한곳에서 멎었다.

최승대로 가는 길우에 바라보이는 낯익은 합각지붕이 그의 눈길을 붙

잡았던것이다.

현무는 을밀대에서 내려와 이끌리듯 그리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무지개문을 낸 축대우에 의젓이 서있는 옛 성루가 나타났다.

현무문이였다. 그 옛날 고구려조상들이 세웠다는 평양성 북성의 북문이다. 김현무는 피줄을 타고 퍼져오는 쩌릿한것을 느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양성의 파수인양 옛 성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 서있었다.

세월의 비바람에 성돌들은 닳아떨어지고 현란했을 단청은 노을의 잔광처럼 희미하게 퇴색되였어도 기세차게 휘여뻗은 루각의 룡마루며 듬돌같이 버티고 선 축대에서는 오늘도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호탕한 기백이 풍겨오는듯싶었다. 금시라도 우렁찬 뿔나팔소리가 울려퍼질것같았다. 성문이 와르릉 열리고 기치창검을 비껴든 고구려의 개마무사들이 와와 소리치며 쏟아져나올것만같았다.

어찌하여 이리로 발길이 향했는지 현무자신도 알수 없었다.

너무도 수없이 올라와본 곳이였다. 소꿉무렵에는 개구쟁이들과 함께 여기에 올라와 솔방울을 던지고 나무칼을 휘두르느라 해저무는줄 몰랐고 커가면서도 까닭모를 그리움에 가슴을 끓일 때마다 여기 현무문에 오르군 하였다.

무엇때문이였을가? 모란봉기슭에 태를 묻고 자란때문일가? 혹은 현무문을 생각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아버지가 그리워서였을가?…

현무가 옛 성문의 낯익은 자태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있는데 행인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혼자 있고싶어 근처의 풀숲으로 들어갔다. 잡관목들을 헤치고 들어가니 안침진 풀밭이 있었다.

현무는 여름풀이 한벌 깔린 풀밭우에 벌렁 드러누웠다.

무성한 나무우듬지들에 해빛이 실리여 푸른빛으로 번뜩인다. 새들이 활등같은 날개들을 퍼덕이며 어디론가 날아가고있었다. 팔베개를 한채 먼 허공을 쳐다보는 현무의 눈길도 새들을 좇아 정처없이 달리고 있었다.

불현듯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려들었다. 아버지생각이 났던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적이 없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 왜서인지 눈물을 머금던 어머니, 느닷없이 한밤중에 일어나 창호지에 얼비치는 희부연 달빛아래 멍하니 앉아있군 하던 어머니,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잠결에 보며 현무는 외로운 유복자로 자라났다.

어릴적에 한번은 아버지얼굴이 어떻게 생겼댔는가고 어머니에게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자식의 얼굴을 유심히 눈여겨보다가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아버지얼굴을 보려거든 거울을 들여다보렴.》

그런 그에게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자상히 이야기해준 어른은 바람같이 이따금 집에 들리군 하는 고수머리삼촌이였다.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는 옛 부하이고 아버지의 제사날도 알려주었다는 곽칠성을 현무의 집안사람들은 한식구처럼 대했고 현무 역시 어려서부터 고수머리삼촌이라 부르며 무랍없이 따랐다.

현무는 고수머리삼촌으로부터 아버지 김상건이 나라를 지켜 왜놈들과 싸우다가 순국한 옛 조선군대 군관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였고 하늘을 찌를듯 서슬차고 당당했다는 아버지의 기개에 대해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두터웠고 바른 일을 위해서는 칼날우에도 올라섰다는 아버지의 불같은 의기에 대해서 듣게 되였다. 그리고 오랑캐들을 벌벌 떨게 한 고구려 사나이들처럼 애국의 남아가 되기를 바래서 자식의 이름을 현무라고 지었다는 아버지의 뜻도 전해들었다.

그때에야 현무는 왜놈경찰들이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집에 들이닥쳐 마구 닥달질하고 행패를 부리는 까닭을 알수 있었다.

자식은 부모의 뒤모습을 보며 자란다.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현무는 왜놈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였고 아버지가 걸어간 의로운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고보면 그가 보통학교 시절에 왜왕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학교지붕에 매단 일장기를 몰래 떼내여 뒤간에 처박아버린것도, 기미년의 그날 어른들을 뒤좇아 평양경찰서까지 달음박질치며 목이 쉬도록 독립만세를 부른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해야 할것이다.

현무의 가슴속에 아버지의 넋을 무겁게 새겨준 어른들가운데는 외할아버지도 있었다.

그가 돌을 넘기고났을 때 아들을 잃은 한에 몸져누워있던 할머니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태여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도 잃은 현무에게 있어서 외할아버지는 집안의 제일가는 웃어른이였다.

평양진위대에서 중대장까지 하다가 조선군대가 강제해산당하자 왜놈들이 주는 은사금을 그 자리에서 쥐여뿌렸다는 외할아버지는 백성들을 대할 낯이 없다며 장대재에 있는 자기 집 솟을대문을 스스로 헐어버린 뒤 자다가도 《왜멸복국》을 부르짖으면서 절치부심해온분이였다.

애젊은 나이에 경상골 씨름터에서 성안의 한다하는 씨름군들을 제끼는 현무의 아버지를 진위대로 잡아끈 사람도 외할아버지였고 아버지의 군인다운 충용심과 남다른 자질을 알아보고 줄곧 병정들의 앞장에 내세우군 하던 옛 상관도 다름아닌 외할아버지였다고 한다.

아무리 개화바람이 불어치는 당시로서도 정위(대위)라는 3품의 무관벼슬을 지닌 외할아버지와 한미한 평민출신인 현무의 아버지사이에는 엄연한 신분상의 심연이 있었다. 하지만 호협하고 강직했던 외할아버지는 주위의 갖은 비난과 만류를 무릅쓰고 평소부터 마음에 두고있던 현무의 아버지를 주저없이 사위로 삼았다는것이다.

그러한 외할아버지였기에 사위의 죽음을 친자식을 잃은것처럼 비통해한것이였고 사위가 남긴 유일한 살붙이에게 다른 손자들보다도 더 왼심을 써왔던것이 아니랴.

지금도 현무의 눈에 선했다.

설이 가까와지면 싸리개비로 외손주의 발부터 재여가지고 가서 새신을 사오군 하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맨발에 박힌 밤송이가시도 빼주고 장난을 치다 상한 무릎에 조뱅이풀도 뜯어 붙여주던 그 모습이 말이다.

현무가 6살이 되였을 때 외할아버지는 그를 학문이 높다고 소문난 어느 유학자의 서당에 보냈다. 그곳에서 총기가 빠르다고 훈장의 총애를 받은 현무는 3년후 신학문을 배우는 풍조를 따라 보통학교에 들어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일가친척들을 기쁘게 했다.

그럴 때마다 무인다운 외할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가에 미소 하나가 그어지군 하였다.

사실 식솔이 많은데다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서인지 외가집의 가세도 그닥 넉넉한편이 아니였다. 허나 외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제 아범의 장한 뜻을 잇게 해야 한다며 외삼촌들을 호령하여 현무의 학비부터 마련하게 했다.

한편 외손주에 대한 훈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앉아도 서도 어디에 기대지 말고 자세를 똑바르게 가지라는것은 외할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칙한 훈계이다. 꾸부러진 허리에서는 꾸부러진 말이 나오고 쭉 펴진 허리에서는 곧은 말이 나오기마련이라는것이였다.

외할아버지는 책을 읽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식자만 못하다고 입버릇처럼 외웠다. 가끔 공부할념도 잊고 동네애들과 휩쓸려 노는 현무를 어머니가 꾸중할라치면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놔둬라. 남자는 나가 놀아야 속이 열리구 사내가 되느니라. 집안에만 붙박혀있으면 탈이 나서 제명두 못살거던.》

일요일 새벽이면 현무는 외할아버지를 따라 모란봉으로 달려올라가군 하였다.

모란봉골안을 찌렁찌렁 흔드는 옛 무관의 구령소리에 맞춰 체조도 하고 권법도 배웠다. 지어 한겨울에도 웃동을 벗고 도수체조를 하여야 했다. 그런 때 손주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응석기가 나타나면 외할아버지의 입에서는 가차없이 《이놈아, 정신 차려!》 하는 쇠소리가 튀여나왔다.

외할아버지는 현무에게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주었다.

사위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였던 아버지에 대해서, 안중근과 리재명, 김봉학 같은 충의지사들에 대해서 비분강개하여 들려주었다. 이끼덮인 현무문 성돌을 쓰다듬으며 동방의 천년강국을 떨친 고구려선조들에 대해 들려주었고 이 땅의 기나긴 슬픈 산맥을 바라보며 스스로 사대의 굴레를 쓰고 살아온 속상하고 못난 력사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망국의 순간까지도 임금 속여먹고 백성 뜯어먹고 나라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은 매국역신들에 대해서, 섬오랑캐들이 5련발총을 가지고 달려들 때 화승대로 맞서야 했던 통분한 사연에 대해 울분에 넘쳐 들려주었다.

피눈물에 찔고 회한에 갈린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린 현무의 심장을 이상하게 울려주군 하였다. 현무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열혈지사들의 애국충정과 절의를 동경하게 되였고 자기를 지켜낼 용기와 힘이 없어 어제는 저 나라에 매이고 오늘은 이 나라에 묶여온 이 땅의 창피한 근대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현무가 12살 나던 해에 3.1만세운동이 터졌다.

당장 독립의 날이 오는줄만 알았다. 장터와 길거리들에서 울려퍼지는 독립만세의 함성속에 반상의 차이가 없었고 로소의 구별이 없었다. 그 나날 외할아버지도 거리로 뛰쳐나가 조선독립을 절규하며 만장기염을 토했다.

그러다가 왜놈들에게 붙잡혀가 옹근 한달동안이나 지독한 초달을 당하던 외할아버지는 반죽음이 되여서야 들것에 실려나왔다. 집안사람들이 애타게 구완했지만 모진 고문으로 간을 다친 외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시커멓게만 변해갔다.

삼천리를 진감하던 독립만세의 함성이 먼 메아리처럼 서서히 스러져가던 그해 가을, 현무가 학교까지 데리러 온 작은외삼촌을 따라 외가집에 이르니 온 집안에 흐느낌소리가 랑자한데 림종의 시각에도 자식들을 꾸짖는 외할아버지의 마른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썩들 그치지 못할가! 비루한 망국노신세에 죽는게 뭐가 슬퍼서 이야단인고? 하루를 더 산댔자 하루가 더 욕되구 이틀을 더 산댔자 이틀이 더 욕되니 너희들은 그리 방정떨게 없다.》

외할아버지는 모여든 자손들중에서 외손주를 알아보고는 힘겹게 숨을 모아쉬며 이르는것이였다.

《현무야, 네 아범은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구 약관의 나이에 목숨을 던졌건만 이 늙은건 나라를 뺏기구서두 구차한 목숨을 여직껏 이어왔구나. … 아무쪼록 넌 아범의 뜻을 잊어서는 안되느니라!…》

현무는 잊을수가 없었다. 외할아버지의 움푹 꺼진 눈확에서 눈물인지 생의 마지막불꽃인지 모를 그 무엇이 번득이던것을…

얼마후 부릅뜬 외할아버지의 눈을 맏외삼촌이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떠가던 구름도 소낙눈물을 흘리고 갔다. 그렇게 외할아버지는 한많은 좌절의 생애를 마쳤다.

외할아버지를 잃은 뒤 현무는 어려운 가정형편이 걸려 몇번이나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친이 생전에 분부한대로 빚까지 져가며 학비를 마련하느라 애쓰는 외삼촌들의 고마운 성의를 외면할수 없었고 오로지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있는 어머니의 애바른 소망을 차마 저버릴수가 없었다. 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고보까지 진학했건만 결국은 이렇게…

추억의 물이랑을 타고넘던 현무의 눈길이 흐릿해진다. 이렇게 출학당한 자기의 모습을 외할아버지가 본다면 뭐라실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후벼팠던것이다. 어떻게 하나 현무만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병석에서도 되뇌던 외할아버지가 아닌가.

하건만 조선민족을 조선민족으로 인정치 않고 동화의 대상으로 치부하면서 일어를 《국어》라고 강요하고 조선의 력사와 지리대신 저들의 력사와 지리를 들이먹이는 왜놈들의 치욕스러운 노예교육을 어떻게 순순히 받아외울수 있단 말인가.

외할아버지도 늘 가르쳐오지 않았던가. 가난과 불의에 지지 말라고, 아버지처럼 나라와 겨레를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는 대장부가 되여야 한다고…

(그럼 나는 그분들앞에서 얼마나 떳떳하단 말인가?)

김현무는 불볕이 작렬하는 허공을 쳐다보며 거친 숨을 내뿜었다.

강우규로인은 예순이 넘은 나이에 왜놈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졌고 류관순누이는 16살의 이팔청춘을 독립의 제단에 바치지 않았던가.

하다면 자기는 피가 요동치는 이 나이에 대관절 무엇을 하고있는것인가. 향방없이 떠다니는 개구리밥풀처럼 갈길도 모르고 삶의 분명한 목표도 찾지 못한채 허송세월하고있지 않는가.

저도 모르게 몸부림이 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땅의 남아로서 선렬들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현무는 엿가마처럼 끓는 가슴을 부여안고 괴롭게 모대겼다. …

6

석양녘이 되여서야 김현무는 모란봉에서 내려왔다. 경상골을 벗어나 만수대고개를 넘은 그는 게딱지같은 지붕들이 추녀를 비비며 붙어앉은 기림리에 들어섰다.

가느다란 팔다리에 배만 올챙이같은 아이들이 골목어구에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부모들이 저녁끼를 마련해가지고 돌아오기를 눈이 까매서 기다리는 모양이다.

가파른 비탈길로 물지게를 지고 오르는 할아버지며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등유를 사라고 간청하는 할머니, 반나마 얼굴이 묻히게 파솜보따리를 인채 짝짝이고무신을 끌며 가는 소녀애… 그런가 하면 모란봉에서 해온듯싶은 솔가지단을 뺏기고 산림간수에게 울며 사정하는 녀인의 모습이 분을 치밀게 한다.

난데없이 고아대는 소리가 저녁바람을 타고 먼발치에서 들려왔다.

《살자니 눈물이요, 죽자니 청춘이로다!》

눈길을 돌리니 온통 흙매닥질을 한 주정뱅이가 꺼꾸러질듯이 허우적대며 걸어가고있었다. 그 정상을 바라보는 현무의 마음도 암울하기만 하다.

어디를 보나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기림리였다. 《본정》이니 《대화정》이니 《황금정》이니 하는 《신시가》에 비하면 얼마나 천양지차인가.

로일전쟁이후 평양에 대대적으로 쓸어들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교통이 제일 유리한 정거장에서부터 대동교주변까지의 일대에 저들이 사는 《신시가》를 형성하였다. 그통에 가난하고 힘없는 대다수의 조선사람들이 종래의 《구시가》와 성밖의 주변으로 밀려나갔다.

비단 사람들뿐이였던가. 왜식건물들이 늘어서고 전차선이 부설되면서 성곽들을 비롯한 수많은 고적들이 여지없이 허물어져나갔고 결국 평양성은 대동문과 보통문만이 눈에 띄우는 페허의 옛 왕도가 돼버리지 않았던가.

일본인들의 《신시가》와 미국인들의 《양촌》에 유리창문이 번쩍거리는 2층, 3층의 양옥들이 늘어날 때 《거랑촌》이라 불리우는 토성랑이며 뺑대거리에는 버림받은 조선사람들의 오두막과 움막집들이 늘어갔다. 일본인들의 번화가에 전기불이 현란할 때 조선사람들의 뒤골목은 칠칠암흑에 묻혀있었고 일본인들이 평양 한복판을 오만하게 거닐 때 변두리로 쫓겨난 절대다수의 조선사람들은 사정없이 밟히우고 등골을 뽑히우며 빈궁과 무권리에 시달리고있었으니 기림리도 그러한 빈민촌들중의 하나였다.

석탄연기가 뭉게치는 서평양쪽에서 기적소리가 울려온다.

현무는 목쉰 통곡소리인양 울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도장방이니 자전거포니 하는 간판들이 다닥다닥 내걸린 길을 따라 내려가느라니 《자물쇠 열쇠》라고 서툴게 내리쓴 점방간판이 보였다. 그 옆에 나있는 골목으로 얼마쯤 들어가면 현무네 집이 있었다.

집이 가까와질수록 발걸음이 더디여진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얘기할가? 약방일을 그만두겠다고 그대로 터놓을가? 아니,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게 더 나을것같은데…

이런 생각에 쫓기며 골목으로 들어서던 현무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저쯤 떨어진 전선대뒤에서 이쪽을 주시하는 누군가의 눈길을 느꼈던것이다.

눈을 밝히고 보니 로동복차림의 한 장정이 미소가 희끗거리는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있었다.

홀연 가슴이 쿵하고 뛰였다.

현무는 어망결에 사나이를 소리쳐 부르려고 하였다. 그 순간 사나이가 손에 든 밀짚모자를 다급히 눌러쓰더니 총총히 돌아서는것이였다.

현무는 그제서야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별다른것은 없는것같았다. 허둥거리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며 발길을 돌린 현무는 멀찌감치에서 앞서가는 사나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행인들속에 묻혀 성큼성큼 걸어가던 사나이가 모래터근방에 이르러 옆골목으로 사라져버린다. 현무도 사나이를 놓칠세라 조바심치며 성급히 골목으로 따라들어갔다.

으슥한 골목길에 사나이의 밀짚모자가 얼른거렸다. 현무가 바삐 좇는데 한참이나 골목을 이리 구불 저리 구불 돌던 사나이가 다시금 실골목으로 꺾어들었다.

현무는 오불꼬불한 실골목을 이리저리 빠지며 숨가삐 다좇아갔다. 마침내 사나이는 구석진 막치기에 다닫자 등을 돌려대고 앉은 어떤 집으로 재빨리 숨어드는것이였다.

김현무는 두근대는 가슴을 누르며 사나이가 들어간 집으로 다가갔다.

낡은 양철쪼박지로 지붕을 누덕누덕 기운 외통집이였다. 집귀퉁이를 돌아가니 키낮은 싸리바자너머로 탕건을 쓴 로인이 툇마루에 걸터앉아 뭔가 깎고있는 모양이 눈에 띄웠다. 툇마루우에는 로인이 이미 깎아놓은듯한 다듬이방망이 두짝이 새끼줄에 묶여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아마 다듬이방망이나 홍두깨등속을 내다 파는 로인인듯하다.

현무는 조심스레 인기척을 내며 삽짝문을 열었다.

로인이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몰라 현무가 우물쭈물하는데 뜻밖에도 로인은 더 묻지 않고 웃방쪽을 눈짓해보이는것이였다.

현무는 얼떨떨한 속에서도 갈급증이 나는것을 견딜수 없어 초조히 다가가 웃방문을 열었다.

아니나다를가 고수머리삼촌이 벙글거리며 눈앞에 서있는것이 아닌가. 현무는 갑자기 목구멍이 뜨거워지는것을 느끼며 방안에 뛰여들었다.

《삼촌!》

《현무야!》

혈관을 튕기며 부풀어오르는 피의 설레임소리를 들으며 두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힘껏 다그어잡았다.

현무의 눈길이 곽칠성의 얼굴에서 떨어질줄 모른다.

만난지 이태가 되였던가. 그동안 삼촌은 저으기 수척해진것같았다. 볕에 그슬린 볼편은 더 꺼져들어가고 주름살이 늘어난 눈언저리에도 피로와 시름이 떠돌고있었다.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부러져나가면 나갔지 굽어들줄 모르는 감때사나운 눈빛이였다.

현무는 반가움에 겨워 칠성삼촌을 붙들고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는 현무를 보느라니 곽칠성도 눈뿌리가 저려들었다.

정말 류수같은 세월이였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삼촌의 고수머리를 만지작거리던 젖먹이가 어느새 가슴 벌어지고 입김 화끈한 사내장부로 자란것이다.

고집스레 이마가 둔덕지고 코마루가 높직한게 호락호락치 않을 인상이다. 홰치는 장닭의 울음처럼 씩씩하게 울리는 저 목소리는 또 얼마나 대견한가. 부리부리한 눈방울이 꼭 상건형을 보는것만같아 칠성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탕건을 쓴 로인이 슬며시 웃방문을 닫아주었다. 훈훈한 기쁨이 방안에 그들먹이 번지는데 곽칠성이 입을 열었다.

《어머닌 먼저 만났댔다. 내가 널 보구 가겠다구 했으니 늦어지면 그리 아실게다.》

더 말하지 않아도 현무는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항상 사자밥을 싸가지고 다니는 삼촌이였다. 왜놈들이 10여년전부터 현상금까지 내걸고 잡으려 한다니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인들 오죽 많이 겪었으랴. 그런탓에 삼촌은 기별도 없이 불시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군 하였고 그때마다 행색도 조석으로 달라지군 하였다. 때로는 람루한 품팔이군차림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신사양복에 하이칼라머리까지 하고 나타나기도 하였다.

나타날 때에도 삼촌은 집으로 직접 찾아올 대신 늘쌍 이렇게 외딴곳을 택하여 현무나 그의 어머니를 만나보군 한다. 혈육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때문에 왜놈들에게 화를 당할가봐 그런다는것을 현무는 잘

알고있었다.

현무는 제잡담 학생복부터 열어제끼며 칠성삼촌에게 들이댔다.

《삼촌, 오랜만인데 한번 겨뤄보시지 않겠어요?》

칠성의 얼굴에 느긋한 미소가 퍼져나갔다.

현무의 말인즉 팔씨름을 해보자는 소리다. 잔뼈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팔씨름부터 해보자고 덤벼들건만 언제 한번 삼촌을 이겨본적이 없는 현무였다. 칠성은 히뭇이 웃으며 말했다.

《넌 아직 안돼. 한 삼년쯤 장독을 더 축낸 다음이면 몰라두…》

그 말에 현무가 기운차게 벌어진 동가슴을 내밀면서 자신만만하게 대꾸했다.

《체, 길고짧은건 대보아야 안댔어요.》

그리고는 제먼저 닝큼 엎드리며 노전바닥에 팔꿈치를 꾹 박는것이였다. 어쩌는수없이 곽칠성도 마주 엎드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막상 현무의 손을 잡으니 손아귀가 제법 돌같은게 이전과 또 다르다.

칠성이 슬그머니 위구심을 느끼는 속에 드디여 팔씨름이 시작되였다.

현무가 날쌔게 손회목을 먼저 꺾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이길 작정으로 목을 잔뜩 사린채 모지름쓰는 현무의 얼굴에 승기가 펄떡거렸다. 하지만 선손을 떼웠다고 수나롭게 넘어질 칠성이 아니였다. 그는 팔굽을 떡 뻗지르고 어디 한번 힘써보라는듯 씨물씨물 웃기까지 했다.

현무는 등이 달아 젖먹은 힘까지 짜내며 안깐힘을 썼다. 맞붙은 두 팔뚝이 푸들푸들 떨린다. 두사람이 용을 쓰느라 노전잎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다.

결국 첫판에 손회목을 먼저 꺾여서인지 곽칠성이 못견디는것으로 승부가 나고말았다.

어지간히 기운을 뽑은 두사람은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잠시 숨을 돌렸다. 설핀 저녁볕이 노전구들에 얼비치고있었다.

《허, 그새 현무가 장정꼴이 다 잡혔는걸.》

칠성이 이마에 질펀한 팥죽땀을 훔치며 흥그러운 어조로 말하자 현무가 숨겹게 말을 받았다.

《삼촌이 우정 져주신걸 내가 모를줄 아세요?》

현무를 돌아보는 칠성의 두눈에 따뜻한 정이 일렁인다. 이태전에 만났을 때보다 몸도 마음도 퍼그나 성장한 모습이다.

문득 앞서 만났던 현무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현무가 동맹휴학에 앞장섰다가 왜놈들에게 붙잡혀가 죽도록 곤욕을 치렀다지. …

그럴진대 겉으로는 저렇게 심상한체해도 가슴속에는 얼마나 매운 분노가 불김처럼 서려있으랴.

하긴 어디 현무 하나만이 당하는 고통인가. 망국노의 절통한 삶을 사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짊어져야 할 불서러운 운명이 아니던가.

그러나 헛되기만 한 고통은 아닐것이다. 쇠도 강쇠가 되자면 불속에서 여러번 부대껴야 하고 한해살이풀도 열매를 맺자면 가뭄장마를 다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곽칠성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젊어 고생은 사서라두 하랬지. …》

현무의 얼굴이 굳어져버렸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에 컴컴한 그늘이 얼른거렸다.

(삼촌도 이미 알고있는 모양이지. 내가 류치장살이를 했다는거랑, 학교에서 출학당했다는거랑…)

울컥 속이 치밀었다. 사납게 머리를 쳐든 서리찬 울분이 또다시 가슴벽을 쾅쾅 떠박지르기 시작했다.

현무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속에 품고있던 생각을 칠성삼촌에게 터쳐놓았다.

《삼촌, 나 이번에 삼촌을 따라가겠어요.》

《엉?…》

칠성삼촌이 쳐다본다. 현무가 검붉어진 두볼을 후들후들 떨며 결차게 뒤를 달았다.

《나도 삼촌처럼 총을 잡구 왜놈들을 족치고싶단 말입니다.》

당황한 빛이 삼촌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는 두눈을 꾹 감고 량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은채 아무말없이 누워있었다.

이윽고 채찍을 내려치듯 짧은 소리가 그의 입에서 울려나왔다.

《안된다.》

너무도 단호한 거절에 현무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안되다니? 도대체 왜 안된다는건가?… 노여움과 섭섭함이 덩어리로 뭉쳐 목구멍을 컥 틀어막는것같았다.

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칠성삼촌에게 항변하듯 따져물었다.

《내가 아직도 어리다는건가요? 아버지나 삼촌은 나보다 이른 나이에 군사가 되지 않았나요. 삼촌은 내 나이때 의병이 돼서 왜놈들과 싸웠구요!》

열이 올라 대드는 현무의 눈길을 피해 칠성삼촌은 무거운 침묵만 지켰다. 그러다가 자기도 일어나 앉더니 품안에서 천천히 담배쌈지를 꺼내든다.

마라초 한대를 말아 물고 성냥을 득 긋는데 불꼬리가 후르르 떨었다. 삼촌은 한동안 담배연기만 풀썩풀썩 피워올리다가 조용히 묻는것이였다.

《네가 날 따라가면 어머닌 누가 돌보겠느냐?》

《?…》

《나야 무우밑둥같은 홀몸이니 별로 걱정할게 없다만 너야 다르지 않느냐. 그리구 공부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랑 외삼촌들이랑 널 공부시키자구 얼마나 고생들 하셨는지야 모르지 않을테지?…》

현무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말았다. 칠성삼촌이 던진 물음이 뜨끔하게 가슴을 찔러왔던것이다.

삼촌의 말이 옳았다. 하나뿐인 자식이 떠나면 어머니는 늘 마음을 죄며 빈집에 홀로 계셔야 하리라. 낡은 부엌의 쪽마루에 앉아 자기보다 키큰 아들을 대견스레 쳐다보던 어머니의 젖은 눈빛이 떠올랐다. 색날은 무명천같이 바래고 메마른 어머니의 고단한 그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왔다.

그런 어머니를 외로이 내버려둔채 기약없는 길을 떠나간다고 생각하니 허비는듯 마음이 쓰려왔다.

땅속에 누워계시는 외할아버지며 고마운 외삼촌들은 또 무슨 낯으로 대하랴. 얼마전에도 맏외삼촌이 자기를 붙들어앉히고 신신당부하지 않

았던가.

《현무야, 내가 어깨가 부서지더라두 널 쫓아댕기면서 학비만은 댈터니 어떻거든 외할아버지뜻대루 공부는 마저 해야 한다.》

현무는 무릎이 꺾이도록 간곡한 그 당부에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과거급제하기보다 어렵고 고등관벼슬하기보다 어렵다는 고보입학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현무를 앞세우고 외할아버지의 무덤앞에 찾아가 울먹이며 그 소식을 고하던 맏외삼촌이였다.

사실 아무리 공부에 자신있다 해도 외삼촌들의 채찍질과 뒤바라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통학교때보다 몇곱절의 학비가 드는 중학공부를 엄두조차 낼수 있었으랴.

괴로웠다. 집안어른들의 눈물겨운 그 진정에 다문 얼마라도 보답은 못할망정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드린다는 죄책감이 현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왔다. 하나 공부도 사람구실하자고 하는것이 아닌가.

학교에 가서 《기미가요》나 제창하고 《닛뽕진또 죠센진와 덴노헤이까 오나지네》(일본인과 조선인은 《천황》폐하가 같지요) 하는따위의 왜말들을 낯뜨겁게 외워바쳐야 할 때면 현무는 목을 조이는듯한 고통을 느끼군 하였다.

어머니의 젖을 물고 익힌 모국어가 볼꼴없이 천시당하고 피를 물려준 선조들의 력사가 어이없이 헐뜯기울 때마다, 마소와 같은 굴종의식을 억지다짐으로 주입당할 때마다 그는 가슴속에서 반항의 피거품이 끓어올라 입술을 악물군 하였다.

왜놈들이 조선학생들에게 강요하는것은 종노릇에 필요한 《공부》였다. 조선사람의 얼을 지우고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처신부터 착실히 배워야 하는 굴욕에 찬 노예살이《공부》였다.

과연 집안어른들이 고생스럽게 마련해준 학비를 바쳐가며 그따위 못난 《공부》나 하고있어야 한단 말인가.

김현무는 마음속으로 세차게 도리머리를 쳤다.

아니다! 더이상 왜놈들의 노예교육에 시달리며 청춘을 썩일수 없다.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이 땅의 사내라면 마땅히 왜놈치는 법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참다운 공부라고 현무

는 확신했다.

칠성삼촌이 부러웠다. 비록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물에 몸을 씻으며 이국광야에서 풍찬로숙할지언정 독립전에 기꺼이 뛰여들어 원쑤 왜적들을 속시원히 답새겨대고싶었다.

현무는 단숨을 뿜으며 막무가내로 칠성삼촌에게 졸라댔다.

《삼촌, 나도 깊이 생각해보구 결심한겁니다. 어쨌건간에 이번엔 무조건 삼촌을 따라가겠어요.》

곽칠성의 눈굽이 화끈해졌다.

열기가 펄펄 끓는 현무의 얼굴에서 그는 상건형의 모습을, 젊었을적의 자기 모습을 보고있었다. 그자신도 현무나이에 저렇듯 가슴이 시뻘겋게 달도록 의분을 태우며 의병의 길에 나서지 않았던가.

홍안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의 나이도 40이 가까와온다. 그런데…

칠성은 얼굴을 흐리였다.

나라를 찾겠다고 스무해가까이 뛰여다녔건만 현무 같은 젊은이들앞에 떳떳이 해놓은게 뭔가 하는 생각이 침울하니 밀려들었던것이다. 왜놈들의 기세는 날로 등등해만 가는데 독립군은 하루하루 묵은잎이 시들어가듯이 조락하고있었다.

더러는 싸우다 숨지고 더러는 뿔뿔이 흩어지고 더러는 왜놈들에게 투항하고… 칠성이처럼 여전히 결사항전을 부르짖는 축들도 갈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며 제편끼리 반목과 질시로 헛되이 힘을 뽑고있지 않는가.

단지 반목질시로만 그쳤던가. 자파세력확장에 환장한 파쟁군들의 롱락물이 되여 이역만리의 흑하에 가서까지 동족상쟁의 류혈참극을 빚어놓지 않았던가.

번민에 방황하는 칠성의 눈길이 현무의 머리너머 벽에 부딪치기도 하고 방바닥에 나떨어지기도 한다.

어데로 가야 하는가? 그리도 목마르게 바라는 독립의 날은 왜 이리도 까마득하게만 여겨지는것인가?

풍랑속의 난파선마냥 향방도 희망도 묘연한채 정처없이 헤매고있는것이 바로 오늘날 독립운동의 현실이였다.

헌데 그런 탁류의 소용돌이속에 현무가 뛰여들겠다구?…

설사 독립의 그날을 보지 못한다 해도 왜놈들과는 끝까지 해보리라 피의 맹세를 다진 칠성이였다. 하건만 이렇듯 암담한 시절 앞을 기약할수 없는 사생결단의 싸움길에 상건형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붙이까지 나서게 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짐짓 흔연한 기색을 지으며 말했다.

《이 삼촌이 기운이 진하면 그때 네가 나서두 늦지 않아. 속잎이 자라면 떡잎은 젖혀지기마련인걸.》

현무가 또 달라붙으려는것을 칠성은 후날 다시 얘기하자며 겨우 밀막아버렸다.

그나저나 현무가 장하게 여겨졌다. 대끝에서 대가 난다고 아버지가 남긴 뜻을 꿋꿋이 품고 성장한 저 모습이 얼마나 름름한가.

칠성은 잔뜩 달아오른 현무의 동가슴을 손바닥으로 철썩 치며 격려하듯 한마디 던졌다.

《아무튼 피만 식지 말거라.》

그날 집주인내외와 한집안식구처럼 저녁을 치른 두사람은 뙤창문으로 비쳐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7

곽칠성은 여러날째 모래터 골목집에 머물러있었다.

그 덕에 현무는 많은 시간을 삼촌과 함께 보낼수 있었다. 어떤 날은 삼촌이 묻는대로 성안의 형편을 들려주었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담그어 보내는 열무김치를 들고 가서 온종일 간도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도 틈만 생기면 이번 길에 함께 가겠다고 삼촌에게 들이대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현무가 가져다준 신문들을 들여다보던 칠성삼촌이 갑자기 이마전에 드리운 고수머리를 움켜잡으며 신음소리를 내는것이 아닌가.

현무는 의아해서 삼촌의 어깨너머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큼직한 기사제목이 눈길을 붙잡았다.

《함평갑부 최박만씨 돌연 참사》

기사의 내용인즉 대략 이러했다.

…찜솥마냥 무덥던 지난 일요일 밤, 장안의 소문난 고리대금업자이며 함평벌의 만석부자이기도 한 최박만은 서울 돈의동의 제 집 안채에서 애첩과 함께 세상모르게 곯아떨어져있었다. 문이란 문은 모조리 열어젖히고 모기장만 쳐놓은 상태였다.

새벽 2시경,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시꺼먼 그림자가 안채에 들어왔다.

《애고머니!》

인기척에 눈을 뜬 애첩이 기겁하는 소리였다.

복면을 한 괴한이 시퍼런 비수를 빼여들고 모기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혼비백산하여 최가를 깨울념도 못한채 모기장을 빠져나온 애첩은 밖으로 뛰쳐나가며 자지러지는 소리를 질러댔다.

《악… 으악…으악—》

등뒤에서 최가의 비명이 들려왔다.

맨발에 고름풀린 속옷바람으로 별채를 향해 뛰여간 애첩은 숨이 턱에 닿아 최가의 양아들을 찾았다.

《아이고, 흐…흥두! 이봐, 흥두! 빨리… 어서 일어나라니깐!…》

한참만에야 흥두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작은어머니가 웬 일이슈?》

《가…가…강도가 들었어!》

애첩이 숨을 할딱거리며 간신히 말하자 흥두의 얼굴에 실려있던 잠기가 대번에 달아나버렸다.

《뭐라구요?!》

흥두는 눈이 화등잔이 되여 양아버지의 안부부터 다우쳐물었다.

《아부님은요? 아부님은 어찌되셨수?》

《…》

난처한듯 애첩이 입술만 오물거렸다. 흥두는 부랴부랴 하인들을 휘동해

가지고 달려갔다.

안채는 쥐죽은듯 잠잠했다. 괴한의 그림자는 간데 없는데 금고는 열린채로 텅 비여있고 최박만이 마구 찢긴 모기장을 뒤집어쓴채 검붉은 피를 쏟으며 널부러져있었다.

《아부님!—》

흥두는 피범벅이 된 양아버지의 주검앞에 어푸러지며 통곡을 터뜨렸다. …

신문에 흔히 실리군 하는 살인강도기사였다. 죽은자가 갑부라니 보나마나 재물을 노린 짓거리일테지. 한데 칠성삼촌은 기사를 보고 왜 저리도 흥분하는걸가?…

현무는 영문을 알수 없어 삼촌의 얼굴만 지켜보았다.

칠성삼촌은 시뻘겋게 단 눈으로 신문기사를 뚫어지게 쏘아보고있었다. 부르르 떠는 눈동자속에서 경악과 의혹, 분노의 불꽃들이 세차게 맞부딪치는듯하였다. 얼마후 삼촌이 단호히 말하는것이였다.

《이밤으로 떠나겠다.》

그러는 삼촌을 현무는 얼떠름해서 바라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무작정 따라나서고싶었지만 삼촌이 하도 다급히 서두르는통에 더 우길 경황이 없었다. 현무가 바래주기라도 하겠다고 나섰으나 그것마저 거절당했다.

칠성삼촌은 현무에게 긴요한 련락일을 부탁하고나서 으스름이 밀려드는 골목길로 부리나케 사라져버렸다. …

그런데 이튿날 칠성의 전갈을 가지고 사동탄광에 갔던 현무가 중낮이 되여 돌아오는데 뜻밖에도 모래터 골목집로인이 도중에서 찾는것이 아닌가. 현무를 이끌고 구석진 곳으로 간 로인은 소리를 죽여 수군거리는것이였다.

《아무래도 심상찮구나.》

현무는 속이 철렁했다. 삼촌한테 무슨 일이라도?…

등골로 치닫는 불길한 예감을 황망히 떨어버리는데 로인이 사연을 이야기했다.

《글쎄 엊저녁에 집을 나선 사람이 별안간 어둑새벽에 옆구리에 피가

질벅해서 되돌아오질 않았겠니. 삼촌의 말이 정거장에서 불시에 검색을 당하는 바람에 기차에두 못오르구 밤새껏 쪽발이들의 추격을 받다가 겨우 따돌렸다더구나. 난 그 몸으룬 못간다구 한사코 말렸다. 헌데두 삼촌은 빨리 성안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대충 상처를 처매구 옷을 갈아입더니만 그길루 돌따섰단다. 그러면서 너더러 사동탄광서 돌아오는 길루 안학골에 와달라더구나.》

《안학골에요?…》

이렇게 되뇌는 현무의 머리속에 이태전 누군가를 따라 칠성삼촌을 만나러 갔던 안학골의 숯구이막이 떠올랐다. 그제서야 그는 오늘따라 왜놈경찰들이 시내 곳곳에 지켜서서 행인들의 몸수색까지 하며 지랄치던 까닭이 짐작되는것이였다. 가슴속에 불안이 먹물처럼 번졌다.

로인의 말로 보아 삼촌이 부상을 입은게 분명한데 그 몸으로 왜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무사히 빠져나갔을가? 이럴줄 알았으면 삼촌이 아무리 말렸어도 따라나섰을걸 하는 후회가 목굽을 치받았다.

근심스레 뒤를 다는 로인의 말이 현무의 불안을 더한층 부채질했다.

《아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니 가루개고개쪽에서 왜놈들이 총을 쏴대면서 자전거를 탄 웬 사람을 쫓아갔다는데 혹시…》

더 듣기만 할수 없었다. 김현무는 그길로 안학골을 향해 떠났다. 만수대고개를 넘고 칠성문앞을 지나 가루개를 바라보며 내려가는 동안 별별 생각들이 다 스쳐갔다.

삼촌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건 아닐가? 천만에, 칠성삼촌이 누구라구. 왜놈들이 살판치는 속에서도 팔도강산을 메주 밟듯해온 독립군이 아닌가. 틀림없이 숯구이막에 가면 삼촌이 벙글거리며 맞아주리라. 그렇지만 혹시…

거품처럼 떠오르는 번거로운 상념들을 연신 물리치며 현무는 걸음을 다우쳤다.

가루개언덕을 지나 흥부동 지름길로 빠진 그는 내처 벌판길을 걸어 합장강다리에 이르렀다. 다리목에서 왜놈경찰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있었다.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남자라면 모조리 불러세우

는 꼴이 여태 칠성삼촌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듯싶었다.

현무가 그럴듯한 말로 놈들을 업어넘기고 다리를 벗어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늦여름의 비줄기는 장대같이 굵고 살찼다. 몰박으로 퍼붓는 비를 피하느라 행인들이 다리밑으로 뛰여들었다.

그래도 현무는 줄창 걷기만 했다. 칠성삼촌이 기다리고있었다. 삼촌이 걱정됐다. 비바람과 천둥번개에 벌판이 아우성치고 사나운 비줄기가 뺨을 갈겼지만 현무는 거칠게 들뛰는 가슴을 안고 정신없이 반달음쳤다.

온몸이 땀에 떠서 대성산자락의 안학골에 당도하였을 때는 비가 걷힌 뒤였다.

현무는 이태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한참 헤매서야 풀덤불에 거의 메워진 오솔길을 찾아낼수가 있었다.

오솔길을 따라 어느 한 골짜기로 깊숙이 올라갔다. 왜놈들의 눈알이 뒤집혀진 때라 주의하다나니 벌써 저녁무렵이 돼오고있었다.

소나무며 참나무들이 무성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불쑥 수풀사이로 무덤같이 두두룩한 숯가마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들과 좀 떨어져서 새초이영을 씌운 초막도 하나 보인다.

김현무는 숯구이막의 낯익은 자태를 알아보았다. 숨가삐 뛰여가 거적문을 들추었다.

헌데 어찌된 일인가? 막이 텅 비여있지 않는가? 언제 사람이 들었댔는지 문설주에는 거미줄이 얼크러지고 흙벽에는 오래된 그을음이 거멓게 끼여있었다. 웃설미로 얹은 솔가지사이로 고삭아버린 새초이영이 흘러내려 너풀거리고있었다. 그러고보니 숯가마들도 군데군데 무너져내린게 불을 끈지 퍼그나 된것같았다.

현무는 창황히 주위를 돌며 칠성삼촌을 소리쳐 찾았다. 하건만 골짜기에 울리는건 빈 산울림뿐이였다.

속이 후두둑거렸다. 정녕 삼촌이 왜놈들한테 잘못되였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았다. 왜놈의 씨종자를 말리기 전엔 눈을 감지 않겠다던 삼촌이 아닌가. 독립의 그날이 와주기만 하면 머리가 산산쪼각이 난대도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아 울리고 기뻐서 죽겠다던 삼촌이 아닌가.

그런 삼촌이 어떻게 쉽사리 쓰러진단 말인가? 필경 왜놈들의 추격을 떼버리느라 늦어지겠지. 허나 일러준 장소에 나타나지 못한걸 봐서 삼촌의 신상에 일이 생긴것만은 확실하지 않은가.

현무는 자꾸만 밀려드는 불안한 생각을 애써 털어버리며 칠성삼촌을 계속 찾았다.

그러던 어느 한순간 불현듯 뇌리를 때리는것이 있었다. 이태전 여기로 왔다가 근처의 바위굴에 들어갔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때 숯구이막에서 칠성삼촌과 만나던 현무는 등성이를 넘어 매사냥군들의 소리가 들려오자 삼촌을 따라 바위굴로 자리를 옮겼었다. 그 굴이 예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더랬는데…

현무는 눈에 불을 켜달고 바위굴을 찾기 시작했다.

검붉은 락조가 비에 축축히 젖은 나무들을 비치고있었다. 적막한 골안이 외로운 산새의 울음소리로 젖어든다.

마침내 현무는 산비탈에 옹달샘처럼 나있는 자그마한 바위굴을 발견하였다. 우거진 잡관목들이 굴어구를 가리고있어 가까이 가도 쉬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였다.

굴어구주변을 살피던 현무는 그만 굳어지고말았다. 싸리나무 여러대가 부러져있었는데 부러진 자리에 진이 생생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삼촌이 굴안에 있다면 숯구이막쪽에서 찾는 소리를 들었을텐데? 그럼?…

김현무는 칠흑같은 어둠이 드리운 굴안을 들여다보며 손에 땀을 쥐고 불렀다.

《삼촌!—》

그러나 들려오는건 역시 텅 빈 메아리뿐. 차츰 눈이 어둠에 익숙되면서 굴안에서 어슴푸레한 불빛이 흘러나오는것을 분간할수 있었다.

현무는 이름할수 없는 반가움에 휩싸여 빨리우듯 굴안에 들어섰다. 뭔가 선뜩한것이 정수리를 두드린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수방울이였다. 앉은걸음을 해서야 드나들만큼 굴길은 좁았지만 현무는 바위벽에 어깨를 찧으면서도 아픈줄 모르고 어둠속의 불빛을 향해 한걸음한걸음 다가갔다.

얼마 못가서 굽돌이가 나졌다. 굽돌이를 돌아서자 두세명이 편히 앉을만치 넓어진 공간이 눈앞에 나타났다.

현무는 우뚝 멈춰서버렸다. 당반처럼 턱이 진 굴벽우에서 가느다란 광솔불이 긴 그을음을 피워올리고있었는데 그밑에 누군가가 쓰러져있는것이 아닌가.

심장에 화살이 박히는듯 흠칫하며 현무는 그리로 다가갔다.

어스름한 광솔불빛이 쓰러져있는 사람의 얼굴에 그물그물 불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깊숙이 패워들어간 볼편, 터갈린 입술과 먼지로 얼룩진 꺼칠한 수염, 흉터가 진 이마에 흙빛으로 헝클어진 고수머리…

다름아닌 칠성삼촌이였다. 피투성이가 된 삼촌이 정신을 잃은채 마른 잎우에 누워있었다.

《삼촌!》

현무는 칠성삼촌의 앞에 와락 주저앉으며 소리쳐 불렀다.

삼촌은 대답이 없었다. 낯빛이 창백한걸 보니 피를 많이 흘린것같았다. 황황히 웃도리를 헤치고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가슴과 옆구리에 험상스레 총상을 입었는데 언저리의 살이 꺼멓게 죽어있었다. 이런 몸을 끌고 예까지 오다니…

어쩔바를 몰라 헤덤비던 현무는 문득 어릴적에 무릎이 깨져 피가 나는 자기를 외할아버지가 처치해주던 일이 떠올랐다.

화급히 굴밖으로 나갔다. 땅거미가 밀려드는 산기슭을 헤매며 지혈에 좋다는 조뱅이풀을 뜯었고 속옷을 찢어 수건을 만들어서는 굴어구에서 떨어지는 석수에 적셨다.

바삐 굴안으로 돌아온 그는 먼저 물에 적신 수건으로 삼촌의 상처부터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광솔불을 내리워 광솔가지에서 바글바글 끓는 송진을 긁어낸 다음 뜯어온 조뱅이잎을 송진에 이겨 상처에 붙여나갔다.

이따금 삼촌이 버거운 신음을 흘린다. 그럴 때마다 현무의 손도 경련하듯 떨리군 하였다. 어지간히 시간이 지나서야 처치를 끝낼수 있었다.

눈앞이 불그림자와 함께 흔들거렸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낮부터 지금까지 끼니도 건는채 줄곧 뛰여다녔다는것을 깨달았다.

김현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칠성삼촌을 내려다보았다.

삼촌은 여전히 깨여나지 못하고있었다. 호흡도 불안했고 맥박도 가늘었다.

이러다가 삼촌이 영영 깨여나지 못하는건 아닌가 하는 위구심에 마음이 조여들었다. 아버지와 말 한마디, 정 한번 나눠보지 못하고 자라온 현무에게 있어서 칠성삼촌은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군 하던 고마운 어른이였다.

현무는 아버지에게 터놓고싶은 가슴속말들을 칠성삼촌에게 터놓군 하였고 아들에게 남기고 간 아버지의 절절한 뜻을 삼촌을 통해 새겨안군 하였다. 그런 삼촌을 잃다니…

다음순간 현무는 사위스러운 생각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버럭 화를 냈다.

(에잇, 어떻게 하나 삼촌을 구할 생각은 않구 이따위 방정맞은 생각이나 하고있다니. 날이 새면 성안에 들어가서 용한 의원을 찾아보자. 외삼촌들한테 얘기하면 팔을 걷고 나서겠지.)

현무는 이렇게 속다짐하며 래일 해야 할 일들을 꼽아보았다. 그러다가 어느결에 굴벽에 기댄채 잠들어버리고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누군가가 부르는듯한 느낌에 깨여났다. 뜻밖에도 칠성삼촌이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현무는 기쁨이 치밀어 삼촌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삼촌! 정신이 드셨군요!》

삼촌은 빙그레 미소를 띠웠다. 하지만 아픔이 그 미소를 이지러뜨렸다. 동통이 지나가는듯 이를 악물고 가쁜숨을 툐던 그는 이윽고서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용케 찾아왔구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맥이 없었던지 홀연 뜨거운것이 현무의 눈꺼풀을 아프게 찔렀다.

삼촌의 낯빛은 아까보다 더 해쓱해보였다. 강기가 흐르던 전날의 모습은 하루새 사라지고 피기 한점 보이지 않는 쇠진해진 모습으로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었다.

현무는 가슴이 찢기는듯한 모진 아픔을 느끼며 칠성삼촌의 얼굴에 내밴 식은땀을 수건으로 훔쳐주었다. 그러면서 삼촌을 위안하려 들었다.

《삼촌, 조금만 견뎌주세요. 내 이제 당장 성안으로 뛰여가서 의원을 데려오겠어요.》

현무가 성급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데 삼촌이 만류했다.

《그만둬라. 아무래두… 그래 네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불렀다.》

해줄 말이라니? 현무는 덩둘해서 삼촌을 바라보았다.

칠성삼촌의 눈빛이 조용히 타오르고있었다. 침착하게 가라앉아있는, 그래서 더욱 결연해보이는 눈빛이였다.

현무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다 녹아내려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 피여오르는 초불이랄가, 자기를 쳐다보는 삼촌의 눈빛에서 그러한 절절함을 섬찟하니 읽으며 현무는 어쩔수 없는 힘에 이끌려 도로 주저앉았다.

칠성삼촌은 처음 보기라도 하듯 현무를 유심히 눈여겨보다가 짓눌린 어조로 말을 떼는것이였다.

《너두 인젠 알 때가 된것같다. 어떻게 돼서 아버지가 왜놈들한테 절통하게 목숨을 잃으셨는지. 실은 네 외할아버지에게만 아뢌을뿐 여적 어머니한테두 자상한 사연은 얘기하지 못했다만…》

현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서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려고 왜놈들과 싸우다가 떳떳하게 순국했다고 들어온 그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소식을 집안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칠성삼촌이 여적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한 자상한 사연이란 대관절 뭔가?…

현무의 얼굴에 긴장이 떠도는데 잠시후 삼촌이 괴롭게 갑자르며 밑도 끝도 없는 말을 꺼내는것이 아닌가.

《나때문에… 나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아버지를 왜놈의 개에게

일러바쳐 목숨을 잃게 한 놈이… 바로 나였다!》

순간 현무는 벼락에 맞은듯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칠성삼촌이 아버지를 왜놈의 개에게 일러바치다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고백앞에서 현무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삼촌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이그러져있었다. 모질게 지르감은 그의 두 눈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얼마뒤 칡넝쿨처럼 얽힌 사연을 푸는 삼촌의 말소리가 굴벽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운궁에서 잃어버린 황제의 비밀옥새, 한밤중에 왜놈들을 습격하고 황제어새를 되찾아온 조선군대 참위, 헤그회의를 앞두고 황제의 신임장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지사들과 옥새를 뺏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뛴 왜놈들…

그것은 현무가 아직까지 모르고있던 이야기였다. 근 스무해세월의 저 멀리에서 저녁별마냥 어렴풋이 비치던 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한 안개발을 헤치며 천천히 다가오고있었다.

심장이 터질듯이 쿵당거렸다. 놀라움과 흥분으로 하여 몸안의 모든것이 지릉지릉 울리는듯싶었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칠성삼촌의 목소리가 귀전을 두드리고있었다.

《네 아버진 내게 친형이나 다름없는분이였다. 습격이 있은 그날 밤에 왜놈들이 병영에까지 밀려와서 형님을 찾느라 돌아치는걸 보구 난 온밤 뜬눈으로 새웠다.

헌데 어뜩새벽에 병영밖에서 파수를 서고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형님이 가만히 날 찾더구나. 형님이 무사한걸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

형님은 내게 자기가 간밤에 왜놈장교를 죽인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저녁에 노들나루로 나갈테니 오석구라는 놈한테 귀띔해주라는게 아니겠니.

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석구로 말하면 나와 고향이 같았는데 왜놈헌병대에서 통변노릇을 하는 <일진회>족속이라는걸 형님두 모르지

않았댔으니까. 이미 그때 형님은 자기 목숨을 내대서라두 왜놈들의 눈을 따돌리구 옥새를 무사히 궁안으로 들여보낼 작정을 하고있었던 거다.

난 펄쩍 뛰면서 제정신이냐구 야단을 쳤구나. 허지만 형님은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사를 망칠수 있다면서 나한테 사정하다 싶이 하는것이였다.

그래두 난 머리를 흔들었다. 고향의 어머님과 형수님생각두 하라구, 몇달후면 형수님이 해산을 할텐데 자식생각두 해야 할게 아닌가구 형님한테 애원했다. 인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나라인데 형님 혼자 목숨을 내대서 바로잡힐것같으냐구 난 한사코 대들었지.

했더니 형님이 내 귀뺨을 후려치면서 꾸짖는게 아니겠냐.

<이 못난놈아, 다들 그렇게 제살궁리만 하면 나라는 어찌되느냐! 그러니까 왜놈들이 조선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다!>…

그렇게 화가 난 형님의 모습을 난 그제껏 본적이 없었다. 종내 난… 형님의 뜻을 따를수밖에 없었구나. …》

칠성삼촌의 말소리가 섬돌우에 떨어지는 비방울처럼 흐트러졌다.

현무는 컴컴하게 질린 얼굴을 짓숙인채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뿌잇하니 흐려지는 눈앞에 옥새함을 그러안고 검푸른 강물에 뛰여드는 아버지의 모습이 피빛으로 떠올랐다.

눈시울이 떨려났다. 뜨거운 아픔이 불길이 되여 목안을 지지는듯싶었다.

아버지가 부모처자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앞세운것은 나라였거니 과연 나라란 무엇이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이 땅의 의사들은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것이고 집도 가족도 다 버린채 타향만리를 헤매고 있는것인가.

정녕 나라란 무엇이기에 제 나라를 잃으면 백성들은 금수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마는것인가.

황제어새…

김현무는 아버지가 목숨을 내대며 지킨 옥새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곱씹어 외웠다.

아버지의 피맺힌 원한을, 구천에 가서도 품고있을 참담한 소망을 가슴속에 불도장마냥 새겨넣고있었다.

서리찬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듯 현무가 충혈된 눈으로 바닥만 노려보는데 칠성삼촌은 점점 진해가는 기운을 다잡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독립군에서 받은 임무와 고종황제의 내탕금에 대해서, 윤대비에게서 최박만에게로 황제어새가 넘어간 사연이며 최가의 집에 갔다가 실패하고 오석구를 처단한 일에 이르기까지 옥새를 찾는 과정에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들려주었다.

가물가물 흐려지는 의식을 강잉히 부여잡고 필사의 힘을 다해 말하는 삼촌의 모습은 저으기 비장하고도 촉박해보였다.

《…난 오석구를 처단한 뒤 형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숨어있다가 기회를 봐서 최박만을 다시 치려구 작정했댔다. 비록 전번에 헛탕을 쳤지만 옥새가 그자에게 있다는것만은 똑똑히 확인했으니까. 헌데 최가가 그렇게 덜컥 죽을줄이야. 그 소식을 신문에서 봤을 때 눈앞이 새까매지더구나.

최박만이 죽었으니 그자가 가지고있던 옥새는 어찌되였단 말이냐? 금고가 열린채로 텅 비여있었다는 기사대목을 몇번이나 뜯어보면서 난 피한이 노린게 십중팔구 옥새가 아니였겠나 하는 불안을 물리칠수가 없었다.

대체 최가를 죽인게 어떤자인지?… 전번처럼 일확천금에 환장한 강도인지 혹은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사람인지 통 짐작이 가질 않았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치밀더구나. 애써 찾아냈던 옥새의 행방이 다시 오리무중에 빠져버릴 판이니. 그리되면 황제어새를 찾는다는건 검불밭에서 바늘찾기 한가지라구 생각하니 그만 떡심이 풀리는걸 어쩔수 없었다.

허지만 난 물러설수가 없었다. 네 아버지가 지하에서 눈을 부릅뜨구 지켜보는것만같더구나. 그때처럼 내 귀뺨을 후려치면서 추상같이 꾸짖는것같더란 말이다.

난 형님의 희생을… 권태석이 흘린 피를 헛되게 할수가 없었다. …》

너무 무리하게 이야기를 한탓인지 칠성삼촌의 얼굴에 또다시 경련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삼촌은 동통을 참느라 모지름을 쓰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난 빨리… 옥새의 행방부터 확인하기로 작정했다. … 최가가 죽으면서 옥새도 잃어졌다면… 늦기 전에 괴한의 흔적을 뒤쫓아야 한다구… 생각했지. … 그래 당장 서울로 가서… 종로 화동에 사는… 박상궁부터 만나보자구 나섰댔는데… 그만…》

종시 칠성삼촌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말았다. 삼촌의 머리가 맥없이 처져내린다.

현무는 다급해나 삼촌을 소리쳐 불렀다.

《삼촌! 정신 차려요, 삼촌!…》

한참이나 애타게 찾아서야 삼촌은 다시 눈을 떴다. 현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칠성삼촌에게 부르짖었다.

《삼촌, 기운을 내세요! 내 얼른 의원을 데려올테니 그때까지 절대 맥을 잃어선 안돼요!》

했건만 이번에도 삼촌은 머리를 젓는것이였다.

《그러지 말아. 아무래두 인젠… 인젠 틀린것같다.》

현무의 심장이 흠칠했다. 쓰라린 예감에 몸을 떨며 그는 칠성삼촌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눈빛은 자꾸 사위여만 갔다. 몰라보게 꺼져들어간 눈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있었다.

김현무는 터지려는 오열을 꿀꺽 삼켰다. 안된다는 웨침이 혈관을 찢어버릴듯 사품치며 온몸을 돌아쳤다.

《밖에 나가구싶구나. …》

칠성삼촌이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어떻게 삼촌을 굴밖으로 날라갔는지 현무자신도 알수 없었다. 단지 삼촌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꺼져가는 삼촌의 목숨을 어떻게나 붙잡아야 한다는 욕념만이 넋을 사로잡고있을뿐이였다.

땀범벅이 되여 밖으로 나가니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했다.

현무는 굴어구에서 조금 내려가 자리를 잡고 삼촌을 눕혔다.

땅에서 눅눅한 기운이 올라왔다. 씨르륵거리는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창자를 끊는듯이 구슬프다.

괴롭게 숨을 톺으며 밤하늘에 가득찬 별들을 올려다보던 칠성삼촌이 불현듯 곁에 앉은 현무의 손을 더듬어 잡는것이였다.

어둠속에서 삼촌의 두눈이 물에 젖은 돌처럼 번뜩인다. 삼촌은 남은 힘을 모아 현무의 손을 꽉 움켜잡더니 가슴속에서 한마디한마디 힘겹게 말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죽자니 눈을 감을수 없구나. 내 지하에 가서 무슨 낯으로 네 아버지를 대하겠느냐. 형님이 목숨으로 지켜낸 옥새두 찾지 못하구 망국노의 치욕두 씻지 못한 죄많은 이놈이… 어떻게 형님앞에 나서느냐 말이다!…》

원통하게 울리는 칠성삼촌의 목소리가 현무의 폐장을 갈가리 찢는것만같았다.

현무는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눈물로 꽉 찬 목구멍이 금시 터지는것같아 주먹을 입에 눌러대고 깨물면서 울고있었다.

정말 삼촌마저 잃어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도 이렇게 갔으리라 생각하니 가슴에이는 비분을 참을길이 없었다.

그가 두볼로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데 삼촌은 써늘하게 굳어져가는 눈길로 현무를 쳐다보며 마지막말을 남기고 있었다.

《현무야, 부디 아버지의 한을 잊지 말아라. … 이 삼촌이 못한 일을… 아버지가 지킨 옥새를… 옥새를…》

꺼져가는 초불처럼 가늘어지던 목소리가 끊어져버렸다. 현무의 손을 잡고있던 손이 털썩 떨어져내린다. 어둠속에서 불어온 솔바람이 삼촌의 고수머리를 푸시시 흩날리며 지나갔다.

현무는 믿을수 없다는듯 두눈을 흡뜨고 칠성삼촌을 여겨보았다. 혹시 삼촌의 몸 어딘가에 소생시킬 온기라도 남아있지 않는가 하여 얼굴이며 어깨며 팔이며를 정신없이 만져보았다. 그러던 현무의 입이 일그러지더니 그만에야 오열이 새여나왔다.

《삼촌!—》

그는 식어가는 삼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끝내 칠성삼촌은 떠나가고만것이다. 철모르던 시절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준,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르던 삼촌이 홀지에 불이 꺼지듯 세상을 떠나가버린것이다. 모진 상실감과 허탈감이 들물처럼 밀려들었다.

아버지를 빼앗아가고 삼촌까지 앗아간 원쑤들이 저주스럽기 그지없었다. 현무는 터져나오는 통곡을 씹어삼키며 오열에 온몸을 떨었다.

그런 속에서도 칠성삼촌이 남긴 마지막말은 쇠북소리마냥 그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고있었다.

《…아버지가 지킨 옥새를… 옥새를…》

피가 끓어올랐다.

림종의 시각이 닥쳐오고있음을 깨닫자 자기를 불러 아버지가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가를 들려준 삼촌이였다. 점점 빠져나가는 마지막힘을 모아가며 옥새에 서린 사연을 알려주고 숨진 통절한 그 뜻이 흉벽을 쳐왔다. 력사책을 통해서나 아는 정도였던 옥새라는 물건이 이렇듯 비통한 인연으로 자기와 얽힐줄이야.

현무의 젖은 눈망울이 타는듯이 이글거렸다.

더 생각할게 없다. 아버지의 유한이 서린 옥새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칠성삼촌이 바라던대로 옛 황제의 옥새가 나라찾는 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한다면 아버지도 삼촌도 편히 눈을 감지 않으랴!

자기가 해낼수 있을가 하는 망설임은 들 자리가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의로운 뜻을 저버릴수 없다는, 이 땅의 남아라면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는 거센 부름이 현무의 가슴속에 거역할수 없는 메아리를 일으키고있었다.

별찌 하나가 서쪽으로 길게 꼬리를 끌며 피빛이슬을 뿌린다. 북받치는 눈물에 하늘의 별들도 구깃구깃 흘러내렸다.

현무는 무릎을 꿇고 칠성삼촌의 눈을 감겨주었다. …

제 4 장

1926년 가을

1

《생때같던 사람이 그렇게 되다니…》

곽칠성의 비보를 전해듣고 슬픔을 금치 못하던 박상궁이 서글프게 머리를 저으며 하는 말이였다. 손수건을 꺼내 눈언저리를 닦는 상궁의 모습이 처량해보였다.

창밖에서 메마른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맥풀린 가을해살이 방안에 드리운 무거운 침묵에 질린듯 영창가에서 머뭇거리고있었다.

가슴이 꺼지게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눈길을 쳐든 박상궁은 물바랜 검정학생복을 입고 침울히 앉아있는 청년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젊은이가 정녕 김참위의 아들이란 말인가. 김참위의 장렬한 순국에 눈물을 걷잡지 못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의 유복자가 어른이 되여 구리종처럼 듬직한 모습으로 자기앞에 앉아있는것이다.

박상궁은 슬픈 속에서도 격세지감을 금할수 없어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김참위의 아들이 이렇게 다 자라서 선친의 뒤를 잇겠다고 찾아온걸 알면 칠성이 그 사람도 땅속에서 기뻐하련만…》

마음의 아픔을 묵새기는듯한 상궁의 그 말이 단쇠마냥 김현무의 마음을 지졌다.

칠성삼촌을 잃고 피눈물을 삼키며 달려온 이 길이였다.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채 떠나오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마운 외삼촌들에게 송구스러움이 앞서 하직인사조차 변변히 드릴수가 없었다.

허나 구천에 맺힌 아버지의 유한이 뼈에 사무쳤기에, 눈도 못감은 채 숨진 칠성삼촌의 피타는 당부가 귀에 쟁쟁하기에 현무는 울보채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삼촌이 가리켜준대로 박상궁부터 찾아온것이였다.

좀전에 그는 박상궁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아버지의 순국을 헛되게 할수 없다고, 어떻게든 옥새를 되찾아 칠성삼촌이 못다한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현무는 박상궁에게 다시금 절절하게 부탁했다.

《상궁할머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섬오랑캐들이 조선의 마지막옥새마저 욕되게 하는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의분에 끓는 그 말에 감심한듯 박상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하이. 젊은이의 의기를 보니 꼭 김참위가 살아 돌아온것만같구먼. 그렇고말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필경 황제어새도 왜적들의 손에 더럽혀지고말걸세.》

상궁의 얼굴가에 검은구름이 이는듯했다. 오욕의 세월에 얽힌 만단사연을 더듬는지 허공을 바라보는 박상궁의 눈빛이 추연해졌다.

박상궁이 현무의 말을 조용히 외워본다.

《조선의 마지막옥새… 옳으이. 황제어새는 조선의 마지막옥새였지. …》

얼마후 옥새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박상궁의 말소리가 뚝뚝 떨어지는 락수물처럼 띠염띠염 들려오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젊은이도 알겠지만 옥새는 임금의 도장인 동시에 나라의 도장이기도 하기에 국새로도 불리웠네. 당초엔 옥으로 만들어져 옥새라 했지만 후날에 오면서 옥으로 만들었건 금으로 만들었건 임금의 도장은 다 옥새라고 불렀지.

워낙 도장의 의미라는게 얼마나 무거운가. 도장을 찍는다는건 모든 일이 락착됐다는걸 의미하고 책임을 진다는걸 뜻하지. 또 자신의 신분을 증빙하는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로부터 아무리 훌륭한 붓글이나 그림이라도 락관이 없으면 인정을 못받은것이고 부귀한 사람들의 묘에는 도장도 함께 묻군 한거지.

항용 도장이라는게 그런것일진대 하물며 왕권과 국권을 나타내는

도장인 옥새야 더 말할게 있겠나.

옥새는 임금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국내문서와 외교문서에 찍히웠고 왕위를 계승할 때는 나라를 물려주는 징표로 넘겨주었네. 나라님이 거둥할 때도 의장행렬에서 빼놓을수 없은게 바로 옥새여서 8명의 장정이 멘 가마에 거룩하게 실려갔다네.

옥새를 만드는 과정은 또 오죽이나 엄했다고… 전각장이는 궁중의 삼엄한 감시속에서 옥새를 만들어야 했는데 실수라도 하면 가차없이 벌을 받았네. 나라의 앞날에 흠집을 냈다는 리유에서였지. 그래서 정갈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정신이 흐트러지면 일을 멈추고 쉬군 하였네. 또 부정을 타는걸 방지하려고 옥새를 완성할 때까진 외부와의 련계를 일절 차단하군 하였더랬지. 임금의 옥새는 그처럼 지엄한것이였다네.

거슬러보면 우리 나라 옥새의 근원이 얼마나 유구한가. 태고적에 단군시조님의 아버님이신 환웅천왕께서 태백산 신단수밑에 내려오실 때 하늘신이신 환인으로부터 천부인 3개를 받으셨다 하였는데 그 천부인인즉 다름아닌 하늘이 내려준 옥새가 아니겠나.

그처럼 유래가 당당한 조선의 옥새이건만 언제부터였던지 <이소사대>(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만 외워온 조정의 어르신네들은 큰 나라들에서 내려준 옥새를 지녀야 정통의 명분이 선다고 여겨왔네그려. 이를테면 큰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만 임금의 자격을 지닐수 있다는 거지.

참말이지 궁중나인이였던 나로서도 황당하고 억울하게 생각될 때가 한두번만 아니였네. 글쎄 제 나라, 제 백성이 버젓이 있는데야 무엇때문에 옥새고 년호고 남의걸 가져다 쓰면서 굽신거리는가 말일세.

급기야 세상은 상전벽해로 변하여 큰 나라의 은총을 바라며 사대의 례나 읊조리고있을 경황이 더는 없게 되였네. 게다가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자주독립을 고창해나서자 고종황제폐하께옵서는 칭제건원(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년호를 세워 원년으로 삼는것)을 하고 나라이름도 새롭게 바꿔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셨지. 그리되여 옥새도 제 나라에서 만든것을 사용하게 되였네.

내 알기에 그때 새로 만든 상감마마의 옥새는 <대한국새>, <황제지새>, <황제지보>, <칙명지보>, <제고지보>, <시명지보>, <대원수보>, <원수지보> 등 10가지가 넘었더랬네. <대한국새>가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옥새였다면 <칙명지보>는 아래서 올린 안건을 재가할 때 찍는 옥새였고 <시명지보>는 교서나 교지에 찍는 옥새였네.

한가지 덧붙인다면 궁중의 도장들가운데는 어보도 있었는데 어보는 옥새와는 다른것이였네. 옥새가 나라일과 관계되는 공문서들에 실제로 사용되는 도장이라면 어보는 존호나 휘호를 올릴 때라든가 황실의 각종 례식때 례물로 바쳐지고 종묘에 봉안되는 기념용도장이였다 할가. 례하면 순종황제폐하께옵서 해아밀사사건직후 왜인들의 공갈에 눌리워 퇴위당하신 선황제께 <태황제>의 존호를 올리면서 만들게 한 <수강태황제보>라는 어보가 그런것이였지.

그렇게 옥새도 스스로 만들어 쓰고 년호도 자체로 정하고 국호까지 고치면서 자주국행세를 해보려 안깐힘을 다하였건만 안받침하는 국력이 보잘것없는데야 그 모든게 무슨 소용에 닿을고…

어쩔수없이 그전처럼 대국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어느쪽이든 힘센 나라에 붙어 연명하는수밖에. 조정의 중신들은 저마끔 누구는 미국을 업고 누구는 일본을 업고 누구는 또 아라사(로씨야)를 업고 나라 팔아먹는 암거래에 여념이 없는데 그 틈을 타서 큰 나라들은 이 땅의 보화를 뜯어가고도 부족해 겨끔내기로 내정을 엿가락 주무르듯하였네.

역시 팔아먹는데선 고금무쌍의 천재였던 리완용이는 엄청난 묵돈을 받아먹고 경인철도부설권을 미국인이 차지하게 도와주었는가 하면 지어 탁상시계 하나를 뢰물로 받고 일본에 리권을 넘겨준 어이없는 외부대신도 있었다네. 그런가 하면 리용익 같은 일국의 엄연한 대신어른이 왜인들의 비위를 건드린탓에 1년이 넘도록 일본에 랍치되여가 억류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지.

그러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강토가 대국들의 아수라싸움터로 화하고 백성들이 도탄속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끝끝내 사직은 무너지고말았네.

치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국권을 강탈한 왜적들은 국권의 상

징인 상감마마의 옥새들마저 부리나케 손에 넣었네. 룡에게서 여의주를 뺏어낸셈이지.

허나 상감마마께는 왜인들은 물론이고 원로중신들도 모르게 내밀히 간수하신 마지막옥새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황제어새였네. 무도불측한 섬오랑캐들한테 언제 나라를 뺏길지 모르는 긴박한 시절에 상감마마께옵서 은밀하게 만들도록 하여 공문서가 아닌 밀서와 밀지에만 사용하시였기에 <대례의궤>(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과 함께 황제의 옥새들도 수록한 책) 같은 기록에도 남지 않은 비밀옥새였다네.

젊은이에게 뭘 숨기겠나. 고종황제폐하께옵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를 알리고저 미국과 아라사, 영국, 법국(프랑스), 덕국(도이췰란드)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군주며 대통령들에게 보내신 밀서들에는 황제어새가 찍혀있었고 최익현, 민종식, 리강년 같은 의병장들에게 내리신 밀지들에도 황제어새가 새겨져있었네. 그리고… 해아밀사들이 품고 갔던 상감마마의 신임장에도 바로 김참위가 순국의 피를 뿌리며 지켜낸 황제어새가 찍혀있었지. …》

박상궁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현무는 어깨뼈밑이 아파나도록 쿵쿵 울려오는 피의 맥박을 느꼈다. 이 나라의 옥새에 서려있는 파란만장의 사연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세찬 소용돌이를 일으키고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연원을 지닌 조선의 옥새였다.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에 기원을 두고 자랑스럽게 물려오던 이 나라의 옥새는 수천년력사국의 후예임을 자부케 한 바통이였고 단군의 피줄을 이은 혈통임을 확인케 한 신표였다.

하건만 국력이 허줄하고 조정이 변변치 못하니 아무리 지존한 옥새라 해도 나라를 빛내일수도, 지켜줄수도 없었다. 그렇듯 긍지 드높던 조선의 옥새가 칠팔월 수수잎같은 사대무리의 버림을 받아 허구한 세월 력사의 허청간에 구겨박혀있은것도 통분한 일인데 지금은 또 섬나라오랑캐들에게 강탈당하고 유린당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터지는 현실인가.

현무는 마음속의 신들메를 바싹 졸라맸다.

단지 아버지의 유한을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였다. 짓밟힌 조선사람의 존엄을 일궈세우기 위해, 우리 백의동포들을 가리켜 《욥죤》이니 《요보》니 하며 낄낄대는 왜놈들에게 결코 단군의 자손들이 다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고종황제의 마지막옥새만은 한사코 되찾고싶었다.

불같은 집념으로 심장을 짓태우며 박상궁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현무는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옥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집니다. 한데 최가집에서 변사가 나면서 옥새의 행방도 오리무중이 되였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칠성삼촌도 도움을 청하러 이리로 떠났댔는데 그만… 신문을 보니 최가가 살해당한 내막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면서요.》

현무의 말에 박상궁도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나도 그 일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있네만 최가가 횡사한지 보름이 넘도록 귀에 걸리는 소식은 여적 들려오는게 없네. 경찰서에서 최가의 원한관계를 조사한다, 집주변을 뒤진다 하며 야단법석을 피웠건만 여태껏 뚜렷한 용의자를 짚지 못하고있다더구먼. 참, 듣건대 구두닦이애 하나가 붙들려가 초달을 당하다 엊그제 풀려났다던데…》

《구두닦이애가요?》

김현무의 눈섭이 쳐들렸다.

《그러이. 천변(청계천가) 다리밑에서 걸인들속에 끼워 지내는 사내애라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함평에서 올라온 최가가 돈의동에 자리잡았을 때 그 집 대문에다 인분벼락을 들씌웠다질 않나. 그 일로 류치장에 갇혔던 일도 있고 해서 왜경이 용의자로 지목했던듯싶은데 풀려나온걸 보니 별다른 언턱을 잡지 못한가보네.》

박상궁의 말은 현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로 이사온 최박만의 집대문에 인분벼락을 들씌웠다는걸 봐서 최가에 대한 원혐이 이만저만 아닌 사내애같았다. 더구나 최가를 죽인 혐의를 쓰고 경찰서에까지 붙들려갔었다니 모름지기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 사건의 내막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불쑥 사내애를 만나야겠다는 충동이 굴뚝같이 솟아올랐다. 그런데 현무의 그런 심정을 눈치챈듯 박상궁이 먼저 말을 꺼낸다.

《그애에 대해 자상히 알아보겠거든 황아범을 만나보게.》

《황아범이라니요?…》

현무가 어리둥절해하자 상궁이 미소를 지으며 뒤를 달았다.

《이 집에 청지기로 있는 아범인데 그럴만한 연유가 있어서 종로나 천변에 떠도는 류랑아들의 속사정을 얼마간 알고있다네. 나처럼 생각하고 속을 터놓아도 되네.》

그제야 현무는 상궁의 뜻을 깨닫고 머리를 숙여 사례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심껏 가르쳐주시니 어떻게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무의 진심어린 인사에 박상궁은 정색해서 말하는것이였다.

《당치않은 인사네. 우리 같은 웃것들이 못난탓에 얼마나 끌날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나. 오늘 이렇듯 김참위의 아들까지 옥새를 찾겠다고 나선걸 보니 망국노로 덧없이 늙어가는 이 몸이 부끄럽기 그지없네. 허나 젊은이, 부디 조심하게. 왜적들이 눈에 칼을 세우고 노려보는 살판에서 황제어새를 찾는다는게 조련한 일이 아니네. 행여 무슨 기미라도 보이면 혼자서 덤비지 말고 이리로 기별하게. 아무리 왜놈천하라 해도 이 장안에 배달의 얼을 간직한이들이 전부 사라져버린건 아닐세.》

상궁의 목소리에는 서리발같은 한이 어려있었다.

얼마후 현무는 청지기방에서 황로인을 만났다.

황로인은 무던하면서도 올곧아보이는 늙은이였다. 앞서 박상궁에게서 얘기를 들어서인지 로인은 스스럼없는 태도로 현무를 대해주었다.

로인의 말이 경찰서에 잡혀갔던 애는 영남이라는 소년인데 늘쌍 천덕꾸러기로 몰려왔는지라 여느 사람들한테는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그렇지만 천변일대에서 주먹질로 살아가는 조갑수의 도움을 받으면 그애가 속을 줄거라고 황로인은 귀띔했다.

(조갑수?…)

현무가 갑자기 맞다들리는 생소한 정황들앞에서 갈피를 잡으려고 애쓰는데 로인은 자기가 조갑수를 잘 안다면서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들어보니 주먹패들속에서 깡쇠로 불리우는 조갑수는 김현무와 나이가 엇비슷한 청년이였다. 그의 고향은 황해도 곡산의 산골마을이였다고 한다.

경술국치를 당하던 그해 봄날 조갑수네 마을에 왜헌병들이 들이닥치더니 두사람을 끌어내다 산비탈의 소나무들에 묶었다. 그들인즉 조갑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는데 《죄명》은 황해도와 평안도땅을 들썩하게 하는 채응언의병대를 도와주었다는것이였다.

왜놈들은 의병대의 행처를 대라며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자를 혹독하게 란장질했다. 그들이 정신을 잃으면서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자 악에 받친 놈들은 두사람을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도 모자라 시신에 석유를 뿌리고 불질러버렸다.

형체도 못알아보게 숯등걸이 된 시신들을 이웃인 황로인과 마을사람들이 밤도와 수습했다. 한날한시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장례치른 갑수의 어머니는 큰돌을 가슴에 안고 동네우물에 몸을 던졌다. 결국 왜놈들에 의해 일가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것이다.

5살 되던 조갑수와 그의 남동생은 졸지에 혈혈고아가 되고말았다. 그래도 한해가량은 동네사람들의 동정속에 그럭저럭 살아갈수가 있었다. 이웃들이 엇바꿔가며 불쌍한 그들형제를 돌봐주었고 동네어른들은 그래도 장자이니 제문과 지방은 쓸줄 알아야 한다며 갑수에게 동냥글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그러던 이듬해 초봄 왜놈들이 또다시 마을에 달려들었다.

의병 한사람만 자고 갔다 해도 마을전체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도륙내던 왜놈들이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조선에 왔던 한 서양기자까지도 《의병토벌》이라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총을 겨눈채 그의 안해를 륜간하는가 하면 어린애를 살해하고 무고한 촌민들을 목표로 총쏘기내기를 하는 왜군들의 만행을 전해듣고 일본의 부도덕을 소리높여 지탄하였겠는가.

바로 그날도 왜놈들은 의병들을 재워주었다 하여 갑수네 마을을 그렇

게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집들이 재가루가 되고 마을사람들은 죽거나 풍지박산이 되여 흩어졌다. 아비규환의 그 피바다속에서 갑수도 동생을 잃었다. 왜놈들이 사라진 뒤 재더미로 화한 온 동네를 울며불며 찾아 헤맸지만 동생은 시체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어쩔수없이 조갑수는 천애의 몸이 되여 류랑의 길에 떠밀리웠다.

6살의 어린 나이로 헤쳐가기에는 너무도 모질고 험악한 세월이였다. 때로는 다리밑에서, 때로는 외양간의 북데기속에서, 때로는 남의 집 굴뚝밑둥을 어머니품인양 껴안은채 갑수가 보낸 고달픈 밤은 그 얼마였던가.

배가 고파 장터의 음식광주리에 손을 댔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문전걸식을 하다가 개한테 쫓겨 봉변을 당하기도 하면서 철부지소년은 설음속에 자신에게 물어보군 하였다. 여우도 굴이 있고 까마귀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어이하여 자기에게는 등덥힐 집도, 사랑을 나눌 혈육들도 없는것인가.

한번은 허기진 몸을 끌고 정처없이 걸어가다가 사금파리를 박은 어떤 집 벽돌담밑에서 지쳐 쓰러진적이 있었다.

깨여나보니 어느 시골면장집의 행랑방이였다. 그날부터 갑수는 그 집에서 아이머슴으로 살게 되였다.

언제 봐도 처져내린 볼에 욕심만 덕지덕지 게발려있던 면장마누라는 의지가지없는 고아를 임자없는 돌멩이처럼 마구 부려먹었다. 여린 어깨에 산더미같이 꼴짐을 지우는가 하면 오뉴월 뙤약볕아래 호미를 부여잡고 종일토록 밭김을 매게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제 령감이며 새끼들의 오강까지 가셔내게 하면서도 쩍하면 천대하고 욕질하는 면장마누라가 갑수에게는 언젠가 사납게 자기를 쫓아오던 부자집 개보다 더 밉살맞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미운것들은 이따금 면장집에 드나들군 하는 누런똥색군복을 입은 왜놈들이였다.

5살에 고아가 된 갑수에게 있어서 부모들의 모습은 기억속에 아슴푸레할뿐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묶어놓고 악독하게 매질

하던 왜병들의 낯짝은, 고향마을에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죽이고 불사르던 놈들의 악귀같은 그 상통은 소년의 뇌리에 인두그림처럼 인찍혀 있었다.

왜놈군대들을 볼 때마다 갑수의 가슴은 불안과 증오로 떨려나군 하였다. 그놈들의 발바닥도 핥을듯 납신대는 면장내외가 눈꼴사납기 그지없었다.

하여 어느날 갑수는 밥값도 못한다고 구박질하는 면장마누라에게 누룽지접시를 뒤집어씌우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

소년은 또다시 방랑의 길을 이어갔다.

남의 집 타작을 해주고 한두끼 얻어먹기도 했고 날품팔이를 하거나 역전에서 짐을 져다주고 품삯을 받기도 하였다. 사나운 풍파속에 소년은 차츰 거치른 반항아로 커갔다.

짓밟히고 걷어채우고 부딪치며 떠돌아다니다나니 뭐니뭐니해도 주먹이 세야 했다.

그렇다. 오로지 깨뜨리지 않으면 깨져야 하는 주먹밖에 믿을게 없었다. 요행 조갑수에게는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인 단단한 뼈와 근육이 있었다. 모두매를 맞고 졸도한적도 있었고 이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진적도 있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악착스레 맞서 싸웠다.

지면 죽는다는 무자비한 리치를 너무나 일찌기 터득하며 갑수의 어린 주먹은 돌덩이처럼 굳어져갔다. 그렇게 떠돌고 떠돌다가 와닿은 곳이 여기 서울이였다.

흘러와보니 서울장안은 왜놈세상의 온갖 못되고 나쁜것들이 몰려드는 오수구 한가지였다. 인심은 야박하고 가는 곳마다 널려있는건 걸식자들인데 행인의 주머니를 훑으며 지나치는 따기군들과 걸핏하면 트집을 부리는 부랑자들, 사기군, 거간군, 뚜쟁이들이 비좁은 골목길들을 오락가락하며 복새를 놓고있었다.

갑수도 천변의 광통교밑에서 새우잠을 자며 주린 배를 부여안고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고향마을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황로인과 조갑수가 7년만에 다시 만난

곳도 바로 서울의 한 골목에서였다. 왜놈들에게 일가붙이를 잃고 곡산을 떠난 뒤 친척을 찾아 서울로 왔던 황로인은 당시 어느 랭면집의 배달부로 연명해가고있었다.

하루는 황로인이 랭면을 배달하고 돌아가는데 람루한 행색의 사내애 하나가 호떡집앞에서 정신없이 호떡을 먹고있더라는것이다. 어딘가 낯이 익어 눈여겨보니 분명 이웃집 갑수가 아닌가.

한달음에 달려가 사내애를 부여안은 황로인은 한집안처럼 지내던 이웃집 형님내외가 생각나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한다.

로인은 그길로 갑수를 끌고 리발소며 목욕탕에 가서 머리부터 깎이고 제손으로 몸도 씻어주었다. 그리고는 푼푼이 모아두었던 돈으로 새옷까지 사입혔다.

한동안 갑수를 데리고있던 황로인은 두해쯤 지나 다옥정에 위치한 다방옥이라는 설렁탕집의 사환자리를 소개해주었다.

그리하여 조갑수는 서울에 주저앉게 되였다. 처음에는 시다와하지 않던 다방옥주인도 점차 갑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갔다. 그럴만도 하였다.

원래 다옥정은 사옹원(조선봉건왕조시기 궁중의 음식과 식기를 보장하던 중앙관청)에 속한 다방(조선봉건왕조시기 궁중에서 약을 지어 바치던 부서)이 그곳에 있었다 하여 다동 혹은 다방골로 불리우던것을 《합병》후 왜놈들이 뜯어고친 지명이였다.

옛날부터 륙의전과 가까운 다방골에는 상인들이 많이 모여산데다가 주변의 관청들을 노린 홍등가까지 펼쳐져있어 장안에서도 알부자가 많은 곳으로, 무척 약삭바른 동네로 알려져있었다.

어지러운데 구데기 낀다고 장사가 번잡하고 술과 기생이 질번한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주먹패며 부랑배들이 몰려들기마련이다. 다방골일대의 장사치들도 그런 무리들의 시달림속에 장사를 하여야 했고 다방옥주인의 처지 역시 다를바가 없었다.

헌데 갑수를 사환으로 받으면서 툭하면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가던 놈팽이들의 야료질이 눈에 띄게 뜸해지는것이 아닌가. 다름아닌 조갑수의 주먹덕이였다.

어떻게 된건지 암만 힘이 항우같고 덩치가 큰 상대도 갑수가 번개마냥 주먹을 날리면 허망하게 뻥뻥 나가떨어지는것이였다. 몸이 워낙 날래기도 하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지독한 심지와 싸움도 하기 전에 상대를 제압하는 매서운 눈초리, 단호하고 결패사나운 선손쓰기며 순식간에 급소를 들이치는 맵짠 솜씨는 다른 적수들이 따라오기 힘든것이였다.

구경군들은 조갑수의 싸움이 싱겁다고들 했다. 주먹질이든 발길질이든 대개 한방이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뻗어버렸기때문이였다.

《다방골 깡쇠》에 대한 소문은 주위로 자자하게 퍼져갔다. 멋모르고 설쳐대던 부랑배들이 하나둘 꼬리를 내리더니 서뿔리 다방옥을 넘보려들지 못했다.

일이 그쯤되자 주인은 갑수의 월급을 올려준다, 숙식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하며 신주 모시듯하였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부랑배들의 성화만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다싶이 하였다. 결국 갑수는 주먹으로 호구지책을 해결한셈이였다.

다방옥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자 조갑수는 오직 몸단련에만 정열을 쏟았다. 주먹세계에서의 패배자는 락자없이 도태되는 법이다.

그것을 잘 알고있던 그는 매일같이 들돌과 철봉으로 힘을 키웠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권투와 유술수법을 익혔다.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가져다놓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련마했는가 하면 동작의 민첩성을 숙련하기 위해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한테 돌멩이질을 하게 하고는 피하는 련습을 하기도 했다. 17살에 이르자 그는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주먹군으로 떠올랐다.

갑수는 은원관계가 분명했다.

신세를 지면 꼭 갚았고 원쑤진 일이 있으면 리자까지 덧붙여 철저히 갚았다. 그가 북촌의 조선인패들과 남촌의 일본인패들사이에 터싸움이 터졌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어디든 달려가 쪽발이들을 짓패주군 한것도 가슴속에 피멍으로 맺혀있는 왜놈들에 대한 원한때문이였다.

하면서도 갑수는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사내는 의리와 옳

은것을 위해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는 자기딴의 신조를 가지고있던 그는 약한자를 괴롭히지 않았고 부정한 돈은 만지려 하지 않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천변일대는 물론이고 장안의 주먹개나 쓴다는치들은 그를 조심스레 대했고 영남이 같은 류랑아들까지도 갑수를 형님으로 따르며 섬겼다. 때로 주먹패들이 자기네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추파를 던지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갑수는 단마디로 거절해버리군 하였다. 남에게 구속되는것을 죽기보다 싫어한 그는 남의 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자기 밑에 부하들을 두고 두목노릇을 하려들지도 않았다. 다만 의기가 통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독수리처럼 외로와도 자유로이 훨훨 날아예고 싶을뿐이였다.

그의 그런 직성을 모르지 않기에 주먹패들도 성가시게 권할념을 안했고 쓸데없이 그를 건드려 골치거리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주먹질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속이 께름했었는데 황로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현무는 조갑수에 대해 믿음이 생기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왜놈들에게 일찌기 부모를 빼앗긴 래력으로 보나 혈혈단신으로 인생고초를 헤쳐오면서도 대바름을 잃지 않은 됨됨이로 보나 만나면 인츰 말이 통할것같았다. 나이도 엇비슷하고 서울바닥도 손금같이 꿰뚫고있는 그에게서 혹 요긴한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현무는 조갑수를 만나보기로 작정했다.

그날 김현무는 박상궁의 소개로 삼청동에 있는 상궁의 친척집에 하숙방을 잡았다.

2

탑동공원이다.

밤도 어지간히 깊어진무렵, 과일장수들의 싸구려소리가 시들히 들려오는 공원뒤문으로 여라문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섰다. 위세를 부리느라 어깨를 흔들대는 꼴들이 항간에서 어깨패로 불리우는 패거리가 분명했다.

사나이 하나가 인적이 끊어진 공원안의 어둠속에서 천천히 나온다.

박달나무같이 튼튼해보이는 청년이였다. 로동복저고리는 기세좋게 열어제꼈는데 넘쳐나는 힘을 과시하듯 울퉁불퉁한 근육들이 속샤쯔를 팽팽하게 채우고있었다.

조갑수였다.

갑수는 한쪽눈을 찌붓한채 공원으로 들어오는 패거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패거리의 맨 앞장에서 후렁후렁한 양복을 걸친 거구의 사내가 입가에 늘어지게 물주리를 걸터문채 걸어오고있었다.

량귀가 벗겨진 이마, 버그러진 주독코, 장독에 절구었댔나싶게 꺼무뎅뎅한 낯빛… 가로등불빛에 드리운 사내의 커다란 그림자가 거쿨진 몸집을 더욱 어망처망하게 부풀렸다.

갑수의 얼굴에 피기가 치솟았다. 《말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사동 주먹패의 두목이 틀림없었던것이다.

갑수보다 10년나마 우인 《말곰》은 한손으로 승합차를 쳐들만치 기운세기로 장안에 소문난 힘군이다. 게다가 주먹으로 상권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조선극장이며 천향원, 동아식당 같은 한다하는 곳들에서 다달이 용돈을 받아먹는것으로도 모자라 종로야시장의 싸구려장수들한테서까지 꼬박꼬박 자리세를 뜯어내다나니 제법 웬간한 부자 뺨칠 정도로 거드럭대는자였다.

그렇게 힘세고 배부른자가 오늘 천변거지애 몇이 자기패의 관할구역에

서 어정거린다고 수족들을 내몰아 복날 개패듯했다는게 아닌가.

조갑수는 가슴팍이 벌어지도록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 두손을 호주머니에 찌른채 패거리를 향해 걸어갔다.

공원 한가운데 서있는 팔각정옆의 너른 터에서 그는 패거리와 마주섰다.

《어이 깡쇠, 니가 우리 헹님 보자 캤노?》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쳐바른 졸개 하나가 까부는 수작이였다.

갑수는 귀구멍을 우비며 《말곰》앞에 다가섰다. 《말곰》은 두다리를 집게처럼 벌리고 서서 느물느물 담배연기를 뿜어대고있었다. 물주리가 데룽데룽 매달려있는 그자의 입가에 건방진 조소가 실려있었다.

갑수는 이발사이로 침을 찍 내갈기고나서 《말곰》에게 씨까슬렀다.

《형님, 내 형님한테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주먹이라는게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써야지 배가죽이 등에 붙어가지구 다리밑구멍에서 거적때기 깔고 자는 애들을 꽝꽝 치니 암만 형님이래두 존대할수가 없어. 내 오늘 당신 좀 때려야겠다!》

말이 끝나기 바쁘게 갑수의 두눈에서 번개줄기가 쏟아지는듯하더니 모둠발로 확 뜨면서 《말곰》의 턱주가리를 냅다 걷어차버렸다. 그 서슬에 황소같은 거구가 헉! 하며 썩돌마냥 나가떨어지는것이 아닌가.

몸집이 클수록 턱이 약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허우대좋은 상대도 턱을 면바로 맞고 썩은 나무처럼 단번에 넘어가는것을 갑수는 여러번 경험했었다. 중요한건 선손을 쓰는것이였고 그러자면 담통이 크고 날매같이 빨라야 했다.

《말곰》이 몸을 일으키려고 끙끙거린다. 그 눈빛에서 반항의 기미를 읽은 갑수는 가차없이 발길을 날려 그자의 미간을 내리찍었다. 《말곰》은 비명 한번 못치고 기절해버렸다.

《이 개새끼 뒈질라꼬 환장했나!》

포마드를 쳐바른자가 발길질을 하며 날아들었다.

순간 갑수는 몸을 낮추었다가 일으키며 공중에 뜬자의 왼쪽다리를 어깨로 툭 건드렸다. 그와 함께 오른쪽에서 달려드는자의 턱을 오른주먹으로 올려치고 왼쪽에서 접어드는자의 아래배에 왼발세례를 안겼다.

공중에서 헛발질을 한자는 갑수의 어깨에 걸려 허궁잡이로 처박혔고 량옆에서 달려들던자들도 예상치 못한 타격에 풀자루처럼 주저앉아버렸다.

숨돌릴새없이 등뒤에서 살기가 덮쳐든다. 갑수는 몸을 틀어 찌르려드는 비수를 재빨리 피했다. 동시에 바람을 가르며 그의 매서운 주먹이 달려드는자의 관자노리를 드세게 짓조겼다.

단판에 갑수의 주먹과 발길에 다섯이나 나가너부러지자 남은자들은 감히 달려들 엄두를 못냈다.

갑수는 맹수같은 눈찌를 살차게 휘두르며 패거리의 말투를 본따 을러멨다.

《니들두 정의의 주먹맛 좀 보겠니?!》

다들 기가 질려 고양이앞의 쥐상들이다. 갑수는 척척히 땀이 내밴 잔등을 씰룩이고나서 눅잦은 어조로 훈시했다.

《나두 주먹으로 먹고사는 놈이다만 너들처럼 그렇게 치사하겐 굴지 않는다. 암만 인정사정 모르는 이 바닥이래두 경우가 있어야지 제배만 불리겠다구 어미잃은 송아지같은 불쌍한 애들까지 들이패는게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사내새끼들이란게 패겠거들랑 약한 사람 못살게 구는 나쁜 놈들이나 패주란 말이다. 너들 또 한번 천변애들 다치면서 설쳐댔다간 이 깡쇠한테 죽는 날이다! 알아들었지, 이 새끼들아?!》

《예, 형님.》

조갑수의 벼락같은 으름장에 다들 대가리를 조아린다.

주먹센 놈이 어른인게 이 마당의 생리다. 갑수는 쓴웃음이 나갔다.

길거리쪽에서 호르래기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오는 모양이다.

갑수는 패거리더러 너부러진자들을 거두라고 이른 뒤 공원을 빠져나왔다. …

벌써 한시간이 넘었다.

김현무는 다방옥의 2층구석에 있는 조갑수의 방에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아래층의 객방들에서 들려오던 수선스러운 소음도 한결 즘즛해졌다.

골목길의 외등이 조는듯 뿌연 빛을 흘리는데 그밑으로 지쳐보이는 고학생 하나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양이 눈에 띄웠다. 이따금 큰길쪽에서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느른하니 들려온다.

그나저나 이 시각 현무의 머리속에 회오리치고있는것은 조갑수를 만날 생각뿐이다.

갑수가 밸머리는 사나와도 단단히 일러놨으니 힘닿는껏 도울거라는 황로인의 말을 듣고 찾아왔건만 미타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다.

한갖 주먹군에 불과한 조갑수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도 될가. 잃어버린 나라의 옥새를 찾는 일이 놀음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라도 다른 방도를 찾아보는게 어떨가. …

현무는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우려감들을 도리질로 날려보내군 하였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최가가 죽은 내막을 알아볼 한가닥의 실마리가 영남이라는 사내애한테 있으니 한시바삐 그애의 속을 열기 위해서라도 조갑수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왜서인지 현무는 갑수와 생각외로 뜻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을 지워버리고싶지 않았다.

단지 낯설은 타관객지에서 만난을 뚫고나가야 한다는 긴장감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만이였을가. 아니, 그보다 조갑수도 자기와 다름없이 원쑤 왜적들에게 골육을 빼앗긴 불운아가 아닌가. 그도 의로움을 열망하고 비루함에 침을 뱉는 이 땅의 사내이기에 뜻을 나눌수 있을거라고 현무는 믿고싶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걸가?)

현무는 안달아나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창가에서 물러났다.

다방옥주인의 선심으로 조갑수가 혼자 쓰고산다는 이 방은 누비돗자리를 깐 크지 않은 방이였다. 세간이라야 별로 눈에 띄우는것은 없고 붙박이장과 방석 몇개, 밥상 겸 책상으로 쓰는듯한 앉은뱅이상과 화로에 얹힌 무쇠주전자가 전부였다.

하늘을 지붕삼아 동가식서가숙하던 류랑시절의 습관인지 방주인은 자물쇠를 거는 법이 없고 그래서 길가에서 떠돌던 류랑아들까지 주인없는 방에 무간하게 들어와 기진한 몸을 쉬우고 간다고 한다.

현무의 눈길은 방 한켠에 놓여있는 앉은뱅이상우에 가멎었다. 재털이곁에 삐뚤서하니 겹쳐있는 얄팍한 책자들이 아까부터 유표히 눈길을 끈다.

《흥부전》과 《전우치전》이였다.

순 우리 글로 되여있고 값이 고작 6전이여서 일명 《륙전소설》이라 불리우는 저런 이야기책들은 시골장터에도 흔한것이지만 갑수 같은 주먹군의 방에서 보게 되니 처음엔 신기한 생각까지 들었었다.

황로인의 말이 조갑수가 학교는 못다녔어도 동냥글은 착실히 배워 국문을 깨치고 책을 가까이한다더니 정말인것같았다.

그러고보면 그저 주먹 하나만 휘두르며 살아가는 친구는 아닌듯싶다. 밖에 나서서는 거치른 세상과 맞서 불범처럼 사납게 날뛰다가도 들어오면 옛이야기책들을 뒤적거리며 제나름의 상념에 잠기군 할 조갑수의 유별난 속내가 자못 궁금스러웠다.

현무가 이제나저제나하면서 초조히 기다리는데 마침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대살진 체격의 사내 하나가 들어섰다.

성칼진 사내의 눈찌가 끌날처럼 현무의 얼굴에 날아와 박힌다.

치째진 두눈, 날카롭게 끊긴 인중과 가느다란 입술, 약간 구불사한 다부진 체격… 첫눈에도 만만치 않은 인상이다.

그가 바로 조갑수임을 알아본 현무는 반색하며 인사말을 건넸다.

《아, 조형이군요. 김현무라고 하오. 주인없는 방에 이렇게 들어와있어 미안하오.》

허나 조갑수는 경계의 빛을 풀지 않는다. 현무가 설명을 달았다.

《박상궁댁 황로인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소.》

그런데도 갑수는 들은체만체하더니 힝하니 바람을 일구며 앉은뱅이상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책자들을 밀어놓고 자리도 권하지 않은채 상우에 되는대로 걸터앉는것이였다. 갑수가 잡아채듯 재털이를 끄당겨놓고 담배 한대를 붙여문다. 황달이 든것같은 누르끼레한 전등빛아래로 독한 담배연기가 자욱하니 퍼져갔다.

첫 대면치고는 너무 무례한 태도였다.

현무는 당황해나 상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분명 황로인과 얘기가 있었겠는데 어째서 저렇게 랭랭하게 나오는가? 주먹군들의 초면인사라는게 워낙 저런건가?

시작부터 밀려선 안되겠다는 승기가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었다. 제잡담 방석 하나를 집어 방 한가운데 놓은 현무는 주인을 마주보며 무릎깍지를 끼고 앉았다.

갑수는 그러는 현무를 힐끔 살펴보았다. 고집통인양 두드러진 이마며 열기가 서린 눈빛이 여간내기가 아닐것같다.

아닌게 아니라 이미 아저씨(황로인)로부터 김현무라는 학생이 찾아갈테니 아무쪼록 도와주라는 당부를 받은 조갑수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저씨의 당부인데 어찌 모른다 하랴.

하지만 기나긴 방랑생활과정에 이지러지고 거칠어진 갑수에게는 누구든 처음 만나는 상대라면 무작정 엇드레부터 걸며 성미를 부리려드는 괘꽝스러운 습벽이 있었다. 더우기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한이 가슴에 못박혀서인지 학생이거나 책상물림을 만나는 경우에 그러한 괴벽이 보다 우심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색날은 학생복을 입고있지만 어딘가 마구 대할수 없는 리지와 자존심이 엿보이는 현무를 만나고보니 아무리 아저씨가 보낸 사람이라 해도 고질로 굳어진 성깔머리가 살아나는것을 누를수 없었다.

얼마동안 장난치듯 담배연기로 동그라미를 그리던 갑수가 불쑥 퉁명스레 물어왔다.

《영남인 왜 만나겠다는거요?》

현무는 가슴이 풀떡거렸다. 그러니 황로인에게서 용건을 듣긴 들은 모양이다. 하건만 조갑수도 그가 영남이를 만나려는 진짜목적은 아직 모르고있을것이다.

그럴수밖에. 왜놈들의 독사눈에 걸려들어서는 안되는 이런 중하고도 위태로운 일을 어떻게 서뿔리 입밖에 낼수 있겠는가.

현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돈의동의 최박만씨한테 물건을 저당잡힌게

있소. 한데 얼마전에 최씨가 변고를 당해 불귀객이 되구 물건도 종적을 감췄다는게 아니요. 최씨한테 저당잡힌 물건으로 말하면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집안의 가보여서 꼭 찾아야만 하는것이요. 그래서 속을 썩이고 있더랬는데 그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혀갔던 애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에 한번 만나 얘기라도 들어볼가 해서 그러는거요.》

갑수의 두눈에서 얄망궂은 불신의 빛이 펀뜩였다. 상대가 진실을 숨기고있다는것을 그는 대번에 알아차렸다.

갑수는 빈정대듯 중얼거렸다.

《그런 일이라면 경찰에 직접 청을 넣어보는게 더 나을것같은데…》

현무는 말문이 막혔다. 단순한 거래관계나 채무상의 문제라면 조갑수의 말대로 해도 탈잡힐것은 없었던것이다.

현무는 간단히 설명할수밖에 없었다.

《경찰에 알려지면 시끄러워지는 물건이 돼놔서 그러오.》

그러자 조갑수가 한걸음 더 비집고 들어온다.

《무슨 물건인데?》

쏘는듯한 그의 눈찌가 끌날같이 날카롭다.

현무는 바싹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황로인과 혈육이나 다름없다는 친구가 왜서 이리 지꿎게 나오는것일가? 뭔가 미더워보이지 않아서인가? 그래도 모든걸 그대로 털어놓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착잡한 생각들이 현무의 머리속에서 뒤얼크러졌다.

이윽고 짤막한 대답소리가 울렸다.

《그건 말할수 없소.》

현무의 대답에 갑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둘러치려 하지도 않고 직바로 말할수 없다고 하는걸 봐선 고지식한 책상물림이 헨둥했다. 하지만 되려 그런 당당한 태도가 갑수의 심사를 더욱 부르트게 했다.

건방진 자식, 자긴 먹물개나 먹었구 난 막 굴러먹는 놈이니 더이상 알려들지 말라는거지.

조갑수는 담배꽁초를 짓눌러 끄며 쥐여뿌리듯 내뱉았다.

《그럼 나두 딴 도리가 없지.》

천정을 쳐다보며 아닌보살하는 그의 얼굴에 내 알게 뭐냐는 식의 비웃음이 흔들거리고있었다.

이런 정황에 부딪치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현무였다.

어찌할가? 사연을 숨김없이 얘기해줄가? 아니, 이제 겨우 초면에 불과한 상대를 어떻게 믿고 그런 중대사를 터놓는단 말인가. 그러다가 옥새를 찾는다는것을 왜놈들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시작도 떼기 전에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말것이다.

한편 그런 위구심에 못지 않게 정말로 조갑수를 그리도 믿을수 없을가 하는 회의심도 솟구쳐올랐다.

모진 세월탓에 성미는 저렇게 험궂어도 왜놈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빼앗긴 원한을 너무도 어린 가슴에 새겨넣은 친구가 아닌가.

옥새를 찾을 첫 실마리를 잡는가 못잡는가 하는 이 시각 김현무는 용기를 내여 결심하여야만 했다.

현무는 무릎깍지를 낀 두손을 비틀어짜듯 꽉 맞잡으며 말했다.

《조형, 날 좀 도와주오. 지금 내가 조형한테 말할수 있는건 그 물건이 왜놈들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되는 귀중한 물건이라는것뿐이요.》

조갑수의 눈섭이 꿋꿋해졌다. 그는 굳어진 눈길로 혈조가 번진 현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즉 왜놈들과 죽기로 맞서야 하는 일이라는건가.

머리속이 재털이속처럼 어수선해졌다. 한낱 책상퇴물로 얕보았던 상대가 이처럼 배짱두둑한 자식일줄이야.

그제서야 갑수는 아저씨가 여느때없이 정색한 낯빛으로 신신당부하던 까닭을 짐작할수 있었다.

금시 어깨가 졸아드는것같았다.

저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눈빛을 가진 학생앞에서 자기가 더없이 옹졸하고 쪼쪼한 약자로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약하기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자존심을 만족시키려 승벽을 부리는것이고 약하기때문에 허세를 치며 진심앞에 속을 열어보이기 주저하는것이 아니랴.

갑수는 쓰거운 모멸감을 꿀꺽 삼켰다. 그럴수록 더욱 오기가 치밀어오르는데 김현무의 절절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조형이 왜놈들때문에 어려서부터 피눈물을 많이 흘려왔다고 들었소. 나도 왜놈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몸이요. 조형, 조형도 나라를 빼앗고 혈육을 빼앗아간 왜놈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하겠는데 어떻게 달리야 살수 있겠소.》

《걷어치워!》

조갑수가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그는 속이 뒤틀려 씩씩거리며 사납게 반말지거리를 하였다.

《그따위 소린 간뗑이가 배밖으로 튀여나온것들한테나 가서 해라. 난 시끄러운 놀음엔 말려들기 싫어. 긴소리 말구 썩 사라져!》

매몰차게 방문을 턱짓하는 갑수의 모습을 현무는 아연히 지켜보았다. 실로 뜻밖이였다. 자기가 기대를 걸고 찾아온 인간이 고작 저 정도의 못난이였단 말인가. 애써 쌓았던 믿음의 뚝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나가는 허전함에 가슴이 허우룩해졌다.

현무는 거칠고 고집세며 역정과 랭소로 뒤틀려있는 갑수를 다시금 설복하려들었다.

《조형,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오. 2천만 우리 동포가 왜적들의 총칼에 어육으로 화하고있는 이때 조선의 사내로 태여나 뒤골목에서 주먹질이나 하면서 살아가야겠소? 부모님들이 아셨다면 뭐라 하시겠소?》

갑수의 치째진 두눈에서 번개가 일었다. 그는 용수철마냥 튀여일어나며 화가 치받쳐 부르짖었다.

《닥치지 못해! 같잖게 누구더러 훈시질이야. 오냐, 난 주먹질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놈이다. 하지만 어느 놈두 날 깔보지 못해! 감히 날 짓밟게 안놔둔단 말이야!》

김현무의 심장이 써늘하게 식어들었다.

그러니 자기가 짓밟히는건 참지 못해도 겨레가 짓밟히는건 참아넘길수 있다는거지. 용렬한 자식! 한갖 무뢰한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터무니없는 미련을 품었었다고 생각하니 분한 감정이 목굽까지 치밀어올랐다.

현무는 어금이를 으스러지게 깨물며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속에서 울끈거리는 산같은 밸을 힘겹게 억누르며 그는 조갑수를 향해 물었다.

《도대체 혼자서 몇명이나 자신있기에 그리 큰소리요?》

그러자 송진덩이에 불붙듯 조갑수가 불끈했다.

《뭐야?!》

갑수는 당장 칠듯이 현무앞에 다가서더니 비틀린 입술에 랭소를 띠우며 씹어뱉았다.

《지금 날 놀려대는거야? 임마, 너까짓 샌님나부랑이들은 단번에 열댓두 문제없다. 알아들었어?!》

다음순간 철썩! 하는 야무진 소리가 방안을 흔들었다.

현무가 불이 번쩍 나게 조갑수의 귀싸대기를 후려갈겼던것이다. 천만뜻밖의 봉변에 갑수가 망두석처럼 굳어져버렸는데 강쇠를 두들기는것같은 서리찬 소리가 현무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시시하다! 사내대장부가 한번 주먹을 쥐면 2천만의 박수갈채를 받아야지 기껏 열댓정도나 패면서 으시대?! 넌 코흘리개보다도 못하다!》

혐오의 빛이 펄펄 끓는 현무의 모습을 갑수는 어이없이 바라보았다.

(이런 맹랑한 자식 봤나. 이 장안바닥에서 감히 날 치는 놈이 다 있다니.)

맞았대야 별로 아프지는 않았다. 주먹질을 할줄 모르는 풋내기라는게 대번에 알렸다. 홍두깨가 뻗쳐올랐다.

조갑수의 낯빛이 시꺼멓게 질리고 매맞은 귀뺨이 씰룩씰룩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주먹이 날아갈건 뻔한 순서였다.

헌데 이상했다. 갑수가 움직일념을 않고 찌를듯이 현무를 노려보기만 하는것이였다.

생각해보니 학생의 말이 그른데 없었다.

왜놈들과 그 삽살개들이 가는 곳마다 살판을 치고 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세월에 코구멍만한 뒤골목에서 주먹자랑이나 하는 자기가 무슨 사내랴싶었다.

당장이라도 가슴을 뻐개고 쌓이고쌓인 울분을 와락 쏟아놓고싶었다.

온갖 증오스러운것들을 닥치는대로 부시고 쳐갈기고싶은 충동에 주먹이 덜덜 떨려났다.

하건만 어쩔 도리가 없어 갑수가 씨근덕거리기만 하는데 김현무의 목소리가 쇠소리마냥 귀전을 때렸다.

《난 가겠다! 다신 너 같은 졸장부와 마주서지 않을테다!》

현무가 결차게 이 말을 내던지고 문쪽으로 향하는데 성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서라.》

돌아보니 백지장같이 창백해진 조갑수가 그 자리에 서있었다. 가느다란 그의 입술이 피나도록 악물려있었다.

갑수는 괴롭게 갑자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짓적게 현무에게로 다가왔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슬며시 손을 내밀며 중얼거리는것이 아닌가.

《우리 친구가 되자.》

현무는 저으기 놀라며 갑수의 두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고달픈 방황과 모대김에 흐려진 그 눈빛에서 현무는 사나이의 투박한 진정을 느낄수가 있었다. 몸안에서 뭔가 뭉클하고 치솟는듯했다.

이윽하여 현무도 묵묵히 손을 내밀었다. 굳게 마주잡은 두사람의 손을 통해 우정이라 부를만한것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터놓으며 온밤을 함께 지새웠다.

사람들은 슬프고 쓰라린 기억을 타인에게 좀처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아픔을 나눌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한다.

너무나 때이르게 부모들을 여의고 서러움과 원한속에 잔뼈가 굵어온 두사람은 엇비슷한 처지로 하여 인차 스스럼없이 흉금을 헤쳐놓는 막역지우가 돼버렸다.

갑수는 주먹을 흔들어보이며 현무앞에서 일장선언을 하였다.

《이제부텀 자네 일이자 내 일이다! 이 조갑수는 다른건 몰라두 의리 하나만은 목숨만치 여기는 놈이야!》

갑수는 자기가 현무보다 2살우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도리질을 치는것이였다.

《2살 차이가 무슨 대수야. 듣자니 5살 차인 친구벌이구 10살 차인 형제벌이구 20살 차인 부자벌이라는데 우리두 편하게 말을 놓자구.》

친구를 얻은 기쁨에 호기를 부리는 그 말을 듣고 현무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저것 책을 주어 읽어서인지 얻어들은 풍월도 여간 아닌 갑수였다. 싸움끝에 정든다는게 이런 경우인가.

김현무는 그날 갑수로부터 영남이에 대해서도 듣게 되였다.

《영남인 올 들어 13살이네. 몇해전엔가 종로야시장엘 나갔다가 복새판에서 지짐장수할머니의 염낭을 따내는 애녀석을 발견했더랬지.

도둑한테두 도라는게 있다는데 늙은이의 염낭에 손을 대다니. 난 대번에 그 따기군애를 붙들어 번쩍 쳐들었네. 한데 그녀석 어찌나 여위였던지 짚검불만치 가볍더라구.

왜 그런지 가슴이 찔려서 난 그앨 도루 내려놓구말았네. 그길로 따기군앨 설렁탕집에 끌고 가서 설렁탕을 실컷 먹였지. 그애가 바로 영남이였네.

들어보니 영남인 전라도 함평이 고향인데 짜개바지적부텀 최박만이란 이름을 원쑤처럼 들어왔다더군. 그 최가라는 두상태기 더럽긴 칙간 한가지더라구.

한때 최가가 동척농장에서 농감질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척이 삼킨 진펄을 개간하려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주민들을 모집했다누만.

당최 최가는 이주민들을 모집하면서 진펄을 개간하면 영구소작권을 주구 개간비용두 동척이 부담하는건 물론이구 개간후 3년동안은 소작료두 면제해준다구 찰떡같이 약속했다나. 영남이 아버지두 최가의 그 꾀임수에 넘어가서 가족들을 이끌구 신풀이공사장으로 갔다더군.

한데 이주민들이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2년만에 논을 다 풀어놓으니까 그 두상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댔냐는듯이 손바닥을 발딱 뒤집었다는게 아니겠나. 개간비를 주기는커녕 되려 선대해준 농량마저 리자를 붙여 받아내면서 첫해부터 소작료를 절반이상이나 타작해갔을뿐더러 불복하면 소작권까지 사정없이 뺏았다는거야.

그제서야 이주민들은 동척의 왜놈들이 최가같은 삽살개들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을 간악하게 속여먹었다는걸 깨달았지.

영남이네 부모들두 가슴을 쳤지만 이놈의 세상에서 별도리가 있나. 왜놈들한테 잘 보인 최박만이 지주가 되였을 때 이주민들은 옴짝달싹 못하구 동척에 채무농으로 묶이였구 최가의 재산이 불일듯 늘어갈 때 농군들의 빚구뎅이는 점점 깊어져서 빚값에 땅과 집을 떼우는 농가들이 늘어만 갔다누만.

신풀이공사가 끝난지 이태쯤 되였을 때 영남이네 집에두 차압딱지가 붙었네. 그전에 영남이 아버지가 신풀이를 하느라구 최가한테서 30원인가를 얻어썼는데 4년동안 리자가 새끼를 쳐서 100원을 훨씬 넘어섰다는거야.

억이 막힌 아버진 최가한테 달려가서 개간비는 저들이 다 부담한다구 사탕발림소릴 하던게 언젠데 등뼈가 휘게 논을 일군 대가로 집까지 뺏느냐구 대들었다더군.

그러니까 최가가 대뜸 순사를 불렀다질 않나. 아버지는 순사놈들한테 붙들려가서 만신창이 되게 두들겨맞았네. 집에 실려와서 아무것두 입에 못댄채 물만 몇모금 받아마시던 영남이 아버진 사흘만에 숨을 거뒀다누만.

지금두 영남인 꿈에서 종종 보군 한다더군. 아버지의 시체앞에서 머리를 풀어뜨린채 목놓아 울부짖던 어머니의 얼나간 모습을 말이야.

졸지에 가장을 잃구 집과 땅을 떼운 영남이네 다섯 형제는 어머닐 따라 빈 바가지를 들구 이리저리 방랑하기 시작했네. 그러다가 영양부족에 걸려 병을 만난 어머니는 거적두 덮지 못한채 저세상으로 갔구 영남이의 세 형들두 염병에 걸려 어머니의 뒤를 좇았다더군. 나중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였던 누이마저두 먹을걸 구하러 나갔다가 종시 돌아오지 못했구.

막내였던 어린 영남인 험한 세상에 혼자 내던져졌네. 어떤 땐 빌어먹기두 하구 어떤 땐 훔치기두 하면서 먹을걸 찾아 향방없이 헤매다니던 그애는 서울의 배오개장거리에서 소매치기패에 걸려들었구 결국 따기군이 되고말았다네. 허, 세월이 도적을 만든셈이지.

난 본래 따기군이나 날치기따위들은 사내치부를 하지 않았더랬네. 사

내로 태여났으면 도둑질을 하더라두 사내답게 할노릇이지 치사하게 남의 호주머니나 몰래 뒤지다니. 그래서 난 따기군이나 좀도둑들이 걸려들면 갑절 더 혼쌀내주군 했더랬지.

한데 그날 붙든 영남이한테만은 차마 그럴수가 없더라구. 얘길 들어보니까 막돌처럼 굴러온 그애의 처지가 나랑 별반 차이가 없더란 말이야.

영남일 보니 고향에서 잃어버린 동생생각이 났네. 그때 왜놈들 손에 죽지 않구 살아났다면 필경 내 동생두 영남이처럼 소매치기나 거지가 돼서 헤맬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구.

난 그날 영남이더러 또다시 그런짓을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구 단단히 으름장을 놨네. 그리구 소매치기패 두목을 만나서 영남일 건드리지 말라구 오금을 박아놨지. 며칠이 지나 난 구두닦기통을 하나 구해서 영남이한테 갖다줬네. 제힘으로 벌어먹고 살라구 말이야.

그때부텀 영남인 구두닦이가 되였구 성가실만치 날 따르기 시작했지. 어느 정도 성가시게 굴었냐 하면 말이야. 언젠가 내가 남촌의 왜놈패와 싸우구 류치장에 들어간적이 있더랬는데 글쎄 그녀석이 따기질을 하다가 걸려들어서 뒤따라 들어오는게 아니겠나. 당장에 내가 또 그짓을 했느냐구 눈을 부라리니까 녀석이 하는 말이 형님과 같이 지낼라구 우야 왜놈순사의 호주머닐 털다가 붙들렸다는거야. 하하, 그러구보면 고생꾸러기로 살아오긴 했어두 아직 순진한 구석두 쬐끔 남아있는 놈이야.

아마 정에 주렸던 녀석이 돼서 그러겠지. 하지만 그런 영남이두 제게서 가족을 뺏아간 원쑤들만은 골수에 사무쳐있더라니까.

그 최박만인가 하는 두상태기가 서울로 이사와서 돈의동의 고래등같은 기와집에 틀고앉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분김에 그 집 대문에 똥벼락을 들씌운것두 바로 그래서였지. …》

갑수의 이야기를 듣는 현무의 가슴속에서 매운 바람이 불었다.

자기의 원한이자 조갑수의 원한이고 영남이의 원한이였다. 정녕 이 땅의 굽이굽이마다에는 얼마나 많은 설음과 한이 서리서리 얽혀있는것인가.

현무는 식민지청년의 두어깨를 짓누르는 망국노의 무거운 짐을 고통스럽게 느끼고있었다. …

다음날 아침 갑수는 전갈을 보내 영남이를 불렀다.

영남이는 코등에 다문다문 주근깨가 박힌 소년이였다. 갑수가 인제부터 현무를 형으로 알라고 말하자 소년은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씽긋 웃더니 현무가 묻는대로 대답하는것이였다.

영남이가 최가를 살해한 용의자로 끌려가 겪은 고생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였다.

왜경들은 소년의 코에 고추물을 쏟아부으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라고 강박하다 못해 제놈들이 손씻은 더러운 물 한 대야를 선자리에서 통채로 마시게 했다. 그래도 소년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끝까지 뻗대자 놈들은 시퍼렇게 날이 선 단도 한자루를 내보이며 네것이 아니냐고 따져묻더라는것이다.

《단도라구?》

현무가 긴장해지며 이렇게 묻자 소년이 머리를 끄덕였다.

《예. 순사새끼들이 최가네 집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도랑창에서 발견했다나봐요. 자세히 보니까 칼자루에 뱀대가리가 새겨져있는게 막 징그럽드라구요.》

《뱀대가리?…》

갑수가 눈섭을 치올리며 현무에게 눈길을 돌린다.

현무는 가슴벽을 천천히 치받는 심장의 흥분을 느꼈다. 사라진 옥새의 행방을 찾아낼 실마리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대관절 그 단도의 임자는 누구일가?

현무는 자못 상기된 낯빛으로 영남이에게 다시 물었다.

《경찰에선 또 누굴 용의자로 주목하는것같더냐?》

그 물음에 소년은 잠시 생각하는듯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가만 보니까 최박만이 그 두상태길 미워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놔서 순사들두 아직 딱 짚지 못하는 눈치드라구요. 근데 그것들이 슬슬 내게 물어보는 케를 보니까 최가집 아들을 많이 의심하는것같았어요.》

《최가집 아들을?…》

김현무의 두눈에서 불꽃이 번쩍였다.

3

《떵기떵기 떵더꿍ㅡ》

《닐리리 닐리리 쿵더쿵ㅡ》

풍악소리 질탕한 놀이배우에 술홍수가 터졌다.

음식을 나르는 하녀들이 몫몫으로 독상을 차지한 취객들사이를 간신히 비비고 다니는데 흐아흐아 웃고 떠들어대는 혀꼬부라진 소리들이 장마통의 맹꽁이 끓는것같다.

저가락으로 배전을 두드리며 타령을 지르는자가 있는가 하면 지화자를 련발하며 꼽새춤을 추어대는자도 있었고 턱밑에서 감쳐도는 기생과 희희락락대는자도 있었다. 가야금소리를 샤미셍(일본의 현악기)소리로 헛갈렸는지 《꼬랴! 꼬랴!》 손벽을 쳐가며 얼치기왜춤을 추는 작자까지 보인다.

가을볕이 내려쬐는 한강물결우로 기생이 뽑는 권주가소리가 울려간다.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잔 잡수시면
백년장수하오리다

《실컷 마시게, 마셔! 오늘 두발루 이 배에 올라온것들은 네…네발걸음 아니문 못내릴줄 알지어다! 흐하하하…》

10원짜리 종이돈을 기생의 옷고름에 매달아주며 최흥두가 흰목을 빼두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확인이나 하듯 술과 안주를 실은 거루배가 또 하나 놀이배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한강에 이런 놀이배를 처음으로 띄운 사람은 송병준이라던지. 이따금 통감부와 총독부의 고관들을 청해서 오르내리던 그자의 놀이배는 배전

에 쭉 돌아가면서 유리까지 끼워넣은 호화찬란한것이였다고 한다.

일장기가 펄럭대는 이 땅에 망국의 호곡소리 높을 때 송병준의 놀이배에선 장고소리 드높았으니 말그대로 초상술에 권주가 부르는 격이였다.

국운은 기울어도 얼싸절싸 풍류만 즐긴 송병준의 방종을 본따 그 후로 패덕과 방탕의 잡것들이 돈과 추문을 뿌려대며 한강수를 어지럽혔다.

하루 배놀이에 쌀 100여가마니 값을 처넣은 낮도깨비도 있었고 10원짜리 종이돈으로 기생의 코를 씻어 물우에 던진 부자집 오입쟁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건달패의 투전판에 걸려들어 가산을 몽땅 날리고 강물에 몸을 던진 투신객들도 있었으니 이 시각 놀이배우에서 흥탕을 치는자들도 그런 무리들에 지나지 않았다.

무르팍에 앉힌 기생이 닭알깍지같은 술잔을 채워 또다시 흥두의 입에 가져다댄다. 흥두는 잔에 찰찰 넘치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나서 앵두같은 기생의 뺨에다 쪽ㅡ 하고 입을 맞추었다.

《아유, 술내…》

기생이 코살을 찡그리자 흥두가 돌아가지 않는 혀를 겨우 굴리며 엉너리를 쳤다.

《계…계집한테선 분냄새가 나구 사내대장부한테선 응당 술냄새가 나기마련이라구. 아무튼 그저 술맛은 초…초란이가 쳐주는 술맛이 제일이거던.》

그 말에 초란이가 눈을 할기며 얄바가지를 떠는것이였다.

《아이고, 언젠 금랑이만 외우시더니.》

요기를 띤 그 모양이 더욱 깜찍해 흥두는 장고허리인양 잘룩한 기생의 허리를 담쑥 그러안았다.

《헤헤, 요게 제법 강짜를 다하구. … 금랑인 금랑이구 지금은 네… 네가 제일이라니까.》

흥두가 놋동이같은 초란이의 엉덩이를 슬슬 쓸어만진다.

《초란아, 너 돈 필요하지?》

《화류계 논다니치고 돈에 원쑤 안진 년 누가 있겠다고.》

한숨섞인 대답이다. 그러자 사내의 끈적끈적한 입김이 발깃하니 달아오른 초란이의 귀뿌리에 끼얹어졌다.

《내가 돈많이 줄가?》

《정말?》

《내 말만 고분고분 따르라니까. 그럼 다 생각이 있다구. 아무 녀석한테나 척척 치…치마끈 풀지 말구.》

《흥, 그게 무슨 동냥자루끈이라고 아무한테나 척척 풀어보일가.》

어조는 여전히 샐쭉해도 초란이의 몸은 벌써 흥두의 팔에 기대여왔다. 해낙낙해서 눈꼬리치는 계집의 눈이 미련한 사내의 얼굴에 음기를 살살 뿌린다.

흥두의 입이 헤벌쭉해졌다. 아무리 눈여겨봐야 어느 한군데 야무지게 맺힌데가 없는 사내다. 가뜩이나 총기없는 눈은 취기에 덮여 모주먹은 돼지눈처럼 거슴츠레한데 아낙네들처럼 가로 퍼진 헤멀건 얼굴에는 볼살이 유들유들하다. 거기다가 꼭뒤에 피도 마르기 전에 앞남산만하게 배부터 먼저 나온 꼴은 또 어떻고…

그래도 만석군의 상속자랍시고 명주바지저고리에 공작색비단조끼를 받쳐입고 거들렁대는걸 보니 비단보에 개똥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것같지는 않다.

초란이의 농익은 몸을 훑어보는 흥두의 눈에 음욕이 구름일듯하는데 누군가가 맞은켠에서 수작을 걸었다.

《얘 초란아, 그 흥두녀석의 소린 찹쌀로 찰떡친대두 곧이듣지 말거라. 제 녀편네한테 개떡같이 주물리는 자식이 널 생각해주면 비지떡만치나 생각해줄가. 헛미련 품지 말구 나한테나 오너라.》

눈길을 쳐드니 최흥두의 단짝인 기주란 녀석이다.

어디서 주어들었는지 주색잡기는 남아의 상사라는 말을 장한듯이 외우고 다니는 흥두에게 있어서 돈보다도 더 필요한게 저 기주라 할가. 오입질이나 노름질을 하재도 그래, 돈을 꾸거나 외상거래를 하재도 기주가 앞채를 메주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하기에 아무리 그의 놀림가마리가 돼도 헤죽헤죽 웃기만 하는 흥두였다.

《별 싱거운이 다 보겠네. 제가 무엇이 돼서 날더러 오너라가너라 해?》

초란이가 핀잔을 주는 소리에 흥두도 우쭐해서 끼여들었다.

《미친놈, 헌 바자에 개대가리 나오듯 저…저건 아무데나 주둥일 쑥쑥 내민다니까. 이 자식아, 너야 절구통에 치마만 둘러도 좋아하는 놈인데 초…초란이문 어떻구 애란이문 어떻다는거야. 괜히 남의 계집일랑 건너다보지 말구 네 계집이나 잘 거…건사해라.》

기주가 곁에 앉은 기생을 껴안으며 너털웃음을 친다.

《핫하하, 촌놈자식. 말과 계집은 바꿔타봐야 새맛을 안다는걸 아직두 모르는구나.》

그런 수작들이 오고가는데 이번에는 다른 한켠에서 누런 금이발로 갈비를 물어뜯던 안경쟁이가 새끼손가락을 펴보이며 말을 붙여왔다.

《사이상, 그 기생 이거나 하게소까?》

새끼손가락은 첩을 가리키는 표식이다. 흥두가 대답대신 헤식은 웃음을 지어보이자 안경쟁이는 한쪽볼에 실실 웃음을 띠우는것이였다.

《종고시, 종고시. 다다미하고 게지비(계집)는 신뽕(신품)이 종고십니다.》

반벙어리 조선말로 이렇게 지껄이는자는 호리모도라고 황금정에서 고리대업을 하면서 골동포를 차려놓고있는 일본인이다. 겉으로는 저렇게 살웃음을 짓고있지만 참새눈처럼 발딱 까진 호리모도의 두눈이 안경알 속에서 대록거리는걸 보니 취중에도 굽이 질려와 흥두는 안고있던 기생을 내려놓고말았다.

그럴만도 했다. 최박만이 급사한 뒤 매일같이 흥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몰아대는 호리모도였던것이다.

허랑방탕하느라 고슴도치 오이 걸머지듯 빚구럭을 걸머진 흥두는 호리모도한테도 약차한 빚을 지고있었다. 그런데 그 빚문서의 내용이란게 과연 걸작이였다.

《부사후출급함》 즉 아비가 죽으면 빚을 갚겠다는것이다.

아무리 부자집 외아들이라 해도 애비가 돈주머니를 꽉 졸라매고있는데다 준금치산선고까지 받은 신세이니 빚을 얻자 해도 땅문서를 잡힐게 있나, 집문서를 잡힐게 있나. 그런 흥두에게 느닷없이 어느날 호리모도가 《부사후출급함》이라고 달랑 여섯 글자가 적힌 빚문서를 들이

미는것이였다.

흥두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수 없어 볼따귀살을 꼬집어보기까지 했었다. 비록 리자는 턱자없이 비싸도 아비가 죽을 때까지는 빚성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부르도그같은 아비가 저세상에 가면 아비의 방대한 재산은 고스란히 제 손안에 들어오게 될터이니 그때 가서 빚을 갚는게 무슨 대수랴싶었다.

호리모도가 노린것이 그것이였다. 부자집 난봉자식들을 꾀여내여 빚올가미를 씌우고 뒤날 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곽지로 후려내는것이 당시 일본인고리대금업자들이 쓰던 지독한 수법이였던것이다.

아무렇든 호리모도의 난데없는 《선심》앞에 입이 떡함지가 돼버린 흥두는 식은 떡 떼여먹듯 많은 빚돈을 얻어썼고 그 재미를 본 뒤로 툭하면 《부사후출급》을 장담하며 이곳저곳에서 빚을 내군 하였다.

마침내 아비가 죽자 학수고대하던 빚군들이 썩은 생선에 쉬파리 끓듯 흥두한테 달라붙었다. 그중에서도 유별나게 기승을 부리는자가 바로 저 호리모도였다.

한데 괴이쩍은것은 저자가 요구하는게 돈이 아니라는것이다. 옛날 왕이 쓰던 그 무슨 도장이라던지, 죽은 아비가 감춰뒀다는 그 보물을 자기한테 남몰래 넘겨주기만 하면 리자를 탕감하고 본전만 받겠다는 호리모도의 그 말에 흥두는 얼떠름하기만 했다.

아비가 그런 물건을 감춰뒀다는것을 들은적도 본적도 없었거니와 대관절 어떤 보물이기에 그다지나 값이 나간단 말인가? 호리모도가 골동장사를 한다더니 골동품에 환장을 했는가?

그야 어찌됐든 리자를 탕감해주겠다는 소리만은 귀가 번쩍 뜨이게 했다.

흥두는 여윈 개 겨섬 뒤지듯 온 집안을 뒤졌으나 헛물만 켜고말았다.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아비의 무덤을 뒤져서라도 호리모도가 요구하는 물건을 찾아내여 빚보따리를 덜고싶었지만 어디다 감췄는지 알길없으니 꿈에 본 천냥이였다.

그런데도 호리모도는 옥새를 찾아내라고 매일처럼 불같이 독촉하니 이거야말로 거부기잔등에서 털을 긁어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람.

흥두는 원래부터 건달치기로 살아온지라 얼마 못가서 포기해버리고말았다. 호리모도의 딩딩한 서슬에 눌려 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로서도 배심을 부릴만한 언덕은 있었던것이다.

까짓거, 돈이든 물건이든 갚으면 될걸 가지구. 머지않아 독차지하게 될 백만금에 비하면 호리모도의 빚따위야 새발의 피구말구.

흥두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안하려 하였다. 하건만 어떻게 된 감투끈인지 아비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쉽사리 진척되지 않고있었다. …

갑자기 저쪽에서 귀쌈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작자가 다른 작자의 멱살을 꺼당기며 욱다지르는 모양이 눈에 띄였다. 멱살을 잡힌 작자가 불카해진 대머리로 상대의 면상을 들이받으려고 용을 쓴다. 술상이 뒤엎어지고 기생들이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곤드레만드레 취한 두 작자가 몸뚱이도 가누지 못한채 드잡이판을 벌리는데 말리는자보다 구경하는자들이 더 많았다. 지어 장고를 메고 나서서 《조웃타!—》 하며 신명을 돋구는 녀석까지 보인다.

기분이 시르죽어있던차라 흥두도 흥을 돋구며 붙는 불에 키질했다.

《잘한다, 잘해!》

그러는데 슬그머니 다가와 찾는 사람이 있었다.

《주사님.》

주사님이라니? 누가 죽은 아비를 찾는가싶어 흥두가 돌아보니 종로에서 잡화상회를 경영하는 라회장이 아닌가. 청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판에 끼여들었는지 알수 없었다.

요즘에 와서 자기를 만나면 꼭꼭 주사님이라고 개여올리는 라회장이였다. 그는 아비가 살아있을적에도 돈을 빌리러 이따금 드나들던 사람이였다. 사실 그때에야 아비앞에서는 설설 기면서도 자기 같은건 어디 외눈으로나 거들떠보았던가.

언젠가 자기가 빚돈을 얻으러 찾아갔을 때 담보없이는 절대로 안된다고 매정하게 잡아떼던 라회장이, 아비한테 미움받는 자기를 오뉴월 쉬파리처럼 쫓던자가 최가집주인이 바뀌게 되자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린것이다. 어째서?

돈때문일테지.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가 되는 세상이기에 돈을 위해서라면 멍멍이앞이라도 허리를 굽히는수밖에.

술덤벙물덤벙하는 흥두도 그 리치만은 모르지 않았다. 그는 이발짬에 끼운 잉어가시를 빼내며 자못 시뜻해서 방자를 떨었다.

《라회장이 웬 일루?》

라회장이 알랑기가 남실거리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주사님, 다른게 아니라 상회일을 추어세우자니 자금이 딸려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을 꿔달라는건가? 돈을 탕진하는데선 둘째가라면 원통하다 하겠건만 돈놀이에선 깜깜무식인 흥두였다. 어쨌건간에 전날에 수모당하던 일도 떠올라 그는 심술사납게 되받아쳤다.

《거 최가집 돈이 벼락맞은 소고긴가 하는가분데 아부님이 안계신다구 날 어…어수룩이들 보았다간 어림두 없다구요.》

《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주사님.》

라회장이 머리와 두손을 동시에 저으며 펄쩍 뛰는것이였다. 회장은 양판좋게 달라붙었다.

《어련히 아실테지만 선대인께는 거래대상들의 신용정도를 속속들이 조사해둔 두꺼운 목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회도 올라있을겝니다. 그걸 척 펼쳐보면 어데서 무슨 장사를 하는 아무개의 가산은 얼마고 빚은 얼마며 돈은 얼마나 빌려줄수 있는가 하는걸 횅하니 알수 있습지요. 까놓고 말해서 자금때문에 오는 인간들가운데는 빌릴 땐 지장보살의 얼굴표정을 짓다가도 갚을 땐 염라왕의 상통이 되는자들도 적지 않답니다. 하지만 저로 말하면 신용을 상인의 제일가는 재산이라 여기는 까닭에 전번에 주사님께서 모처럼 부탁하셨을 때도 섭섭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겁지요. 그 일로 주사님께서 절 괘씸하게 생각하실줄 모르는 바 아니오나 그만큼 저라는 인간이 뱀의 창자같이 곧은 놈이라는것만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대인께서도 제가 청탁을 드릴 때마다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신것이고요.

주사님, 돈이 많으면 장사가 잘되고 소매가 길면 춤이 잘된다질 않습니까. 제가 소매가 짧아서 부탁올리는것이니 밑천만 얼마간 보태주신다면

한번 건드러지게 춤을 춰보겠습니다. 하하… 그리되면 주사님께서도 한몫 잡으실수 있을터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재간 하나만은 청산류수다. 아비한테 그런 목책이 있었다는걸 알리 만무한 흥두였지만 자기도 한몫 잡을거라는 말에는 귀맛이 바짝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도 그거지만 없는 목을 늘여가며 연송 굽신거리는 라회장의 저 꼬라지는 얼마나 깨고소한가. 엊그제까지만도 도적개 몰리듯하며 빚돈을 얻으러 다니던 자기가 별안간 뭇사람들의 목줄을 거머쥐고 빚독촉을 하는 주사님으로 둔갑하게 되였은즉 이 아니 통쾌할소냐.

소갈머리 같아선 당장 이 자리에서 주겠다 말겠다 호통치며 라회장을 쥐락펴락하고싶었다. 그렇지만 아비가 없어진 지금에 와서도 제 맘내키는대로 할수 없으니 이런 속이 뒤집힐노릇이라구야. 심사가 다시금 뒤틀려났다.

《후날 보자구요, 후날!…》

최흥두는 부아가 나서 이렇게 얼버무리며 라회장을 겨우 물리쳐버렸다.

4

싸움이 가라앉았는지 저쪽에서 《노자노자 젊어 노자 늙고 병들면 못노느니라》 하는 난봉가소리가 분주스럽다.

허나 흥두의 가슴은 상사말 뛰듯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초란이가 옆에서 내미는 술잔을 받을념도 않고 얼음우에 소탄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나던 아비가 급살을 당하자 흥두는 내심 미친개 호랑이가 물어간것만치나 속시원해하였다. 아비가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있을적에는 숨도 크게 못쉬던 그가 아닌가.

흥두는 굴레벗은 망아지가 되여 지랄치기 시작했다. 베감투를 쓴채 녀종들한테 치근덕거려 개다리상제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는가 하면 장례가

끝나기 바쁘게 아비의 큰방을 차지하고 제세상을 만난듯이 날쳐댔다.

역시 난봉답게 동아리들을 휘몰아 기생집부터 들이친 그는 며칠동안 진탕치듯 즐기고 때려먹으며 기갈이 들었던 욕망을 원없이 풀었다. 더는 아비한테 된벼락을 맞을 일도 없었고 알량한것들한테 돈비럭질하러 다닐 필요도 없었다. 인제는 얼마든지 외상술을 먹을수 있었고 척 드러누워 돈도 빌릴수 있었다.

전에는 술 한잔도 외상으로 내주기 꺼려하던 집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술상을 바삐 차렸고 고리대군들은 도리여 빚돈을 안쓸가봐 걱정하며 제켠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자청해왔다. 흥두가 점포앞을 지나칠라면 장사치들은 들렸다 가라고 저마끔 소매를 끌었고 술집녀자들도 호들갑스레 아양을 떨며 겨드랑이밑으로 파고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노름군들은 다투어가며 흥두를 노름판에 끌어들였고 건달친구들은 그를 만나면 의례히 한잔 얻어먹는걸로 알았다.

그러고보면 세상인심이란게 참 무서운것이였다.

그리도 진날 개 사귄듯 흥두를 랭대하던것들이 아비의 돈주머니가 그에게로 넘어갈것같으니 상사구렝이 감기듯 극성스레 감겨도는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흥두는 제 잘난듯이 우쭐해서 돌아쳤다.

하건만 그러는 속에서도 흥두의 맘 한구석에서는 까닭모를 불안이 점점 커가고있었다.

아비가 죽은 다음날로 그는 관청에 상속문건을 냈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상주가 상중에 상속을 받는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는 리유를 대며 기각해버리는것이였다. 그에 불복한 흥두는 즉시 변호사를 구해 상속수속을 밟게 했지만 웬 일인지 오늘까지도 상속은커녕 준금치산자의 딱지조차 떼지 못하고있었다.

게다가 요즘에 와서는 주변공기도 뒤숭숭하기 그지없었다.

산지사방에서 친척이랍시고 몰려온 어중이떠중이들이 집안의 구석구석에 들어박혀 쑥덕거리는가 하면 사기군들이 최가집 토지를 협잡으로 몰래 방매하려다가 들통이 나기도 하였다. 나중엔 최흥두 본인한테 《네가 아비를 죽인게 확실하니 재산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행실이 개차반같은 흥두대신

인제라도 최박만의 상속자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권속들속에서 들려오는 지경이였다.

흥두는 밑구멍멘 개처럼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이러다가 정말 아비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진짜로 일가족속들이 작당해서 상속자를 갈아치우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거미줄에 목을 맬노릇이였다. 아비가 긁어모은 땅과 돈이 허구많다 하지만 흥두의 손안에는 제 맘대로 팔아먹을 한마지기의 땅도, 빚돈을 물 한푼의 돈도 없었다. 있다면 오로지 수다한 빚문서들뿐이였으니 만일 상속권을 뺏기게 된다면 쪽바가지신세가 될건 불보듯 뻔드름하지 않는가.

금시 울음이라도 나올듯 흥두의 입귀가 비죽거린다. 돈이 떨어지면 금방 맥이 풀렸고 혼자 먹는 술은 흥이 안나는 그였다. 동아리들과 왁자지껄 밀려다녀야 흥취가 났고 논다니들과 놀아대야만 직성이 풀렸으며 골패쪽이나 화투짝을 쥐여야만 눈에 생기가 돌았다. 돈은 그에게서 아편쟁이의 아편이나 다름없거늘 돈이 없다면 어쩐단 말인가.

어수선한 기분에서 벗어나보려고 흥두는 어제 난봉친구들을 달고 기생집으로 또 찾아갔었다. 그런데 한창 외상술을 뚜들겨먹으며 기생들과 롱탕을 치고있는데 홀연 녀편네가 뛰여들더니 술상까지 뒤집어엎으며 행악을 부리는게 아닌가.

졸지에 친구들앞에서 개코망신을 당한 흥두는 녀편네의 머리끄뎅이를 그러쥐고 한바탕 분풀이를 했다. 녀편네는 녀편네대로 머리를 풀어헤친채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그통에 친구란것들은 뺑소니를 치고 숱한 눈이 지켜보는데서 똥감태기가 된 흥두는 화김에 오늘 이렇게 친구들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재차 배놀이판을 벌려놓은것이다.

《술을 다구.》

흥두는 귀찮다는듯 미간살을 찌프리며 초란이에게 분부했다. 초란이가 기울이는 술잔의 술이 목구멍을 어루쓸며 흘러내린다. 그제서야 흥두의 낯빛이 다소 헤시시해졌다.

역시 술이란건 계집과 어울려야 제맛이 나는가부다. 그래서 《주》와

《색》이란 말은 만날 붙어다니는거구 가시어미가 따라도 녀자가 따라야 술맛이 더 난다는 소리도 생겨난게지.

처져내렸던 흥두의 어깨가 다시금 으쓸 쳐들렸다.

아무렴, 타고난 팔자야 갈데가 있을라구. 술과 계집과 노름은 사내의 삼도락이라는데 그걸 떠나서야 무슨 재미로 살아가랴.

흥두는 엿가락처럼 늘어진 제 팔자를 믿어마지 않았다.

그런 심사를 부채질이나 하듯 문득 풍악이 그치더니 동래명기 금랑이가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이배가 삽시에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이름난 기생의 얼굴을 보겠다고 저마다 들썩거리는 속에 흥두도 눈이 퀭해서 연신 앉은방아질을 했다.

동래출신으로 알려진 금랑이는 권번(왜정시기 기생을 두고 감독하며 료리점에 중개해주고 화대를 받아 중간착취하는 영업)에 속한 기생이다.

《평양기생의 치마폭은 벗어나도 동래기생의 치마폭에는 묻히고만다.》는 옛말마따나 미색인데다 노래춤 잘하고 사내다루는 솜씨 또한 능란하여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명기였다.

금랑이가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기라도 하면 사내들은 목을 빼들었고 돈냥이나 쓰는것들은 그를 차에 태우고 동대문밖 개운사나 삼각산기슭의 화계사 같은데로 돌아다니는것을 더없는 소망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 녀자가 부르는 노래들이 소리판에 취입되여 인기를 끌었고 흥행업자들이 그에게 출연을 청탁해왔다.

금랑이를 둘러싸고 떠도는 기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화대를 잘라먹고 슬쩍 내빼던 놈팽이가 금랑이한테 덜미를 잡혀 바지저고리를 벗기웠다느니, 팔뚝이며 엉덩짝에 금랑이의 이름을 새겨넣고 정사의 표식인양 뻐기며 다니는 덜렁수개들이 한둘이 아니라느니, 그리고 총독부의 어느 고관이 조선기생을 만만히 보고 접어들었다가 금랑이가 바가지를 씌우는통에 톡톡히 털렸다느니 하는…

응당히 여느 기생들에 비길데 없이 화대가 비쌌건만 수두룩한 오입쟁이들이 금랑이의 치마자락이라도 만져볼가 하여 노상 문앞에 장마당을

이루고있는 형편이였다.

하거늘 흥두라고 어찌 가만있을소냐. 나 모르는 기생은 가기생이라 뽐내는 자기가 장안의 인기를 모으고있는 명기를 안아보지 못한다면 그 체면이 뭐가 되랴싶었다. 더군다나 금랑이의 아릿다운 얼굴과 옥반에 진주 굴리는듯한 목소리를 먼발치에서 보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방망이질하는데야 더 말할게 있나.

흥두는 기주를 부추겨 명함을 들이민다, 선사품을 보낸다 하며 금랑이의 환심을 사보려고 불풍나게 극성을 떨었다. 지어 눈길이라도 얼핏 마주쳐보려고 그 녀자가 가는 곳마다 쫄쫄 따라다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토록 품을 아끼지 않았어도 금랑이는 언제 한번 문을 열어준적이 없었다. 되려 차례진것은 쌀쌀한 무시와 랭대뿐이 아니였던가.

그런 금랑이가 불현듯 이 자리에 자색을 드러낸다니 흥두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질수밖에 없었다. 아마 좀전에 와닿은 거루배를 타고 온 모양이다.

(그렇게 코대높던 계집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가?)

자못 신기하다는듯 머리를 기우뚱거리던 흥두는 뒤늦게야 기주가 보이지 않는것을 알았다. 그러자 간밤에 기주랑 몇몇 동아리들이 녀편네 때문에 망신당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술상을 다시 벌려놓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기주란 녀석이 래일은 어떻게 하나 금랑이를 불러와 흥두를 위로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더니만 흰소리는 아니한것같다. 흥두의 심장이 니나노타령을 부르며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드디여 록의홍상의 비단치마저고리를 산드러지게 차려입고 금랑이가 걸어나온다.

가벼이 물결치는 치마주름을 살풋이 누른 손길, 둥실한 젖가슴에 맵자하게 매여진 자주고름, 흐르르 날리는 다홍치마아래로 보일듯말듯 언뜻거리는 하얀 코신… 희고 고우면서도 눈빛이 싸늘한 계집이다. 사뿐히 앞에 나서 절을 하는 그 자태는 보기만 해도 뼈가 녹을듯하다.

주위에서 건달친구들이 중구난방으로 쑤군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흐흐, 그년 궁둥이 참 호함지다. 이리 불끈 저리 불끈하는게 꼭 보름달 한가지구나.》

《계집이란건 우선 살가와야 하는건데 코날이 서구 입매가 맺힌게 성미가 나면 좀 매섭겠어.》

흥두도 제풀에 흥이 나서 시시덕거렸다.

《이 자식들아, 그래서 고운 꽃엔 가시요, 단꿀엔 쏘는 벌이 아닌가구.》

《흐하하…》

이윽고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기 시작하자 금랑이의 류창한 노래소리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에 둥실 높이 떴다
…

흥두의 얼빠진 눈길이 금랑이의 온몸을 하염없이 오르내린다.

물오른 수양버들같은 저 몸매는 얼마나 낭창낭창한가. 찬물을 들이킨것처럼 시원한 저 목소리는 또 어떻구… 바가지만 박박 긁는 녀편네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였다.

피뜩 나날이 심통머리만 늘어가는 녀편네의 사나운 낯이 떠올랐다. 생각만 해도 넌덜머리가 났다. 자기가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가면 옷에서 분냄새가 나는가부터 맡아보고 나갈 때 향수만 좀 쳐도 《어느 년한테 잘 뵐라구.》 하고 강짜를 쓰는 녀편네였다. 저 금랑이가 꿀바른 찰떡이라면 녀편네는 먼지묻은 겨떡이라고나 할는지…

금랑이가 부르는 노래가락에 맞추어 여기저기서들 일어나 너풀거린다. 흥두의 비둔한 어깨도 절로 흥떡거렸다. 곁에 붙어앉은 초란이의 입이 새주둥이처럼 뾰족해졌지만 흥두는 무릎장단까지 쳐가며 궁둥이를 들썩거렸다.

금랑이가 노래를 마치고 들어가자 또다시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어데 갔댔는지 기주가 숨을 헐떡거리며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지껄이는것이였다.

《흥두야, 너 오늘 나한테 톡톡히 한턱 내야겠다.》

《망둥이자식, 또 무슨 오그랑수야?》

흥두가 얼근해서 듣는둥마는둥하는데 기주가 흥두의 벌쭉한 귀를 잡아당기며 능긋이 알려준다.

《금랑이가 널 보겠단다.》

《엉?!…》

흥두는 우들뜰 놀랐다. 꿈을 꾸는게 아닌가싶어 게슴츠레한 눈을 바로 뜨려고 애썼다. 얼음판에 자빠진 소눈깔마냥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는 그에게 기주가 물고 씹어주듯 곱씹어 외웠다.

《이번엔 대포가 아니라니까. 금랑이가 자길 청해준분한테 인사라도 드리고싶다구 얼마나 곰살갑게 그러던지 막 머리가 어찔어찔하더라니까.》

기주가 이마를 싸쥐고 비칠비칠하는 시늉까지 해보여서야 흥두는 취기에서 깨여났다.

(그러니까 금랑이가 나한테 기별을 보내왔단 말이지.)

흥두의 입이 닭알 서너개는 들어갈만큼 헤벌어졌다. 그렇게도 매정하게 굴던 금랑이가 마침내 빠금히 문을 열어준것이다.

그러면 그렇겠지. 돈을 보면 앉은뱅이도 껑충 뛴다는데 금랑인들 별수 있을라구. 무우맛은 대가리쪽이 기본이구 말은 생마가 으뜸이라는데 내 천냥만냥을 처넣구서라도 네년을 길들이지 않나 봐라.

아직 아비재산은 차지하지 못했어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선심쟁이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흥두는 의기양양해서 뚱뚱한 배를 쑥 내밀었다.

얼마후 흥두는 기주가 가리켜준대로 놀이배의 고물쪽에 있는 객실로 향했다. 막상 금랑이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묽은 피가 울렁울렁 뛰였다.

비록 기생이라 하지만 도고하기로 소문난 금랑이였다. 돈이라면 대통그림자도 따라가는 논다니기생들과 달리 금랑이 같은 일류기생들은 오입하는 절차와 경우까지 따지고들어 서뿔리 덤벼들다가는 똥묻은 개처

럼 쫓겨나기 십상이였다.

만나는 절차만 해도 작히나 까다로운가.

기생의 처소로 들어가자면 우선 그 뜻을 알리는데 먼저 온 손이 없다면 조방군(노름을 주선하거나 노는 녀자를 소개하고 뒤시중을 들어주는자)이나 기생이 승낙하면서 문을 열고 나와 맞는다. 그럼 오입쟁이는 기생과 조방군에게 인사하고 들어선다. 먼저 온 손이 있으면 그의 승낙까지 얻어서 들어간 다음 좌중에 인사하고 기생과 안부정도나 주고받으며 그대로 서있어야 한다.

좌중이 자리를 잡고 앉기를 권해야 비로소 앉아 손들과 통성하고 혹 기생의 이름이나 묻고싶다면 《좌중에 통할 말이 있소.》 하고 운부터 뗀다.

《무슨 말씀이요?》 하고 좌중이 물으면 《기생이름을 알고싶은데 선객 여러분이 허락하시겠소?》 하고 좌중의 의향을 물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생의 이름 하나 멋대로 못물었으니 그런 절차나 경우를 모르고 날치다가는 선객은 물론이고 특히 조방군이 가만있지 않아 어떤 때는 모두매를 맞는 일까지 있었다.

다행히 홍두는 다른건 몰라도 이 분야에서 허다한 경난을 겪다나니 그 정도의 물계는 좀 알고있었다.

헹, 금랑이가 아무리 코대높은들 기생이야 기생일테지. 이래뵈두 이 홍두가 여태 맘먹어서 넘어뜨리지 못한 계집이 없거늘 여북하면 《총독부말뚝》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라구. 제가 명기라면 이 홍두나으린 팔난봉이렷다. …

홍두는 제법 호기를 피우며 뚱깃뚱깃 걸음을 옮겼다.

금랑이가 있다는 객실쪽에서 무르녹은 녀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건들건들 부는 강바람을 타고 어리칠듯한 향기도 풍겨온다. 벌써부터 아래도리가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홍두는 숨을 헐근거렸다.

그럴 때였다. 불쑥 누군가가 그를 불러세우는것이였다.

《사이상.》

홍두는 엉거주춤 멈춰섰다. 눈길을 돌리니 고물다락으로 올라가는 낮을사한 계단뒤에서 어둑시그레한 그림자가 스르시 나오는것이 아닌가.

검은 줄이 얼룩얼룩한 하오리를 걸친 중키의 사내였다. 짝 바라진 코수염아래서 실뱀같은 웃음이 꼬리치는 곰보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흥두의 입에서 혀굳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사사끼가?!…》

방금전의 호기는 간데 없이 달아나버리고 금시 흥두가 매를 본 까투리모양이 돼버리는데 곰보가 자기한테 오라고 집게손가락을 까딱거린다. 흥두는 불안스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곰보한테로 다가갔다.

《여긴 어…어떻게 나타났어?》

잔뜩 겁먹은 흥두의 물음에 곰보가 시까스르듯 되물었다.

《왜? 나 같은건 이런데 얼씬거리지 말라는건가?》

말소리는 낮으나 앙칼진 독기가 날름거리는 어조였다.

흥두는 주눅이 들어 입을 찢어놓기라도 한것처럼 억지로 웃어보였다. 허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몰풍스레 따져묻는 곰보의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던것이다.

《남은 돈은 언제 주겠나?》

《그건…》

《일을 치르면 마저 내겠다던 5천원 말이야?》

곰보가 사무럽게 다그어대자 흥두는 물에 빠진 놈처럼 허둥거리며 급한 소리를 했다.

《대신 그…금고를 말짱 털어가지 않았냐구.》

《뭣이?!…》

곰보의 얄팍한 입술이 분기로 비틀어졌다. 그자는 두눈알이 새빨갛게 돋아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고노야로(이 새끼), 그런 식으로 돈을 잘라먹으려구? 금고안엔 문서장들밖에 없었단 말이다!》

흥두는 허겁을 떨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거 제발 소릴 낮추라니까.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눈치채는 날엔 넌 끝장이라구.》

그 말에 곰보가 어이없다는듯 입을 하 벌리더니 코웃음을 치는것이였다.

《흥, 네 주제에 감히 날 위협해? 요로시이(좋다).》

곰보의 얼굴에 얄미운 웃음이 솟구쳤다. 하오리의 소매속에서 접은 종이를 끄집어낸 그자는 흥두의 눈앞에 그것을 활 펴보이며 씨벌이였다.

《지금 당장 이 문서를 경찰서에 보낼가?》

《부사후출급함》이라고 적힌 그 문서장에는 금액과 함께 개발로 갈긴것같은 흥두의 수표가 씌여져있었고 시뻘건 손도장까지 찍혀있었다.

그만에야 흥두의 유들진 볼따귀가 한겨울의 꿰진 창호지마냥 떨린다. 꼭 염라왕앞에 나선 죄인꼴이였다. 사흘이 멀다하게 《부사후출급》을 외우며 숱한 빚문서들에 손도장을 찍은 그였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것이 바로 이 시각 곰보가 내보이는 문서장이였던것이다.

《사…사사끼상.》

울먹울먹 비죽거리는 흥두의 입에서 가긍스레 새여나오는 소리였다.

그러는 두 작자를 저쯤 떨어진 구석진 곳에서 몰래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다. 다름아닌 금랑이의 조방군이였다.

5

그 녀자는 날 때부터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운명을 지녔던가싶다.

그가 태여나자 보름날에 태여났다 하여 보름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아버지는 명태잡이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 녀자가 5살때 어머니는 밀주단속을 나온 순사의 발길에 채운 뒤로 운신을 제대로 못했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을 돌보던 오빠도 기미년에 동래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왜놈들의 총에 맞아 절명하고말았다.

커가면서 그 녀자는 저도 모르게 믿기 시작했다. 자기한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액운이 붙어다닌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해서는 안된다고 믿기 시작했다.

보름이가 16살 잡히던 해에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던 어머니가 끝내 세상을 하직했다. 거기다가 눈우에 서리친다더니 여느때없이 혹독한 보리고개까지 들이닥쳤다. 큰물로, 가물로 련 이태째 흉작이 진데다

흉어까지 맞다들렸던것이다.

굶어서 누렇게 뜬 사람들이 산과 들을 헤매며 나무껍질과 풀을 뜯었고 바다기슭에 떠밀려온 미역부스레기조차 줏기 어려웠다. 어찌나 배가 고팠으면 아이들이 맹물로 배를 채우다 못해 흙까지 파먹었으랴.

보름이도 먹을것을 찾아 허덕지덕 길을 떠났다. 남의 집 허드레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동냥도 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이어간 그 길에서 처녀가 흘린 눈물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다가 어느날엔가는 굶주림을 면하려고 옷고름마저 풀지 않으면 안되였으니 어이하랴, 그것만이 연약한 그 녀자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생계수단이였으니.

그날 보름이는 목이 붓도록 울었다. 한끼의 때식을 위해 아무에게나 옷고름을 풀어야 하는 제 신세가 기막혀 심장이 터지도록 서럽게 울었다. 하건만 울어야 소용없는 세상이기에 입술을 물어 흐느끼는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다.

그렇게 떠돌던 보름이는 뚜쟁이의 손에 걸려들어 동래의 한 술집작부로 들어가게 되였다. 숨막히는 담배연기며 하수구의 악취같은 술내, 지글대는 수욕과 추저분한 수작질들…

보름이는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갔다. 거치른 바위에 부서져 하얀 거품만 남긴채 사라져가는 파도처럼 쪼각쪼각 깨여지면서 살아갔다.

정조니 절개니 하는 말은 그 녀자를 위해 만들어진것이 아니였다. 비바람치는 들판에 내버려진 꿈없는 인생들에게 필요한것은 단지 하루하루의 연명일뿐이였다.

보름이는 이미 동네우물처럼 정이 가득하던 그 시절의 순박한 처녀가 아니였다. 외딴 곳에 되는대로 토해버리고 사라지는 주정뱅이마냥 정욕을 쏟아붓고는 훌쩍 떠나버리는 사내들을 보며 온몸을 휘감는 수치감에 눈물을 쏟는 녀자가 더이상 아니였다.

가냘픈 녀자가 홀로 살아갈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쉽기도 한 방책은 자신의 육체를 밑천으로 삼는것말고는 별로 없다는 리치를 설음속에 깨달으며 그 녀자는 슬픔과 괴로움을 추스를새도 없이 웃음을 팔

고 노래를 팔았다.

그러던 어느날 술집에 들렸던 어떤 서울나그네가 보름이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였다. 륙자배기를 잘 넘기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소리솜씨가 좋은데다가 인물 또한 반반한 보름이가 대뜸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시골술집에서 작부로나 놀아나기에는 아까운 계집이라고 생각한 그 나그네는 300원을 치르고 보름이를 뽑아내서는 서울에 데리고 가 500원을 받고 권번에 되넘기였다. 그리되여 그 녀자는 권번기생이 되였다.

흔히 기생들은 자기 성을 드러내기 저어했다. 혹 성이 같은 사내들을 만나는 경우 사내들이 동성의 녀자와 관계하는것을 꺼려할가봐서였다.

하지만 보름이는 금씨집안의 계집이라는 뜻에서 자기의 기명을 금랑이라고 부르게 했다. 비록 살기 힘겨워 기생은 되였어도 기생이기 전에 온전한 녀자로 살아보고싶은 한가닥의 애달픈 소망때문이였으리.

권번에서 금랑이에게 기생의 례의범절과 가무를 가르친 교사는 약방기생출신의 퇴기였다. 금랑이는 그 퇴기로부터 엄하고 까다로왔던 조선고유의 기생법도에 대해 알게 되였고 시문과 음곡으로부터 춤과 습자, 례의에 이르기까지 두루 익힐수가 있었다.

원래 그전날의 기생은 얼굴 하나만으로는 행세할수 없었다.

침구술과 가무, 례절에 능했을뿐더러 시와 서예에 달통한 기생도 적지 않았고 고을은 고을대로의 특기가 있어 관동기생은 《관동별곡》을 잘했고 의주, 북청기생은 칼춤을 잘 추었고 안동기생은 《대학》을 외워야 시세가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을 지키기를 목숨만큼 중하게 여겨 손을 받되 아무나 받은것이 아니라 지체가 떨어지면 천금을 바쳐도 기방에 들이지 않았다.

더우기 궁중향연에 나가는 약방기생이나 상방기생이 되기는 일국의 재상되는것 못지 않게 쉽지 않았고 기생들의 코가 재상만큼이나 높아 《기생재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였다.

그런데 국권상실후 관기제도가 무너지고 량반들이 세도를 잃게 되면서

그 그늘에서 서식하던 기생들도 령락의 길을 걷게 되였다. 궁중에서 노래춤을 하던 기생들이 주인을 잃고 저자를 헤매는데 서도기생이며 령남기생들이 돈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고 급기야는 뒤골목의 창부들까지도 양금채를 잡고 날뛰는 세월이 도래하였다.

전통적인 수련을 받지 못한 그런 부류의 기생들중에는 춤도 노래도 못하는 벙어리기생들이 적지 않아 왕년의 퇴기들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다.

《가무라곤 판무식인것들이 기생패를 차고 나섰어!》

그렇다고 그런 기생들의 시세가 떨어진것은 아니였다. 노래도 춤도 모르는 귀머거리오입쟁이들이 얼굴 반반하고 아양 잘 떨면 그만이라고 들이덤비는탓이였다.

열두폭치마저고리로 젖가슴을 여미던 그전날의 기생아씨들은 봄눈 쓸듯 사라지고 돈만 쥐여주면 아무나 좋다는 창기들이 곳곳에서 꼬리를 쳤다.

노래는 팔되 몸은 팔지 않는다는 조선고유의 기생도가 그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데는 이 땅에 어지러이 쓸어들어온 왜색왜풍이 주되는 화근노릇을 하였다.

《강화도조약》을 빌미로 침략의 발을 들여놓던 초시기 조선에 건너온 왜인들의 거의 전부가 가족을 본국에 둔 홀아비들이였다. 그런 처지였으니 남녀혼욕과 유곽에 익숙한 그들로서야 호박이라도 치마만 둘렀다 하면 눈에 헛거미가 잡힐수밖에.

한성과 개항장들에 왜계집들을 불러와 은밀히 영업하는 려관과 식당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조선에서 돈벌이가 좋다고 들은 섬나라의 천업부들이 풍랑과 싸워가며 죽기내기로 밀선을 타고 건너왔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온 왜갈보들은 장거리며 민가지역 지어 음전한 부녀라면 대낮에도 다니기 꺼려하는 곳들에까지 출몰하면서 매춘을 일삼았다.

로일전쟁이 터져 방대한 왜군이 조선에 밀려들고 거류민이 자가사리 끓듯하자 일본은 그들의 성욕을 배설할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였다. 하여 왜나라의 전통적매음시설인 유곽을 이 땅에 끌어들이기로 작정하고 장충단의 바로 옆을 그 적격지로 정하였거늘 장충단이 어떤데

인가. 을미사변때 왜놈들에게 살해된 사람들의 령혼을 위로하려고 만든 위령제단으로서 봄가을마다 제를 지내던 곳이 아니였던가.

다름아닌 그런 장소의 코앞에 매음촌을 만들고 일본에서 유곽동네에 상투적으로 붙이군 하는 신마찌라는 지명까지 갖다붙였으니 조선사람들의 어혈진 상처와 분노를 조롱한 왜놈들의 짓거리야말로 얼마나 야비지고 파렴치한것인가.

왜놈유곽업자들은 일본에서 창녀들을 불러들이는 한편 모진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녀자들도 륜락의 함정에 끌어들였다.

빚값에 가산을 털리우고 한지에 나앉은 부모를 먹여살리겠다고 시골처녀가 찾아들기도 했고 구박을 견디다 못해 시집에서 뛰쳐나온 새색시가 속임수에 얼리워 흘러들어오기도 했다. 그러자 쓸개빠진 조선인패륜아들도 신마찌가 서울 남쪽에 있다 하여 《남극탐험을 간다.》고 떠벌이며 왜놈들의 유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진고개일대에 범람하는 왜갈보들과 그것들을 본딴 논다니들은 주인잃은 옛 관기들을 몰아내면서 파죽지세로 화류계를 평정해나갔고 유곽들을 비롯한 왜놈의 해괴한 풍속들은 불가사리마냥 조선의 고유한것들을 일본식으로 바꿔나갔다.

금랑이도 살길이 막막해 그런 길을 걸어왔지만 지조가 서슬푸른 옛 기녀에게서 엄한 기생수업을 받으면서부터 전래의 품격과 전통미를 지닌 기품있는 기생으로 변모되게 되였다.

화사하면서도 속기가 느껴지지 않고 육감적이면서도 새뜻하고 청초하면서도 슬픈 기가 서려있는 그 녀자의 모습은 호색가들의 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게다가 소리 또한 명창이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랴.

금랑이를 찾는 사내들이 줄줄이 늘어서있어 만나려면 한주일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했고 장안에서도 그 녀자의 화대수입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화려해보여도 기생은 역시 기생일따름… 손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출 때에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금랑이였건만 끝나고나면 텅 빈 들판같은 휑뎅그렁한 공허만이 남을뿐이였다. 밤늦은 인력거에 몸

을 실으며 눈물로 손수건을 적신적은 몇번이였고 구겨진 잠자리에 얼굴을 파묻은채 구겨진 인생을 두고 통곡한적은 그 몇번이던가.

연지며 분을 발라가며 눈물자국을 가리우는 그들의 아릿다움은 거짓 아릿다움이였고 정에 속고 돈에 울며 흩뿌리는 그들의 웃음은 거짓웃음이였다.

돈있는 남자를 잡지 못하면 그날그날의 생활이 문제였다. 얼굴을 치장하고 뭇사내에게 잘 보여야만 생계를 이어갈수 있었다.

기생들은 너나없이 말했다. 한살이라도 더 젊을 때 바지런히 돈을 모으자고…

선배기생들도 입버릇처럼 외웠다.

《사내것들이 네게 사랑을 속살거려도 귀기울이지 말아. 그런건 대개 다 헛것이고 오래가지 못할것이니. 아무리 인기좋고 추어올리는 소리가 높아도 석삼년 가리라 믿지 말아. 기생환갑 스물이거늘 봄이 가고 꽃이 시들어지면 문전이 랭락하리라.》

그래서 금랑이도 마음을 도슬러먹군 하였다.

옳아, 난 기생이다. 너희들은 돈을 주고 나를 산 사내들이고… 돈을 주고 산 녀자니 너희들한텐 나라는게 단물만 뽑아먹고 뱉아버리면 그만인 껌이나 한가질테지.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늘어붙어서 돈이나 벌고볼노릇이지.

하건만 그라고 왜 사랑의 따뜻함을 모르랴. 알면서도 모르는체하는데 쓰라린 눈물이 있고 아픈 한숨이 있는것이였다.

사실 금랑이도 단 한번 제 팔자에 도전하여 한 사내를 사랑한적이 있었다.

그는 물기가 도는듯한 큰 눈을 가진 대학생이였다. 라사직만또에 사각모를 쓴 그 사내가 기방에 찾아왔을 때 금랑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심란해지는것을 느끼며 진심으로 충고했다.

청루의 미색이나 즐기면서 유위한 인생을 랑비하지 마시라고…

그 일이 있은 뒤 사내는 정말로 금랑이를 좋아하게 되였다. 금랑이도 그 사내에게 빠져드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녀자앞에서는 아직 풋내기인 사내의 숫저운 그 태도가 정겨워서였던지 혹은 만나면 늘쌍 녀

인의 크고 부드러운 가슴에 고개를 처박고 위로받고싶어하는 그 모양이 애처로와서였던지…

이미전부터 남자는 알고있어도 사랑은 모르고있던 금랑이의 몸은 애정의 불길에 걷잡을새없이 휩싸여버렸다. 그 녀자는 몸을 팔아 번 돈으로 대학생의 뒤바라지를 했고 사내도 공부를 마치면 금랑이를 안해로 맞이하겠노라 골백번 다짐했었다.

헌데 그 모든것이 일장춘몽으로 끝날줄이야.

죽으면 죽었지 기생과는 결단코 안된다고 사내의 부모들이 펄펄 뛰며 반대해나섰던것이다. 정을 품은이와 살게 해달라고 금랑이가 그토록 간절히 애원했건만 소용이 없었다.

사내가 울먹거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채 도망치듯 사라져버리자 그 녀자는 삽시에 절망과 허무의 나락속에 굴러떨어지고말았다.

정녕 기생인 신세가 원쑤였다. 몸이 기생이면 마음마저 썩은 기생이란 말인가. 로류장화라 불리우는 기생에게 있어서 사랑이란건 개밥에 닭알격이란거겠지.

자기를 기생으로 만든 무정한 세상을 눈물속에 저주하고 또 저주하던 금랑이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조갑수가 그 녀자를 알게 된것은 바로 그무렵이였다.

그때 갑수는 천변에 와서 못되게 굴던 남촌의 왜놈주먹패와 대판 싸움을 벌리고난 직후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한강다리근처의 초가마을에 숨어있던 그는 어느날 밤 갑갑증이 나서 한강변으로 나왔다.

생기없는 누런 달이 물결우에 어슴푸레한 빛발을 내려붓는 밤이였다. 한강을 가로지른 다리우에 가로등불빛들이 벌거스름한데 검푸른 밤하늘에서는 가까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흐느끼듯 떨고있었다.

울적한 심사를 달래며 강기슭을 거닐던 갑수는 문득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얼마쯤 떨어진 수풀속에서 허연것이 얼른거리는것이 아닌가.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섰다. 한밤중에 그런 후미진 기슭에 사람이 나타날리가 없겠고 더구나 그곳은 밤마다 녀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빨래방망이소리가 청승맞더라느니 하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외우군 하는 강변에서도 그중 외지고 음침한 곳이였던것이다.

(물귀신인가 사람인가? 이 밤중에 강가에 나온게 사람이라면 혹시?…)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때렸다. 갑수는 눈을 부릅뜨고 그쪽을 향해 소리없이 발길을 옮겼다. …

수풀속에서 나온 허연 형체는 꿈지럭거리며 강물에 들어서고있었다.

갑수의 걸음이 빨라졌다. 다가갈수록 물귀신은 아니고 사람의 형체가 틀림없는상싶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천만뜻밖에도 서느럽도록 하얀 소복을 차려입은 녀자가 아닌가.

갑수는 등골이 오싹해져 그 자리에 우뚝 굳어져버렸다. 젊은 녀자였다.

오밤중에 저런 녀자가 어떻게?… 그 녀자의 주위에 재빛안개마냥 무겁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갑수는 자기의 예감이 옳았다는 것을 씁쓸히 확인했다.

(이런데서 어물거리는걸 보니 다리우에서 떨어져 죽을 용기는 나지 않던 모양이지.)

갑수는 피씩 웃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닌게 아니라 한강이라 하면 《한많은 강》으로 불리울 정도로 자살자가 많이 나는 강이였다. 한강다리만 봐도 놓은지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우에서 몸을 내던졌던가.

왜놈들의 우매화시책으로 학교수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학비는 천정부지로 뛰여올라 학교진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었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왜놈기업들에 짓눌려 파산당한 기업가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더러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세상에 가서라도 이루자며 허리를 하나로 동여맨채 강물에 뛰여든 남녀들도 있었다.

숨막히는 왜놈의 세상에서 살기를 단념한 그런 인생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한강으로 찾아들고있었다. 오죽하면 다리우에다 잠간 참으라는 경고간판까지 세워놓았겠는가.

소복차림의 녀인도 모진 마음을 먹고 나온가부다 하는 생각에 갑수의 가슴이 무직해오는데 그 녀자는 어느새 한걸음한걸음 강으로 들어가 물이 무릎에 닿고있었다. 갑수는 물속으로 뛰여들어가 녀인을 붙잡았다.

《뉘신데 이러세요?》

허덕이듯 숨겹게 묻는 그 녀자의 목소리가 무덤속에서 울려오는듯하였다. 갑수는 벌써 저세상을 헤매는듯 흐릿하고 맥빠진 녀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데설궂게 이죽거렸다.

《이런 재밤중에 감히 룡궁문을 두드리면 룡왕님이 되게 노하실텐데요. 그러지 말구 오늘은 그냥 돌아갔다가 좋은 날을 골라 다시 와보시는게 어떨는지?》

그러자 말라버린 굴우물처럼 공허하던 녀인의 두눈에서 의혹의 빛이 새여나왔다. 녀인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눈밖으로 쓸어내며 갑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거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참견마세요.》

그리고는 갑수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강변의 갈대밭에서 목이 쉰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경황없이 허둥거리는 그 녀자의 어깨우에 창백한 달빛이 부서지고있었다.

갑수는 또다시 쫓아가 녀인을 붙들었다. 그래도 녀인은 막무가내였다.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쇠집게같은 조갑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자 녀인은 애절히 간청했다.

《제발 부탁이예요. 절 놓아주세요.》

그 녀자의 눈에서 눈물이 끓는것을 보는 순간 갑수는 가슴에 불방치를 틀어박는듯한 아픔에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럴수록 내버려두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녀인을 더욱 단단히 붙잡는데 녀인은 한사코 벗어나려고 기를 썼다. 강물속에 들어선 두사람사이에 격한 싱갱이질이 벌어졌다.

녀인이 끝끝내 돌아설념을 않고 필사적으로 몸을 내두르자 갑수는 그만 욱기가 치밀어올랐다. 별안간 그는 녀인을 넝큼 들어 물속에 거꾸로 처박았다. 어쩔새없이 물속에 박힌채 물을 들이키기 시작하자 그 녀자는 도리여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것이였다. 삶과 죽음사이에 가로놓인 본능이라는 심연은 그렇듯 건느기 어려운 모양이다.

갑수는 반정신을 잃은 녀인을 둘쳐업고 자기가 은신해있는 초가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되여 그는 금랑이라는 기생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비록 거칠고 무뚝뚝하기는 해도 자기를 죽음의 낭떠러지끝에서 돌려

세운 조갑수가 금랑이에게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오라비같이 여겨졌다.

하여 그날 밤 그 녀자는 굽이굽이 겪어온 서러운 사연들을 갑수에게 터놓았고 갑수도 응어리진 한을 담배질로 눌러삭이며 금랑이의 하소연을 들었다.

그날부터 세상의 버림을 받은 두사람은 오랍누이처럼 서로 마음을 의지하게 되였다. 금랑이는 갑수를 오라비맞잡이로 믿고 따랐고 갑수 역시 금랑이를 친누이처럼 생각하고 위해주었다.

며칠전에 갑수가 최가집 아들의 요즘 거동을 알아봐줄수 없겠냐고 부탁해왔을 때 금랑이가 두말없이 응한것도 그런 연고로 해서였다.

최가집 아들인 최흥두로 말하면 이미전부터 금랑이를 낚아보려고 치근거려온 녀석들중의 하나인지라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때마침 그쪽에서 배놀이판을 벌려놓고 청첩을 보내오자 금랑이는 여느때와 달리 선뜻 받아들였다.

헌데 일이 제대로 돼가느라고 그랬는지 놀이배로 가는 거루배에 금랑이네가 올랐을 때 하오리를 걸친 왜인 하나가 불쑥 나타나 능한 조선말로 수작을 붙이는것이 아닌가. 자기도 배놀이에 가는 최흥두의 친구이니 함께 가자는것이였다.

말은 그럴듯하게 둘러대건만 얼굴에 뒤덮인 곰보자국때문인지 험궂은 인상인데다가 눈찌에서 살기가 느껴지고 불안스레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꼴이 최흥두류의 방탕아들과는 색갈이 다른 작자였다. 많은 사내들을 상대해본 금랑이로서는 그자가 단지 주색이나 즐기려고 놀이배에 오르려는게 아니라는걸 어렵지 않게 눈치챌수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조방군에게 일러 곰보를 감시하게 했고 결국 최흥두와 곰보사이의 수상쩍은 관계를 갑수에게 알려올수가 있었던것이다. …

조갑수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김현무는 련민의 뻐근한 아픔으로 가슴이 저려났다. 차디찬 어둠속을 신음소리를 내며 헤매는 한 녀인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떠날줄 몰랐다. 지어낸 웃음으로 눈물을 가리운들 그네들의 설음을 어이 다 가리우고 진한 화장으로 주름을 덮은들 그네들의 고생살이를 어이 다 덮을수 있으랴.

뭇사람들이 로류장화라 손가락질하는 기생들도 알고보면 지꿎은 세월

의 비바람에 꺾이우고 짓밟히운 불쌍한 락화들이라 생각하니 마가을비에 온몸을 내맡긴것처럼 마음이 쓸쓸해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옥새의 행방을 밝힐 실마리를 알려준 금랑이라는 기생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아무렴, 계월향과 론개의 기개가 살아숨쉬는 이 땅의 기생이라면 어찌 돈만을 탐할수 있으랴.

고종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대한문앞에 소복을 한채로 엎드려 호곡하였는가 하면 손들한테 불려나갈 때도 상중이라고 소복차림을 하였다는 기생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장차 겨레를 빛내일 인재가 되라고 유망한 청년학생들의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 지어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자금까지 댄 기생들도 있다지 않는가. 하거늘 어찌 그러한 기생들을 두고 천하다고 함부로 말할수 있으랴.

현무는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는 후더운 김을 천천히 내뿜었다. 문득 최흥두와 사사끼라는 왜놈이 주고받았다는 수작들이 다시금 뇌리를 두드렸다.

남은 돈 5천원… 말짱 털어갔다는 금고… 경찰서를 두려워하는 두 작자… 대관절 사사끼가 내보인 문서장이란 어떤것이기에 최흥두가 그리도 벌벌 떨었는가?…

(사사끼… 사사끼…)

저도 모르게 사사끼라는 이름을 거듭 외우고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현무는 갑수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갑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있는지 현무를 바라보고있었다.

— 끝 —

장편소설 풍운의 옥새 (제2부)

저 자	장 수 봉
편 집	정 성 남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11월 26일
발 행	주체110(2021)년 11월 30일

ㄱ－1520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46－3

ISBN 978-9946-31-146-3